기본연구 2017-06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2017. 10.

박상우·류정곤·이상철·이호림·이상규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보고서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박 상 우 : 연구총괄, 제1장, 제2장 제1절, 제3절, 제5절, 제4장, 제5장

〈연구진〉

이 호 림 : 제2장 제2절, 제3절, 제3장 제2절, 제3절

류 정 곤 : 제5장 일부

이 상 규 : 제2장 제3절, 제3장 제1절

이 상 철 : 제2장 제4절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윤 성 은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부장)

김 정 봉 (외부감리위원)

양 영 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한 지 용 (해양수산부 내수면산업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발간사

내수면은 우리국토의 5.7%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강, 금강 등 강·하천과 저수지는 지형을 따라 수계를 형성하고, 마을에서부터 도시까지 16개 시·도. 172개 시·군·구, 2,911개 읍·면·동 등 다양한 위계의 공간을 지나 최종적으로 바다와 만난다. 내수면은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낚시업, 수상레저업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주환경, 경제, 문화, 관광 등 국민생활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많은 지역이다. 연구진은 내수면 어업지역이 오랜 역사·문화를 배경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있음을 직시(直視)하고 '강마을'이라는 새로운 지역정책의 개념을 도출하였고, 강마을과 연안·어촌의 네트워크 구축은 농촌과 함께 물길로 이어져 우리나라 지역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새 정부와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강마을 지역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발굴이라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강마을의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주도의 강마을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추진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강마을과 관련된 복잡한 거버넌스와 법률 등 규제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과 강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향후 강마을 정책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강마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부처, 관련 지역전문가, 어업공동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수산연구본부의 박상우 부연구위원이 과제의 책임을 맡았고, 동 본부의 류정곤 선임연구위원, 이상철 전문연구원, 이호림 연구원, 이상규 연구원이 참여하여 수고해 주었다. 특히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은 강마을 개념과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아울러 이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윤성은 한국농어촌공사 어촌개발부장,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 한지용 해양수산부 내수면산업팀 사무관에게 연구진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재직하셨던 김정봉 박사는 이 연구과제의 연구감

리를 기꺼이 맡아 연구내용 자문과 연구품질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 밖에 이 연구가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내수면어업계, 수협, 지자체 등 모든 분들께도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연구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연구진의 연구활동에 의한 결과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결과가 강마을 활성화의 정책 마련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10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양 창 호

목 차

❖

요 약 · i

❖

Executive Summary · v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주요내용 ····· 6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 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11
1. 관련 선행연구 ····· 11
2. 본 연구의 차별성 ····· 14

제2장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 • 17

제1절 개념 및 범위설정 ····· 17

1. 촌락의 공간구조 및 강마을 ····· 17
2. 강마을 범위설정 ····· 25

제2절 내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 42

1. 관련 법제도 검토 ····· 42
2. 강마을 관련법 검토 ····· 45

제3절 강마을 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 ····· 50

1. 강마을 현황 ····· 50
2. 내수면 이용실태 ····· 57
3. 내수면 입지유형별 심층사례 분석 ····· 71

제4절 강마을 어업계 인식도 조사 ····· 82

1. 조사개요 ····· 82
2. 조사결과 ····· 87

제5절 종합분석 ····· 91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 93

제1절 국내사례 ····· 93

1. 내수면산업 육성정책 ····· 93
2.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 ····· 98

제2절 해외사례 ····· 115

1. 해외 정책동향 ····· 115

2. 선진국의 강마을 활성화 사례 ····· 125

제3절 국내외 사례비교 및 시사점 ····· 132

1. 내수면 어업지역 사례의 진단 ····· 132
2. 시사점 ····· 133

제4장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36

제1절 추진방향 ····· 136

1.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접근 ····· 136
2. 공간 유형별 접근 ····· 141
3. 강마을 추진목표 ····· 143
4.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도입 ····· 149

제2절 강마을 활성화 추진전략 ····· 156

1. 추진체계 ····· 156
2.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 162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69

제1절 결론 ····· 169

제2절 정책제언 ····· 171

❖

참고문헌 • 186

표목차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
〈표 1-2〉 해외 선진사례 조사 ····· 9
〈표 1-3〉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 14

〈표 2-1〉 산촌의 정의 ····· 21
〈표 2-2〉 강마을 특성 및 농어촌 간 비교 ····· 24
〈표 2-3〉 5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 26
〈표 2-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기준 ····· 27
〈표 2-5〉 호소의 지정 기준 ····· 28
〈표 2-6〉 댐의 지정 현황 ····· 29
〈표 2-7〉 저수지 현황(2017년 기준) ····· 30
〈표 2-8〉 어업법인 설립 기준 ····· 31
〈표 2-9〉 강마을 관련 소관부처별 법령 현황 ····· 44
〈표 2-10〉 강마을 활성화 관련법의 주요내용 및 제약사항 검토 ····· 45
〈표 2-11〉 강마을 활성화 관련 행정기능 분담 현황 ····· 48
〈표 2-12〉 시도별 어업계 분포 및 어업인 현황 ····· 51
〈표 2-13〉 규모별 어업계 분포 및 어업인 현황 ····· 52
〈표 2-14〉 시도별 어업계 분포 및 입지유형별 어업인 현황 ····· 53
〈표 2-15〉 입지유형별 인구분포 현황 ····· 54
〈표 2-16〉 강마을 귀어인 현황(2013~2015년) ····· 56
〈표 2-17〉 강마을 일원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현황 ····· 57
〈표 2-18〉 전국 내수면어업 인·허가 현황(2015년) ····· 58
〈표 2-19〉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 59
〈표 2-20〉 지역별·품종별 생산현황(2016년) ····· 60
〈표 2-21〉 내수면 업종별 어선현황 ····· 61
〈표 2-22〉 시도별 어선현황 ····· 62
〈표 2-23〉 설문 조사내용 ····· 82
〈표 2-24〉 조사설계 ····· 83
〈표 2-25〉 연령대별 분포 ····· 83

〈표 2-26〉 지역별 분포 현황 ····· 84
〈표 2-27〉 수계별 어업계의 내수면 활용 형태 ····· 85
〈표 2-28〉 어업소득 비중 ····· 86
〈표 2-29〉 수계별 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 89
〈표 2-30〉 강마을 실태분석의 종합 ····· 92

〈표 3-1〉 내수면 어업 및 낚시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 94
〈표 3-2〉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 ····· 127
〈표 3-3〉 핀란드 피하자비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 ····· 131
〈표 3-4〉 내수면 어업지역의 국내외 사례 진단 ····· 132

〈표 4-1〉 기존 농어촌 및 강마을 지역개발의 접근방향 및 특성 ····· 136
〈표 4-2〉 강마을 활성화 추진전략 및 지원사업 매칭 ····· 163
〈표 4-3〉 현행 내수면 산업 육성 ····· 164
〈표 4-4〉 현행 어촌개발사업 ····· 165
〈표 4-5〉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안) ····· 167
〈표 4-6〉 타부처 및 공공기간 협업 ····· 168

〈표 5-1〉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안) ····· 172
〈표 5-2〉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법률 비교 ····· 176
〈표 5-3〉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안) ····· 178
〈표 5-4〉 특정지역의 지원 관련 법률 비교 ····· 180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 4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 8
〈그림 1-3〉 연구의 수행과정 ····· 10

〈그림 2-1〉 어항 배후촌락의 집촌 ····· 18
〈그림 2-2〉 산촌(散村)의 촌락형태 ····· 19
〈그림 2-3〉 어항 배후촌락의 집촌 ····· 19
〈그림 2-4〉 입지유형에 따른 촌락의 분포 특성 ····· 20
〈그림 2-5〉 강마을의 개념 ····· 23
〈그림 2-6〉 하천·강의 영역적 범위 ····· 26
〈그림 2-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영역적 범위 ····· 27
〈그림 2-8〉 댐과 저수지의 영역적 범위 ····· 30
〈그림 2-9〉 내수면어업계 현황 ····· 32
〈그림 2-10〉 어로어업 어업계 현황 ····· 33
〈그림 2-11〉 양식어업 어업계 현황 ····· 34
〈그림 2-12〉 강마을 일원의 농업 현황 ····· 37
〈그림 2-13〉 강마을 일원의 요식업 분포 현황 ····· 38
〈그림 2-14〉 강마을 일원의 농어촌민박 분포 현황 ····· 39
〈그림 2-15〉 강마을 일원의 낚시터 분포 현황 ····· 40
〈그림 2-16〉 강마을 일원의 수상레저 및 유선업 분포 현황 ····· 41
〈그림 2-17〉 강마을 관련법 체계 ····· 43
〈그림 2-18〉 내수면 이용관련 법·제도 검토 ····· 49
〈그림 2-19〉 입지유형별 강마을 현황 ····· 50
〈그림 2-20〉 입지유형별 강마을 어업계 분포 현황 ····· 53
〈그림 2-21〉 강마을의 어업계와 인구분포 현황 ····· 55
〈그림 2-22〉 강마을의 귀어 현황 ····· 56
〈그림 2-23〉 내수면 업종별 어선수 변화(2006-2015) ····· 61
〈그림 2-24〉 강마을 내수면 양식·양어장과 어업계와의 관계 ····· 63
〈그림 2-25〉 내수면 낚시터 분포 및 공간특성 ····· 64
〈그림 2-26〉 강마을 내수면 낚시터와 광역교통망 간 상관관계 ····· 65

〈그림 2-27〉 내수면 수상레저업·유선업 분포 및 운영주체 현황 66
〈그림 2-28〉 내수면 기타활용 및 운영주체 현황 67
〈그림 2-29〉 강마을 지역축제 분포 및 계절별 개최시기 68
〈그림 2-30〉 강마을 지역축제 지역 및 공간적 분포 특성 69
〈그림 2-31〉 강마을 지역축제 지역 및 공간적 분포 특성 70
〈그림 2-32〉 아산호의 전경 71
〈그림 2-33〉 아산호 행정경계 및 어업계원 분포 현황 72
〈그림 2-34〉 아산호(평택호) 강마을의 거버넌스 73
〈그림 2-35〉 아산호 행정경계 및 어업계원 분포 현황 74
〈그림 2-36〉 수계 흐름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75
〈그림 2-37〉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어업계 정화활동 76
〈그림 2-38〉 강준치 및 저장고 77
〈그림 2-39〉 섬강 전경 78
〈그림 2-40〉 어로구역 및 어업계원 분포 79
〈그림 2-41〉 주요 불법어획 도구 및 방법 80
〈그림 2-42〉 수계별 분포 현황 84
〈그림 2-43〉 종사유형 85
〈그림 2-44〉 어업 이외 직종 형태 86
〈그림 2-45〉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긍정·부정효과 인식 87
〈그림 2-46〉 지역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88
〈그림 2-47〉 기 추진된 지역개발사업 유형 89
〈그림 2-48〉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및 지지도 90
〈그림 2-49〉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수요 90

〈그림 3-1〉 내수면 양식단지 시범사업 현황 95
〈그림 3-2〉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현황 96
〈그림 3-3〉 화천군 산천어축제 거버넌스 100
〈그림 3-4〉 화천군 산천어축제 조감도 101
〈그림 3-5〉 화천군 산천어축제 102
〈그림 3-6〉 화천군 쪽배축제 102

〈그림 3-7〉 에어링산천축제 ····· 103
〈그림 3-8〉 화천군 산천어축제 방문객 추이 ····· 104
〈그림 3-9〉 화천군 산천어축제 방문객 지출금액 ····· 105
〈그림 3-10〉 단양군 전경 ····· 106
〈그림 3-11〉 남한강자율관리공동체 현황 ····· 107
〈그림 3-12〉 남한강어업계의 요식업·숙박업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 108
〈그림 3-13〉 남한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마을의 거버넌스 ····· 108
〈그림 3-14〉 예당저수지의 전경 ····· 110
〈그림 3-15〉 예당내수면 어업계 현황 ····· 111
〈그림 3-16〉 예당저수지 강마을의 거버넌스 ····· 112
〈그림 3-17〉 예당저수지 낚시업 지역브랜드화 ····· 113
〈그림 3-18〉 낚시업 등 서비스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 114
〈그림 3-19〉 내수면어업 진흥 대책 개요 ····· 115
〈그림 3-20〉 특정 외래어종 구제 대책 ····· 116
〈그림 3-21〉 취락구조와 인구밀도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도입과 내수면 수질 관리방안 · 117
〈그림 3-22〉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어도 개설 및 정비 ····· 118
〈그림 3-23〉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사례 ····· 118
〈그림 3-24〉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 119
〈그림 3-25〉 미야코노조시 강마을만들기 사례 ····· 120
〈그림 3-26〉 노베오카시(延岡市) 강마을만들기 사례 ····· 121
〈그림 3-27〉 국가별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및 공동체주도 지역개발사업 현황 ····· 123
〈그림 3-28〉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 사업추진 프로세스 ····· 124
〈그림 3-29〉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사업구역 및 전경 ····· 125
〈그림 3-30〉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거버넌스 ····· 126
〈그림 3-31〉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 128
〈그림 3-32〉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의 사업구역 및 전경 ····· 129
〈그림 3-33〉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활동그룹(FLAG) 거버넌스 ····· 130
〈그림 3-34〉 피하자비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 131

〈그림 4-1〉 어업공동체 중심의 파트너십 형성 ····· 139
〈그림 4-2〉 지역공동체의 내발적 사업 발굴 ····· 140
〈그림 4-3〉 강마을 유형별 접근방향 ····· 141
〈그림 4-4〉 강마을 유형별 접근방향 ····· 142
〈그림 4-5〉 강마을 활성화의 4대 추진목표 ····· 143
〈그림 4-6〉 어업공동체 간 연대 ····· 144
〈그림 4-7〉 어업계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 145
〈그림 4-8〉 강마을 어촌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146
〈그림 4-9〉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 147
〈그림 4-10〉 어업활동의 다각화 ····· 148
〈그림 4-1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149
〈그림 4-12〉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 및 정비 예시 ····· 150
〈그림 4-13〉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예시 ····· 151
〈그림 4-14〉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사례 ····· 152
〈그림 4-15〉 내수면 관광활성화 사례 ····· 153
〈그림 4-16〉 내수면 환경보전 및 복원 예시 ····· 154
〈그림 4-17〉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예시 ····· 155
〈그림 4-18〉 강마을 활성화 전략 단계별 프로세스 ····· 156
〈그림 4-19〉 강마을 활성화 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 157
〈그림 4-20〉 강마을 사업권역 설정 예시 ····· 158
〈그림 4-21〉 강마을 활성화 전략 파트너십 구축 ····· 159
〈그림 4-22〉 강마을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160
〈그림 4-23〉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기간 ····· 161
〈그림 4-24〉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 162

〈그림 5-1〉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 183
〈그림 5-2〉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안) ····· 184
〈그림 5-3〉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 ····· 185

요약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어촌정책에 있어 소외되었던 강마을에 대해 최초로 수행되는 것으로 내수면 어업지역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으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개별화, 분산화된 내수면 어업지역을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마련함
- 강마을은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공간뿐만 아니라 찾고 싶은 여가공간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함
- 해면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정부의 어촌정책을 내수면 어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

2. 연구의 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표〉 본 연구 방법의 특징

구분	주요내용	분석방법	방법론 선택 이유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	- 개념 및 범위설정 -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검토 - 내수면 현황 및 이용관리실태 - 입지유형별 실증사례분석 - 강마을 지역공동체 인식조사 -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방향	- 문헌조사 - 현장/면담조사 - 설문조사 - 공간통계분석	- 선행연구 및 강마을 개념정립 - 지역현안 의견수렴 및 강마을 실태파악 - 내수면 어업공동체의 지역개발 인식 및 강마을 활성화 추진 시 개발수요 파악 - 5대강 수계, 저수지 등 내수면 공간특성과 어업계 분포, 지역자원 등 기초현황 구축 및 실태분석에 활용
국내외 사례분석	- 기존 어촌정책 검토 - 강마을 정책방향 및 전략 발굴	- 현장조사 - 면담조사	- 일본 및 유럽의 선진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강마을 활성화 정책에 벤치마킹
정책 대안	- 강마을 활성화 방안 - 강마을 사업체계 구축	- 자문회의	- 관련 전문가와 정부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에 반영

자료 : 저자작성

2) 연구의 특징

○ 이 연구는 어촌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내수면 어업지역을 대상으로 강마을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업계 등 어업공동체 주도로 강마을 지역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지역정책 연구로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되었음

- 강마을 지역 활성화는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어촌정책 영역으로 확대하고,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내수면 어업지역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차별화된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을 정착시키고자 함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요약

○ 제2장에서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계 중심의 내수면 어업지역에서 어업의 지속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촌락을 강마을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실태를 살펴보았음

- 강마을은 공간적 영역으로 5대강 수계와 댐·저수지로 하며, 전국 16개 시·도. 172개 시·군·구, 2,911개 읍·면·동(920개 읍·면, 1,991개 동)을 공간적 범위로 하며, 전 국토의 5.7%에 해당됨
-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는 전국에 338개소, 8,328명(어업계 평균 계원수 24.6명)으로 나타났고, 백두대간의 서편인 한강·금강 수계 일원에 밀집해 있는 공간적 특성을 보임
- 강마을은 어업활동(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을 중심으로 그 일원에 농업, 관광·서비스업(낚시업, 수상레저업, 유도선업) 등이 발달해 있음
- 강마을은 내수면 특성상 여러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댐과 저수지 등은 해면과 다르게 공유수면(公有水面)의 접근보다 수면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음

- 어업계 대상 인식조사 결과, 내수면 어업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의 필요성은 높게 나타났고, 희망하는 사업은 어업인프라 확충(40.1%), 관광레저사업(27.9%), 정주환경개선(18.0%), 소득·일자리(8.8%) 순으로 나타났음

○ 제3장에서는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국내·외 정책동향과 사례지역을 조사하였고, 이 연구의 정책방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았음
- 첫째, 제4차 내수면진흥 기본계획(2017~2021)과 6차산업화 동향을 살펴보고, 화천 산천어 축제, 충북 단양 남한강 자율관리공동체 사례 등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의 성공요인과 사업성과를 분석함
- 둘째, 일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과 강마을만들기(가와마치쯔꾸리) 정책 동향과 역사문화, 지역특화(은어) 사례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살펴봄
- 셋째, 유럽연합의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 정책 동향과 핀란드 피하자비 호수(Pyhajarvi Lake),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호수(Peipsi Lake) 등 내수면 어업지역의 지역 활성화 방안 사례를 살펴봄
-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조사의 시사점으로 ⅰ) 내수면 어업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역정책 마련 필요, ⅱ) 현장밀착형 전담기관 운영, ⅲ)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강마을에 대한 여건과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책방안으로 기본방향, 추진전략, 사업 도입방향, 추진체계 등을 제시하였음
- 강마을 활성화는 ⅰ) 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ⅱ)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ⅲ)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ⅳ) 어업활동의 다각화를 목표로 제시함
-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ⅰ)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ⅱ) 내수면 어업 생산기반 확충과 정주환경 개선, ⅲ) 내수면 어업의 부가가치 제고, ⅳ) 강마을 관광활성화, ⅴ) 내수면 환경보전 및 복원, ⅵ)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등을 제시함
- 강마을 활성화 정책은 수산·어촌개발사업과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수면관리자 등의 협업이 필요함

- 강마을 활성화 정책은 ⅰ)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ⅱ) 강마을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ⅲ) (가칭)「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제정 추진, ⅳ) 강마을 정책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신규정책으로 반영, ⅴ)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등을 제안하였음

2) 정책적 기여

○ 기존 해면의 어촌개발에 한정된 어촌정책에서 내수면까지 포함함으로써 해양수산부 어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영역 확대에 기여

○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국가균형발전'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

3) 기대효과

○ 이 연구는 해양수산부가 내륙지역(내수면 어업지역)에서부터 국토 끝(섬지역)까지 다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역정책에서도 정책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음

○ 어업계 단위로 개별화·분산화 되어 있는 강마을의 어업공동체를 협력·연대로 새로운 경제적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하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마련함

○ 강마을의 수산자원, 역사·문화, 관광 등 특화된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들의 레저·관광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강마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함

Executive Summary

Strategy for the Vitalization of Regional Economies in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1. Purpose

○ This study is the first to cover the subject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which has been marginalized in Korea's fishing village policy. The study aims is to devise a new development strategy for inland fishery areas thus, detailed purposes are as follows:

- Establishing a new regional community for Inland fishery areas, which have been individualized and distributed,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homogeneity and developing a momentum for regional development
- Contributing to better quality of people' lives by turning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into settlement and leisure places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and visit
- Expanding the government's fishery policy, which has solely focused on seas, into inland fishery areas and preparing a systematic support system

2. Methodologies and features

1) Methodologies

〈Table〉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ologies

Characteristics	Major contents	Data collection	Reasons for selection
Concept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and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scope - Review relevant policies and legal systems - Current status of inland waters as well as its use and management - Analysis of actual cases by the type of sites - Survey on the awareness of river village communities - Comprehensive analysis and the direction of drawing tasks	- Literature study - Interviews - Survey - Space data analysis	- Preceding studies and defining the concept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 Collecting regional current issues and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 Understanding inland fishery communities' awareness of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ment needs i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are revitalized - Establishing basic status information such as spatial features of inland waters such as 5 major rivers and reservoirs etc. and using them for status analysi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 Review existing policies of fishing villages - Discovering policy direction and strategy for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 Field inspection - interviews	- Reviewing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Japan and the EU and benchmarking them to vitalization policy for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Policy measures	- Measures for the vitalization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 Establishing business systems of Inland Fishing Communities Network	- Consultation meetings	- Collecting the opinions of relevant government experts and officials and reflecting them into policy measures

2) Features

○ This is the first study in Korea on the subject of inland fishery areas, which has been marginalized in the development of fishing communities. As a regional policy research, this study aims to vitalize regional economies by establishing a network of river village fishery areas and forming river village communities driven by small fishing circles etc. The feature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Vitalization of river village areas will be included into new fishing community-related policy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through the network of inland fishery areas. It is also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new government's strategy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 The study will help take a root for a differentiated bottom-up regional development model. Such a model is driven by regional communities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homogeneity in inland fishery areas

3. Result

1) Summary

○ Chapter 2 contains the definition of a 'river village' and looks at its general status. In this chapter, a river village is defined as a certain size of a village, which engages in economic activities that promotes the sustainability of fishery and promotes additional values, while locating at inland fishery areas centering on fishing communities based on social and economic homogeneity

- River villages are spatial areas which include five major river waterways, dams and reservoirs as well as Korea's 16 cities and provinces, 172 cities, Gun, Gu, 2,911 Eup, Myeon, Dong (920 Eup,

Myeon and 1,991 Dong) which accounts for 5.7% of the total land.

- Inland fishery communities are 338 sites across the national with 8,328 residents (24.6 residents on average for a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15 of the Inland Water Fisheries Act. In addition, one spatial feature of these areas is that these communities are concentrated on the west side of the Beakdu Mountain Range around areas of Han River and Geum River.
- River villages place fishing activities (fishing and aquaculture) at the center and has developed agriculture, tourism and service industries (fishing, marine leisure, excursion ship and ferry business etc.) in surrounding areas.
- Due to the features of inland waters, multiple government departments manage river villages in accordance with separate laws. Unlike seas, in particular, dams and reservoir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designating water system managers.
- An awareness survey on fishing community shows tha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inland water fishing areas are highly necessary. Furthermore, projects that the respondents most want are securing fishing infrastructure (40.1%), followed by tourism and leisure business (27.9%),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18.0%) and increasing income and jobs (8.8%).

○ Chapter 3 investigates policy trend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vitalization of inland fishery areas. This chapter also takes a look at the implications applicable to policy measures.

- First, the study covers the fourth Basic Plan for the Promotion of Inland waters (2017~2021) and status of the sixth industrialization. It also analyzes successes and project outcomes of cases including Hwacheon Sancheoneo Ice Festival and Namhan River's self-management community in Danyang.

- Second, Japan's policy for promoting inland fishery and its policy trends of 'making a river village' are analyzed. In addition, various measures for vitalizing regions are studied including history, culture and regional specialization.
- Third, while accessing policy trends of 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driven by EU community, it looks at the cases of vitalizing inland fishery areas, such as Pyhajarvi Lake of Finland and Peipsi Lake of Estonia.
- Lastly,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y results in the following implications; ⅰ) needs to establish regional policy for inland fishery areas at the government-level, ⅱ) oper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 which is able to closely interact with fields, ⅲ) creating additional value and jobs by turning regional features into a brand

○ Chapter 4 carries out an analysis on conditions and status of river villages and conducts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hrough this process, it sets up a direction for the vitalization of river villages, suggesting policy measures including basic direction, implementation strategy, direction for introducing projects and implementation process etc.

- Goals of vitalizing river villages are as follows; ⅰ) increasing the solidarity and influence of a community, ⅱ) stably maintaining the society fishing villages, ⅲ) improving additional value and rising income, and ⅳ) diversifying fishing activities.
- Specific projects for the vitalization of river villages are as follows; ⅰ)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regional communities, ⅱ) improving fishing production base of inland waters, ⅲ) enhancing additional value of inland fishery, ⅳ) vitalization of tourism in river villages, and ⅴ)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inland water environment, and ⅵ)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 Policy for vitalizing river villages require not only discovering fishery and fishing community-related development projects, but also the cooperation from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and water system managers.
- The following policies are suggested for the vitalization of river villages; ⅰ) promoting support project for vitalizing fishery areas in river villages, ⅱ)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vitalizing river villages, ⅲ) pushing ahead the legislation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River Village Areas (tentative)', ⅳ) reflecting river village policies into the 3rd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Communities and Ports, ⅴ)design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 for the vitalization of river villages.

2) Policy contribution

○ Policy for fishing communities has been limited to sea areas. However, this study brings inland waters into the policy, shifting the paradigm of MOF's fishing community policy and contributing to the expansion of policy areas.

○ The study revises and supplements existing policies and produce mid-to-long term policy direction. By doing so, it contributes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government's national agenda of creat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where everyone wants to live' and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3) Expected benefits

○ The study provides a solid base for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deal with all the areas from inland areas

(inland fishery areas) to the end of the territory (island areas). Therefore, it helps MOF come up with a foundation for regional policies.

- ○ Fishing communities of river villages are individualized and distributed by small fishery circles. The study allows these fishing communities to form a new economic regional community based on cooperation and solidarity. Therefore, it highlights their role as a main agent of vitalizing regions, providing a foundation for generating additional value and jobs.
- ○ Utilizing specialized resources of river villages such as fishery resources, history, culture and tourism, the study increases the residents' income and the quality of lives. Furthermore, it raises the people' awareness of river villages by meeting the public demand of leisure and tourism.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내수면은 안정적인 상수원의 확보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주로 농업용수를 위한 이수(利水)·치수(治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밖에도 내수면은 상수원과 농업용수의 이용·관리뿐만 아니라 어업, 낚시업, 수상레저업, 유·도선업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내수면은 어업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용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연구에서 어촌개발이 아닌 농촌개발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업계 등 지역공동체 주도의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를 강마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통해 해양수산부의 새로운 어촌정책 영역으로 확대

이 연구는 국가의 어촌정책이 어촌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어업소득 제고와 어촌관광 활성화 등 해면의 어업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어촌어항법」, 「내수면어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해양수산부 소관의 법령은 내수면어업과 촌락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촌은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마을 어촌정책은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5.7%에 불과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륙지역 지자체를 포괄하는 지역

개발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또한 강마을은 어업, 낚시업, 수상레저업, 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주도의 체계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어촌정책으로 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도모

최근 일본과 유럽연합은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수면어업 진흥과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 かわまちづくり) 지원으로 전국 약 140개소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 전략(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을 통해 각 국가별로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매 7년마다 추진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지역정책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내수면 어업지역의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역침체 등에 따른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면의 어업지역 활성화 방안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는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내수면에 지역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가균형 정책과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사회·경제적 동질성과 지역공동체 주도의 차별화된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 추진

강마을은 하천과 저수지 등 내수면어업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기초한다. 강마을의 공간적 규모와 범위, 지역공동체 주도형의 상향식 개발은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따라 설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범주의 규모화가 이루어져 농어촌 지역개발의 읍·면 행정구역별 구획에 따른 권역과는 차이가 있다. 강마을은 어업자원과 환경에 따른 특성, 어업문화·역사자원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내수면의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인 역량강화와 지역 활성화 전략사업 마련을 통해 차별화된 상향식 지역개발 모델 구축으로 단계적인 사업추진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특히, 강마을 지역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작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내수면 어항개발 및 정비), 내수면 활성화사업(유휴저수지 및 내수면 양식단지 확대 추진, 지역맞춤형 어도개발)에 대한 사업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지금까지 어촌정책에서 소외되었던 강마을에 대해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 강마을의 지역침체, 도시·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여가 충족, 귀어·귀촌, 6차산업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어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화·분산화된 내수면의 어업계와 지역주민, 수계, 어업자원, 문화, 환경, 행정구역 등 사회·경제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협력과 연대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마련함으로써 강마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강마을의 개념정립과 특성파악을 하고, 강마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단순한 낚시활동과 먹거리로 획일화된 내수면을 국민들에게 여가공간과 정주공간으로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해면의 어촌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내륙의 내수면 어업지역까지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거버넌스,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주도형 사업체계, 추진 프로세스 등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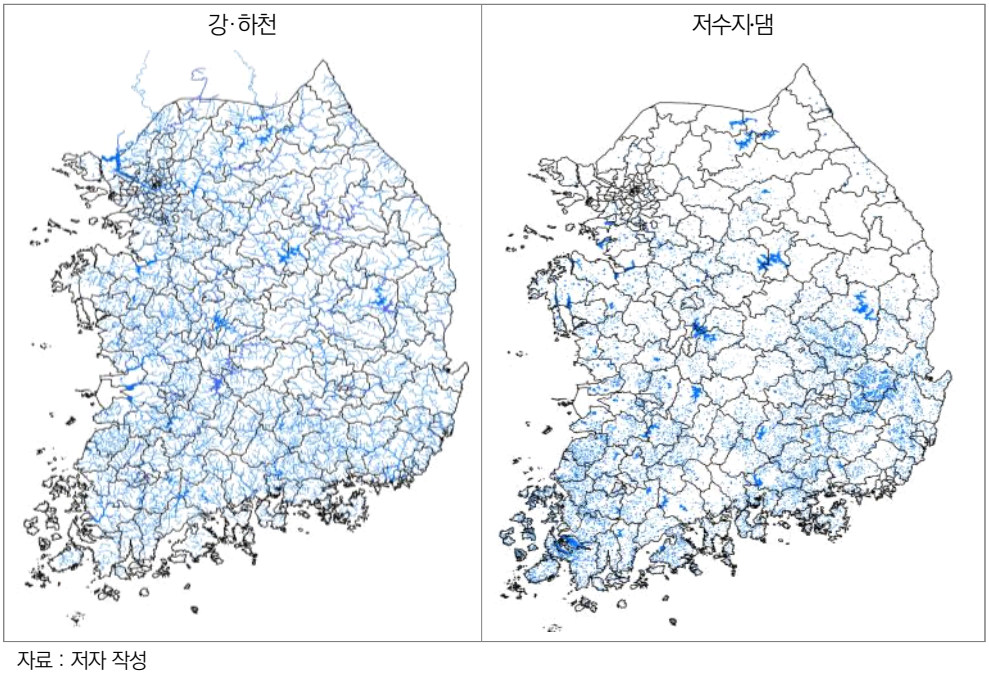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추진체계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내수면어업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수면에서 어업계 또는 어촌계 등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백두대간과 9개의 정맥(正脈)[1]은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5대강 수계의 분수령이 되고, 각 수계별로 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2급)과 저수지·댐의 수면을 활용하여 어업, 낚시업, 수상레저업 등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자료 : 저자 작성

[1] 지리학에서 산맥을 크기에 따라 위계를 나누었을 때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함

2)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크게 ⅰ)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 ⅱ) 국내외 사례분석, ⅲ)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전략, ⅳ) 결론 및 정책제언으로 구분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내용적 범위

항목		세부내용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	강마을 개념 및 범위설정	- 강마을 개념 정립 및 특성 파악 - 공간적 영역, 활동주체, 경제활동의 범위 설정
	강마을 관련 지역정책 및 법제도 검토	- 내수면 및 주변 지역개발 관련 정책동향 및 법제도 검토
	내수면 현황 및 이용·관리 실태	- 내수면 및 주변지역의 보전, 이용·관리, 개발 측면의 현행 법제도 한계 및 문제점 도출
	강마을 입지유형별 실증사례 분석	- 양식장·양어장, 저수지·댐, 하천·강 등 공동체의 분포, 취락특성, 거버넌스, 경제활동,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강마을 지역공동체 인식조사	- 기본현황, 지역개발 영향 인식도, 거버넌스 형성도, 사업만족도, 지지의사, 강마을 개발방향
	종합분석 및 과제도출 방향	- 강마을의 실태 및 특성,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방안 제시 - 강마을의 유형별 특성과 개발방향 도출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활성화 국내외 성공사례 - 거버넌스 구축, 도입사업, 사업성과 등 시사점 도출
강마을 활성화 추진방향 및 전략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지역개발 관점의 강마을 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강마을 지역개발사업 사업체계 구축	- 사업주체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 - 내수면 수계의 특성을 고려한 권역화 방안 - 현행 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정책 추진방안 -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방안
결론 및 정책제언	정책제언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강마을 기초조사 수행방안 - 강마을 발전 전담기관 설립(지정) 등

자료 : 저자 작성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강마을에 대한 정책연구로서 지금까지 어촌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내수면 어업지역을 어촌의 정책대상으로 확대하고,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내수면 어업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촌의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제1장부터 제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연구의 개요로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 및 추진체계, 선행연구 검토 등을 다루었다. 특히, 내수면 자원증대, 문화·레저관광 활성화, 어촌범위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이 연구가 선행연구와의 다른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강마을에 대한 개념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강마을은 저수지·댐, 강·하천 등 내수면에서 어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어업활동의 지속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촌락으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또한 내수면 활성화와 관련된 정부정책 및 관련 법·제도 검토, 강마을의 현황 및 실태, 내수면 어업계 대상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특히, 저수지, 강·하천 등 강마을 입지유형별 실증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강마을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은 국내외 내수면 어업지역의 공동체 주도의 활성화 사례를 다루었다. 주민주도형 상향식 지역정책과 6차산업화 등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동향을 살펴보고,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성공요인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사례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과 일본의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에 대한 시사점과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방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였다.

제4장은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강마을의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어촌정책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 사업체계, 지원사업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과 정책제언으로 정부의 강마을 정책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 추진과제 등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강마을에 대한 개념 설정을 위한 국내외 문헌조사와 내수면 어업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공간통계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면담조사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외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조사를 위한 사전 문헌조사와 현지 방문조사,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등이 수행되었다.

가.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강마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위해 '촌락', '취락', '공동체', '공유수면' 등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촌락의 발달과정에서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사회 구조변화와 내수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수요가 다변화 되는 과정까지 살펴보는데 유용하였다. 또한, 「촌락지리학」, 「촌락개발의 기본성격」 등 촌락에 대한 문헌자료와 다양한 논문은 연구진들이 강마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나. 공간통계분석

공간통계분석은 내수면 어업지역의 촌락구조, 행정경계, 교통망, 숙박업, 요식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등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국가공간정보포털 등으로 부터 확보하고, 어업계 현황, 내수면 어업인 통계, 귀어귀촌 통계, 수면관리자의 이용·관리 통계자료 등을 속성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공간통계분석은 내수면 어업지역에 대한 현황과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1) 강마을 도출

강마을은 내수면에서 어업활동과 그 외에 다른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면 어업지역의 네트워크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내수면과 그 자원을 활용하는 어업공동체(어업계 또는 어촌계 등)가 중심이 되어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와 저수지·댐을 중심으로 형성하고 있다.

(2) 강마을 입지유형별 분포 및 특성

강마을은 내수면 어업지역을 기반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수계와 주변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지유형별로 도출하였다. 이는 내수면 어업지역의 이용실태와 지역여건, 어업계 설문조사와 기초실태조사(내수면 축제, 농어촌민박, 요식업 등)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1-2〉 연구의 수행방법



자료 : 저자 작성

다.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어업계 338개소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무선전화 및 조사원과 응답자가 대면하는 조사방식을 채택하였다. 연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사설계는 연구진이 직접 마련하고, 조사수행은 전문 리서치업체인 사회조사센터에 의뢰하여 약 2주간 수행하였다. 유효표본은 총 222개를 확보하였고,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해 강마을 어업공동체의 지역개발에 대한 인식 등

을 파악하였다.

라. 현장 및 면담조사

현장 및 면담조사는 충남 예산군(예당저수지), 충남 아산시(아산호), 강원 원주시(섬강), 충북 단양군(남한강) 등 20여 개 지역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진이 지자체 담당자, 어업계의 대표 등과 같이 면담하여 해당지역 강마을의 현안과 지역 활성화 방향에 대해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현장 및 면담조사는 강마을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사업목표 설정, 지원사업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다.

마. 해외 사례지역 방문조사

연구진은 일본과 유럽연합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동향과 사례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지역공동체,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문헌조사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유럽연합의 어업지역 네트워크 본부(FARNET)와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을 방문하고, 일본은 국토교통성과 강마을만들기(가와마치즈쿠리) 사례지역을 조사하였다.

〈표 1-2〉 해외 선진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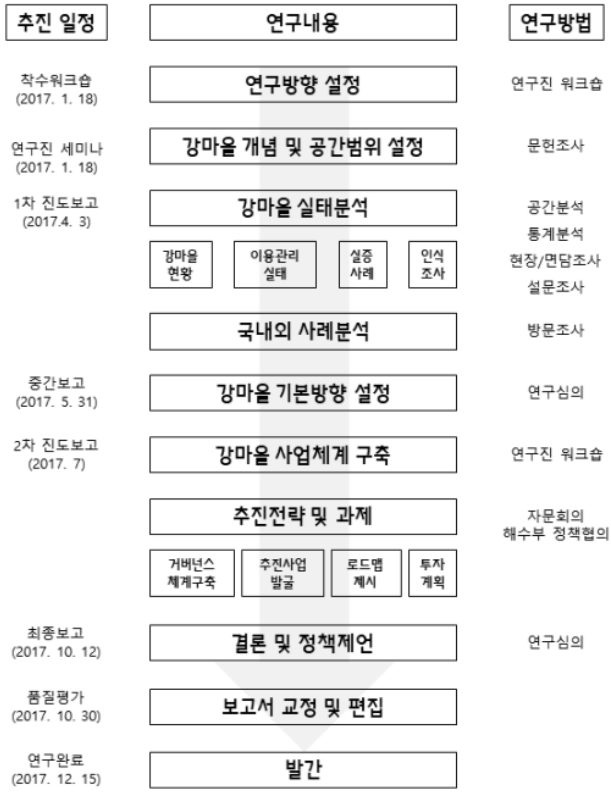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일본	국토교통성	-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 정책동향	6월 하순
	지자체	-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	6월 하순
유럽연합	파넷(FARNET) 본부	-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을 통한 내수면 어촌개발 정책동향	7월 초순
	에스토니아	- 페이프시(Peipsi)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	7월 초순
	핀란드	- 피하자비(Pyhajarvi) 내수면 어촌개발 사례	7월 초순

자료 : 저자 작성

2) 수행과정

연구의 수행과정은 〈그림 1-3〉과 같다. 연구진은 착수과정에서 강마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간적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였다. 특히, 내수면 어업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대강 수계와 저수지 일원의 24개 지역과 일본 및 유럽연합의 사례지역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강마을에 대해 수행되는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지리정보체계(GIS) 기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공간자료로 구축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해양수산부의 어촌정책과 내수면 어업 활성화에 정책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략과 추진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그림 1-3〉 연구의 수행과정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관련 선행연구

저수지·댐이나 하천변 마을개발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저수지를 활용한 수산자원 및 어민소득 증대, 내수면 공유수면 관리체제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을 활용한 수산자원 및 소득증대 방안 연구

가. 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

신현상 외(2013)는 저수지를 활용하여 지역성과 경제성이 양립하는 수산자원 증대방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과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372개소를 대상으로 수산자원형(4개소), 유어낚시형(2개소), 생태관광형(3개소) 등 유형별 선정기준을 통해 대상지역 9개소를 선정하고, 자원증대를 위한 어업주체, 지역주민 참여방안, 수질기준 및 방류밀도, 관련 법제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내수면 어종의 소비시장 비탄력성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소비시장이 취약한 내수면의 경우 수산자원 증대가 가격폭락으로 인해 직접적인 소득증대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내수면 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보다는 자원방류, 서식처·산란장으로서 생태환경 조성에 국한된 연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나. 내수면 목장화 사업을 통한 어민소득 증대

윤진수 외(2011)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보호, 생산성 향상, 유어기반 마련 등 통합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기술로서 목장화 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내수면 목장에 대한 공간적 범위와 사업화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외래·위해종 관리,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사업추진 체계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저수지의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어업인 주도형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수면의 어업활동 주체인 어업계의 역량강화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했던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2) 저수지·강변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가.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개선

양일승 외(2014)는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농촌테마공원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저수지 활용의 바람직한 모델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시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광주·전남지역 4개 농촌테마공원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관계자 인터뷰조사 등을 통해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기존의 농촌테마공원은 첫째, 사업간 차별성 부족, 둘째, 수요자 니즈에 맞는 인프라와 운영프로그램 부재, 셋째, 방문객수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단순 경유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 미흡, 넷째,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원 창출에 대한 부재를 제시하였다. 다만, 농어촌의 지역개발사업 중 농촌테마공원과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점이 이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주도하여 공원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쳐 실질적인 내수면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

나. 강변 문화 및 레저관광 활성화

심원섭 외(2009)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한 강 주변의 문화관광자원 활성화 방안의 틀을 제시하고, 수변 연계 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는 연구로 이를 통해 강 유역 전역에 대한 개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현장조사,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론을 통해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통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할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공간범위의 설정은 동 연구의 강마을 개념과 그 범위를 설

정하는데 참조가 되었다. 하지만 4대강 권역의 특성화 전략과 추진방안에 있어서 물리적인 관광자원과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사업추진 전략을 마련하는데 그쳐 강변의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접근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3) 내륙 어촌의 공간범위 및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가.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박상우 외(2014)는 어촌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어촌의 개념과 공간범위를 제시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공간지리정보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촌 범위설정을 시도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며, 일본의 어업집락제도 등 '촌락'의 개념에서 어촌의 개념과 범위를 도출한 점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연구가 해면지역의 72개 연안 시군구를 대상으로만 검토하였으며 내수면의 어촌은 제외되어 수행되었던 한계가 있었다.

나. 내륙 공유수면 관리체계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하천, 호소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을 '내륙 공유수면'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의 방향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는 문헌조사, 면담조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내륙 공유수면의 관리지침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내륙 공유수면의 경우 이해당사자의 이해부족으로 무단경작, 불법 점·사용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내수면 입지·지리적 특성으로 관리업무의 한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해역의 공유수면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내륙 공유수면은 행정업무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지연 외(2013)는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부문에 국한하여 수면의 목적외사용 등 실질적인 내수면 이용주체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앞에서 살펴보았던 6개의 선행연구에 대한 개요, 연구방법, 연구내용 등을 요약하고, 이를 제시하면 〈표 1-3〉과 같다.

〈표 1-3〉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 과제명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방안 연구 - 연구자 : 신현상 외(2013) - 연구목적 : 농업용저수지의 지역성과 경제성을 만족하는 수산자원의 증대방안 제시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발전을 도모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내수면 양식 현황 및 대상지 선정 - 수산자원 연구 대상어종 선정 - 수산자원량 증대방안 -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모델
	2	- 과제명 : 내수면 목장화 사업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방안 연구 - 연구자 : 윤진수 외(2011) - 연구목적 :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국민여가공간 마련 등 어촌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증대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내수면 생태자원 및 잠재력 조사 - 내수면 목장화 사업 기본계획 - 내수면 생태조화형 시범 바다목장 모델 개발 - 내수면 목장화를 통한 어민소득 창출방안 - 매립간척, 방조제 조성수역의 효율적 활용방안 - 매립간척농업용지를 활용한 고소득 양식단지 개발
	3	- 과제명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 연구자 : 양일승 외(2014) - 연구목적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하는 농촌테마공원의 바람직한 모델 제시	- 문헌조사 - 인터뷰조사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의 조성 및 운영 현황 - 농업용 저수지 활용 농촌테마파크 사업성과 및 문제점 -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

구 분		세부내용		
		연구개요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4	- 과제명 : 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수립 기초 연구 - 연구자 : 심원섭 외(2009) - 연구목적 :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범위 설정 등을 통해 강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획의 수립 및 절차, 수립 내용 및 체계 등을 정립함으로써 바람직한 계획수립 모델 제시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자문회의	- 강의 문화관광적 의미 및 여건분석 - 해외사례 분석 - 강변 문화관광권 개념 및 공간범위 설정 - 강변 문화관광권 기본구상 수립 - 권역별 특성화 전략 방향 제시 -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수립 전략
	5	- 과제명 : 통합적 어촌개발 추진을 위한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연구 - 연구자 : 박상우 외(2014) - 연구목적 : 어촌개발 체계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어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에 대한 개념적 틀 마련	- 문헌조사 - 공간분석 (GIS) - 방문조사 (선진사례) - 자문회의	- 어촌의 개념과 공간적 특성 - 어촌개발의 한계 및 문제점 - 일본의 통합적 어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 통합적 어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
	6	- 과제명 : 내륙 공유수면 관리체제 기반 연구 - 연구자 : 최지연 외(2013) - 연구목적 : 내륙 공유수면의 점사용 실태분석, 국민신문고 등 민원사례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관리기반을 구축	- 문헌조사 - 자료조사 - 면담조사 - 현지조사 - 의견조사	- 내륙 공유수면의 점사용 실태조사 및 분석 - 남양주시 대상 시범현장 및 사례조사 - 내륙 공유수면 관리지침 작성 - 내륙 공유수면 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자료 : 저자 작성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앞서 검토하였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연구적 의미, 연구의 분석방법, 연구내용 등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강마을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해양수산부가 어촌정책의 스펙트럼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0년 4대강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강변의 관광레저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접근 보다는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강·하천의 물리적 구조변화와 친수시설 도입을 통한 지난 개발은 사실상 실패로 평가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강·하천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는 새로운 정부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연구는 공간통계분석을 활용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이 분석방법은 강마을을 중심으로 내수면 수계, 어업계, 내수면 축제 등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와 통계자료를 연결시켜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결과물의 시각화뿐만 아니라 강마을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5대강 수계와 주요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강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연구수행과정 상의 차별화된 요소이다. 강마을 어촌개발의 추진방향과 사업체계를 수립하는데 어업계, 지자체, 관련 전문가, 정부담당자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동 연구는 강마을의 내수면 촌락의 공동체 특성을 기반으로 어업계, 해당 지자체, 지역주민, 타 경제활동 주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등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강마을 지역정책 반영을 위한 사업체계 및 전략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어촌정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원을 전제로 하는 정책연구이다.

제2장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

제1절 개념 및 범위설정

1. 촌락의 공간구조 및 강마을

1) 촌락의 개념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촌락(村落)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취락에 대한 개념설정을 전제하고자 한다. 취락은 인간의 기본욕구 가운데 주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의 활동으로 그 결과는 가옥(家屋)의 형태로 나타난다. 즉, 취락은 이러한 가옥의 집합체 또는 집단화된 형태를 의미한다. 취락은 인간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역사회(Community)를 구성하는데, 취락 유형에는 촌락과 도시가 있다.[2)]

촌락과 도시는 기본적으로 취락의 인구수, 인구밀도, 행정구역, 경제활동, 토지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며, 인구규모에 따른 기준은 국내의 경우 50,000명이고, 국가별로 설정기준은 각기 다르다. 촌락은 전통적으로 임업, 농업, 목축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위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토지이용(Land Use)도 1차 산업 목적에 맞는 저밀도,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경관성을 나타낸다. 또한 촌락과 도시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의존 관계이다.

촌락은 도시에 먹거리, 원료, 노동력,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반대로 도시는 공산품, 문화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부족한 기능을 보충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도시의 성장이 외연적으로 확장하면서 도·농복합도시 또는 촌락적 도시들이 생겨나고, 그 경계 영역이 불분명한 촌락과 도시의 관계도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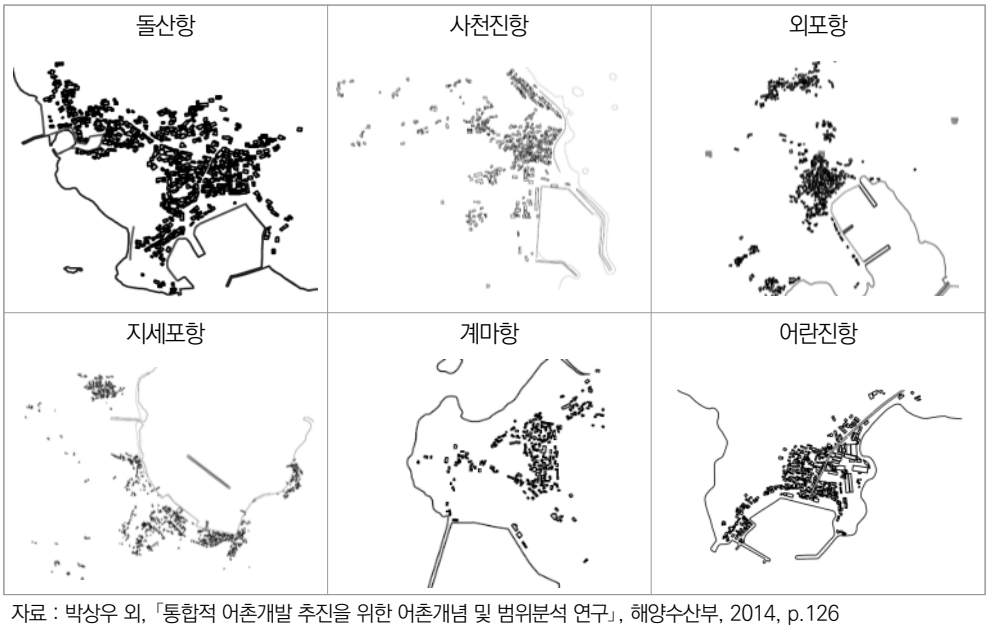
2) 이전(2011), 촌락지리학, ㈜푸른길, p.20

가. 밀집도에 따른 촌락의 형태

(1) 집촌(集村)

집촌은 특정 지역에 가옥이 밀집하여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집촌은 정주환경의 필수요소인 취수·안전의 확보가 가능한 곳이나 경제활동이 용이한 곳에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집촌의 대표적인 유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어촌이다. 어촌은 어업생산의 중심권인 바다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바다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태풍 등 해상기후의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즉 어항의 기능으로 충족될 수 있는 천연적인 지형조건이 입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볼 수 있다.[3] 어촌과 같은 집촌은 경제활동과 주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성원 상호간 사회적 교류를 통한 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2-1〉 어항 배후촌락의 집촌



자료 : 박상우 외,「통합적 어촌개발 추진을 위한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2014, p.126

[3] 이상정, 어촌 촌락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문화연구 6권, 1983 p.165

(2) 산촌(散村)

산촌은 집촌과 반대적 개념으로 가옥이 특정지역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는 취락을 의미한다. 산촌은 대규모의 농장이나 낙농업, 임업과 같이 가족단위 또는 소규모 단위로 촌락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농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간척농지는 산촌의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림 2-2〉 산촌(散村)의 촌락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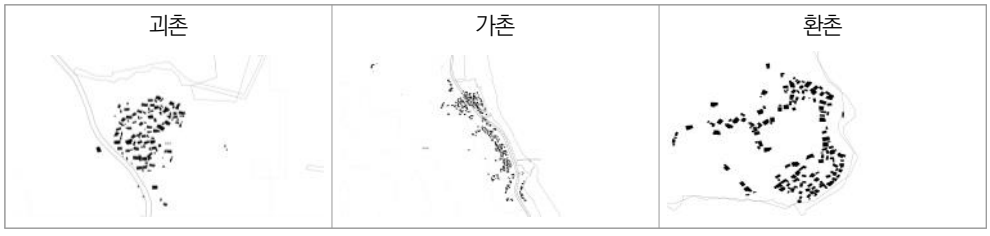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나. 가옥 배열에 따른 촌락의 형태

가옥의 배열에 따른 촌락은 집촌에서 나타나는 입지적·물리적 형태로 크게 괴촌(塊村), 가촌(街村), 환촌(環村)으로 구분된다.

〈그림 2-3〉 어항 배후촌락의 집촌



자료 : 저자 작성

(1) 괴촌(塊村)

괴촌(塊村)은 가옥들이 덩어리진 형상을 이루며 모여 있는 형태의 촌락을 의미하며, 집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형태이다. 괴촌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형태가 불규칙한 형태를 이루며, 전통적으로 농업지역과 어업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2) 가촌(街村)

가촌(街村)은 도로를 따라 가옥이 열상으로 입지해 있는 촌락의 형태를 의미한다. 취락의 배열은 도로의 선형 등 형상에 따라 형성되어 비교적 정형적인 형태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해안의 지형적 구조에 의해 도로변을 따라 가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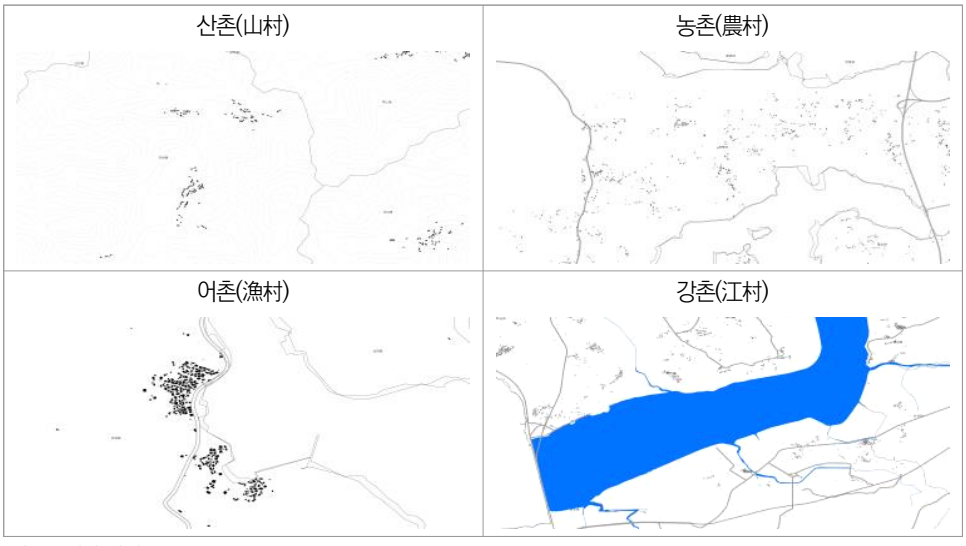
(3) 환촌(環村)

환촌(環村)은 가옥들이 도로, 구조물 등에 의해 동그랗게 밀집된 형태의 촌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환촌의 형태가 거의 없으며, 최근 농어촌지역에 단지계획 수립에 따라 일부 환촌이 나타나고 있다.

다. 입지유형에 따른 촌락의 형태

촌락이 위치한 입지형태에 따라 산촌, 농촌, 어촌, 강촌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이는 산지, 농지, 해면(海面), 내수면(內水面)에 인접하여 취락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2-4〉 입지유형에 따른 촌락의 분포 특성



자료 : 저자 작성

(1) 산촌(山村)

산촌은 「산림기본법」 제3조 제2항에서 산림면적의 비율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산촌은 임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취락을 형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산림면적, 인구밀도, 경지면적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2-1〉 산촌의 정의

구분	세부내용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2조	- 행정구역 면적 대비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일 것 - 인구밀도가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일 것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산림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

산촌은 산림이 우세한 읍·면지역으로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특성을 보이며, 취락이 입지요건(도로, 경사 등)에 따라 모인 집촌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2) 농촌(農村)

산촌은 농업활동[4]이 이루어지는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인 중심의 취락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서 읍·면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촌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지를 중심으로 자연부락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으며, 읍면소재지는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으나 다른 지역은 현저하게 낮으며 분산되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3) 어촌(漁村)

어촌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5]으로 생활하는

4)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2조(농업의 범위)에 따라
1. 농작물재배업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은 제외)
2. 축산업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5) 「수산업 · 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2조(수산업의 범위)에 따라
1. 어업 :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면을 경제활동의 기반으로 하는 어촌은 대부분 어항의 배후지역에 밀집되어 취락이 형성되어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어항, 어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공동의 배타적 이용 권한뿐만 아니라 책임과 역할이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 간 정서적인 연대감이 높은 특성을 나타낸다.

(4) 강촌(江村)

강촌은 어촌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호수 등 내수면의 공간적 범주에 속하고 있으나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의 물 흐름 또는 수면 등의 내수면 공간적인 영역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강촌은 강·하천이나 댐·저수지 등의 수계를 따라 형성되는 공간적 특성으로 2개 이상의 읍·면·동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구밀도는 해면의 어촌에 비해 높지 않고, 어업인은 수면을 따라 산재하여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강촌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6]은 공간적 범주에서 제외하고 어업계가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7]에 한정한 개념이다.

2) 강마을의 개념설정

강마을은 강·하천 및 저수지·댐 등 내수면에서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어업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어업활동의 지속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

2. 어획물운반업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3. 수산물가공업 :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4. 수산물유통업 :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6)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함

7) 공공용 수면이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내수면을 말함

영위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촌락을 의미한다. 강마을의 개념은 내수면 어업활동 중심의 협의적 개념과 협력과 연대를 통해 6차산업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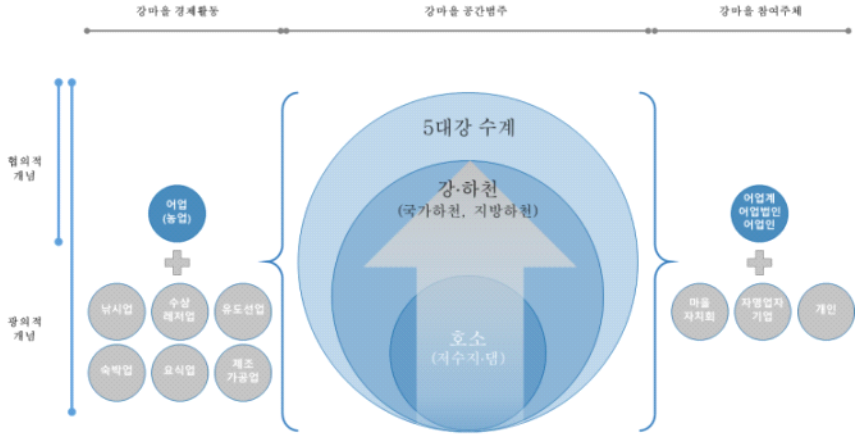
가. 협의적 개념

협의적 개념의 강마을은 강·하천, 저수지·댐 등 5대강 수계와 저수지 등 내수면 어업지역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다수 촌락으로 형성된 지역을 의미한다.

나. 광의적 개념

광의적 개념의 강마을은 내수면 어업계 또는 어촌계가 인근지역의 개인, 기업, 공동체 등과 협력·연대를 도모함으로써 어업활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 유통·가공, 관광·서비스(낚시업, 수상레저업, 유도선업, 숙박업, 요식업) 산업까지 폭 넓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림 2-5〉 강마을의 개념



자료 : 저자 작성

3) 강마을의 특성

농·어촌 지역에서 행정구역, 경제활동 공간과 그 주체를 기반으로 구분하고, 이를 강마을과 비교하면 〈표 2-2〉와 같다. 강마을은 농촌이나 산촌과는 근본적으로 경제활동 공간과 주체가 다르며, 강마을 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가. 행정구역

강마을은 내수면의 특성상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읍·면·동)에 걸쳐서 분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단일 행정구역에 따른 농산어촌과는 차이가 있다.

나. 공유수면 이용

강마을은 내수면어업을 중심으로 어업계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 해면의 어촌공동체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해면은 어촌계라는 어촌공동체에 국가가 공유수면의 이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반면에 내수면은 수면관리자가 수면 이용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내수면어업계는 수면관리자와 점·사용 계약을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표 2-2〉 강마을 특성 및 농어촌 간 비교

구분	농촌	산촌	어촌	강마을
근거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내수면어업법
행정구역	읍·면	읍·면	읍·면·동 (자연부락)	읍·면·동 (2개 이상 지역)
촌락 인구밀도	낮음	매우 낮음 (인구밀도 평균 이하)	높음	낮음
경제활동 및 주체	농지	산지	해면 (공유수면)	내수면 (공유수면)
	농업	임업	어업	내수면어업
	농업인 (작목반/개인)	임업인	어업인 (어촌계)	내수면어업인 (내수면 어업계)
소유	사유재	사유재 공유재	공유재 (임대차 불가)	공유재 (임대계약)
이용관리 주체	개인 작목반	개인	어촌계 지자체	수면관리자

자료: 저자 작성

2. 강마을 범위설정

1) 공간적 영역범위

강마을의 공간적 영역범위는 내수면 수계를 구성하는 강·하천(5대강 수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 지방하천 2급). 댐·저수지로 하며, 다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척지는 어업적 개발사례가 현재까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강마을의 공간적 영역범위는 전국 16개 시·도, 172개 시·군·구, 2,911개 읍·면·동(920개 읍면, 1,991개 동)의 지역에 해당한다. 강마을의 공간적 영역은 내수면의 수계를 형성하는 강·하천과 댐·저수지로 구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5대강 수계

강마을은 백두대간과 9개의 정맥에 따라 형성된 지형구조에 따라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 크게 5대 수계가 형성된다. 「5대강[8]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각 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은 각 수계별 수질 보전을 위해 500~1,0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9]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5대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

8) 본 연구에서는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으로 각각 구별된 법률을 5대강으로 통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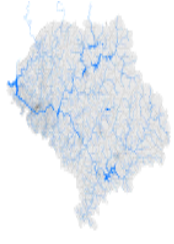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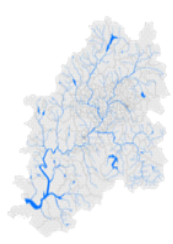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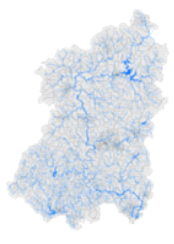
9) 특별대책지역 :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 : 하천 및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수계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 :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표 2-3〉 5대강 수계별 수변구역

구분		세부내용
한강수계	적용범위	-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
	수변구역	- 팔당호 -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 -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
금강수계	적용범위	- 금강·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와 금강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금강 본류의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지역 - 특별대책지역 이외의 금강 본류 해당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
영산강·섬진강 수계	적용범위	- 영산강·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와 해당 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
	수변구역	-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낙동강 수계	적용범위	- 낙동강 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
	수변구역	-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각 수계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저자가 재정리 함

〈그림 2-6〉 하천·강의 영역적 범위

구분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5대강 수계					

자료 : 저자 작성

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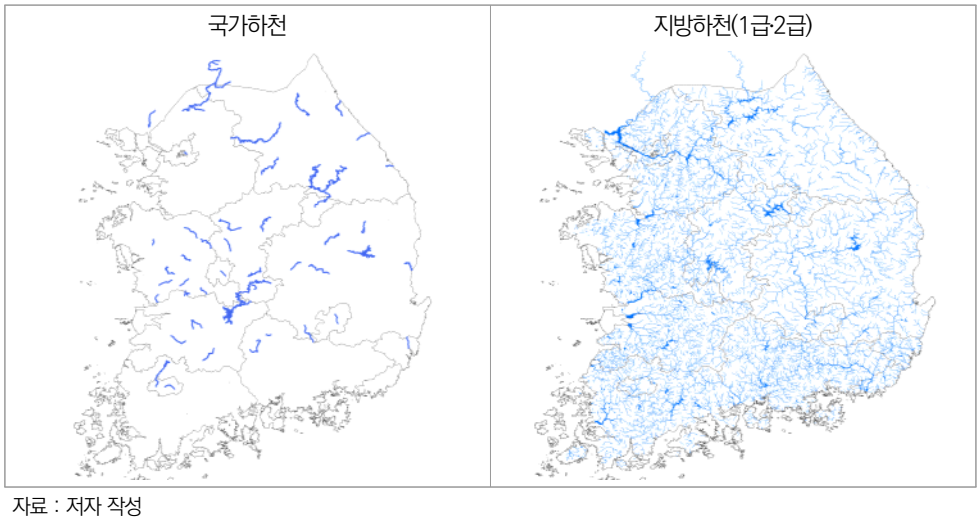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반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되 국토보전 및 국민경제 등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천으로 지방하천 1급·2급으로 세분하고 있다.

〈표 2-4〉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지정 기준

구분	세부내용
국가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 유역면적 합계가 50~200㎢ 미만인 하천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하천 가. 인구 2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범람구역 안의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지역을 지나는 하천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다.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류하는 하천
지방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하천법」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그림 2-7〉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영역적 범위



자료 : 저자 작성

다. 댐·저수지

호소(湖沼)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4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자연 또는 댐·보(洑), 둑 등 인공적인 구조물을 쌓아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것으로 〈표 2-5〉와 같다. 일반적으로 댐·저수지는 강·하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 상수원 또는 산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하천과 수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약 67.5%의 내수면어업계가 댐·저수지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표 2-5〉 호소의 지정 기준

구분	세부내용
호소	-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물환경보전법」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댐과 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용수(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상수원 보호, 홍수조절 등의 용수(用水)가 본래의 목적이며, 수면관리자가 용수 이외에 내수면어업, 낚시업, 수상레저, 유·도선업 등 목적외사용 승인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다. 저수지 및 댐의 목적외사용은 내수면 어업계 및 어촌계, 개인, 지자체에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수면의 임대차 계약 또는 용수사용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 댐

댐은 상수원 보호, 홍수조절, 농업용수 등을 목적으로 총 85개소로 〈표 2-6〉과 같다. 수계별로 댐은 한강 22개소, 금강 23개소, 영산강 9개소, 섬진강 10개소, 낙동강 21개소로 나타났다.

관할기관별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42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수자원공사 34개소, 한국수력원자력 9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2-6〉 댐의 지정 현황

구분	댐명	관할기관
한강수계 (22)	토교, 금광, 고삼, 기흥, 이동, 아산호, 남양, 오봉	한국농어촌공사
	광동, 충주, 충주조정지, 횡성, 평화의댐, 소양강, 달방	한국수자원공사
	도암, 괴산, 화천, 춘천, 의암, 청평, 팔당	한국수력원자력
금강수계 (23)	맹동, 백곡, 미호, 탑정, 동부, 금강, 예당, 삽교호, 간월, 부담, 청천, 경천, 대아, 구이, 옥구, 동상, 청호, 새만금	한국농어촌공사
	용담, 대청, 대청조정지, 보령, 부안	한국수자원공사
영산강 수계(9)	광주, 담양, 장성, 나주, 영산호, 영암, 금호, 영암·금호만	한국농어촌공사
	탐진강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수계(10)	섬진, 동화, 동화조정지, 하동	한국농어촌공사
	섬진강, 주암, 주암조정지, 수어, 주암역조정지	한국수자원공사
	보성강	한국수력원자력
낙동강 수계(21)	경천, 성주, 금천, 덕동	한국농어촌공사
	안동, 안동조정지, 임하, 임하조정지, 영천, 합천, 남강, 합천조정지, 밀양, 운문, 안계, 사연, 대암, 선암, 연초, 구천	한국수자원공사
	삼량진양수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ww.wamis.go.kr)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함
(http://www.wamis.go.kr/wkd/mn_dammain.aspx, 검색일 : 2017.05.16.)

(2) 저수지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시설로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약 14,133개소가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394개소로 〈표 2-7〉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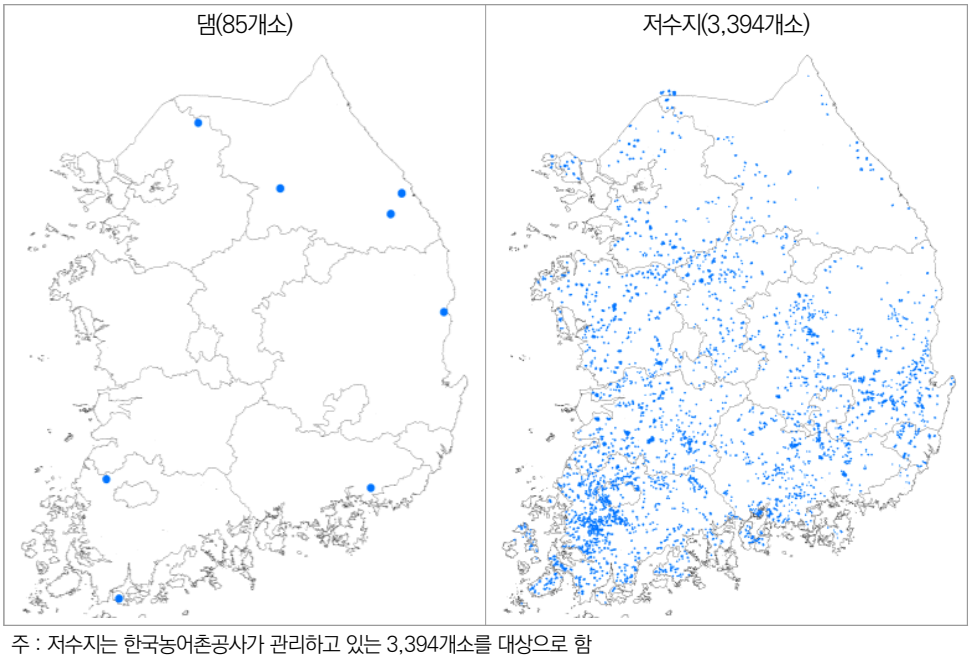
저수지는 전남지역이 1,046개소로 가장 많은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 671개소, 경남 653개소, 전북 417개소, 충남 229개소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저수지의 저수율 관리는 농업용수, 공업용수, 생활용수, 환경용수 등과 같이 물이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내수면 어업에 우선한다.

〈표 2-7〉 저수지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저수지수	수혜면적(㏊)	저수량(천톤)		
			총저수량	유효저수량	현재저수량
전국	3,394	374,849	2,912,866	2,788,810	1,888,778
경기	112	27,192	179,640	166,063	129,232
강원	79	13,410	122,893	112,439	100,341
충북	184	26,178	197,072	189,265	170,814
충남	229	51,656	330,948	321,387	263,365
전북	417	89,094	659,156	650,102	412,675
전남	1,046	81,904	688,918	668,076	365,311
경북	671	48,041	460,376	419,101	290,918
경남	653	37,374	281,727	261,392	155,241
제주	3	0	1,135	985	879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알리미 서비스(저수율 현황)
(https://www.alimi.or.kr/dataview/a/waterStatus/selectYsNationalAggregate.do, 검색일 : 2017.7.18.)

〈그림 2-8〉 댐과 저수지의 영역적 범위



주 :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394개소를 대상으로 함
자료 : 저자 작성

2) 활동주체 영역범위

강마을의 활동주체는 개인, 어업법인, 내수면어업계, 지자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된 어업활동은 어업법인과 내수면어업계로 나타났으며, 낚시업, 수상레저업, 제조·가공업 등은 개인단위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개인

강마을은 개인 차원의 어업인 또는 비어업인의 낚시업, 수상레저업을 위해 수면 목적외사용 임차를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어업법인은 어업, 낚시업, 수상레저업 등 수면을 활용한 사업 주체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표 2-8〉 어업법인 설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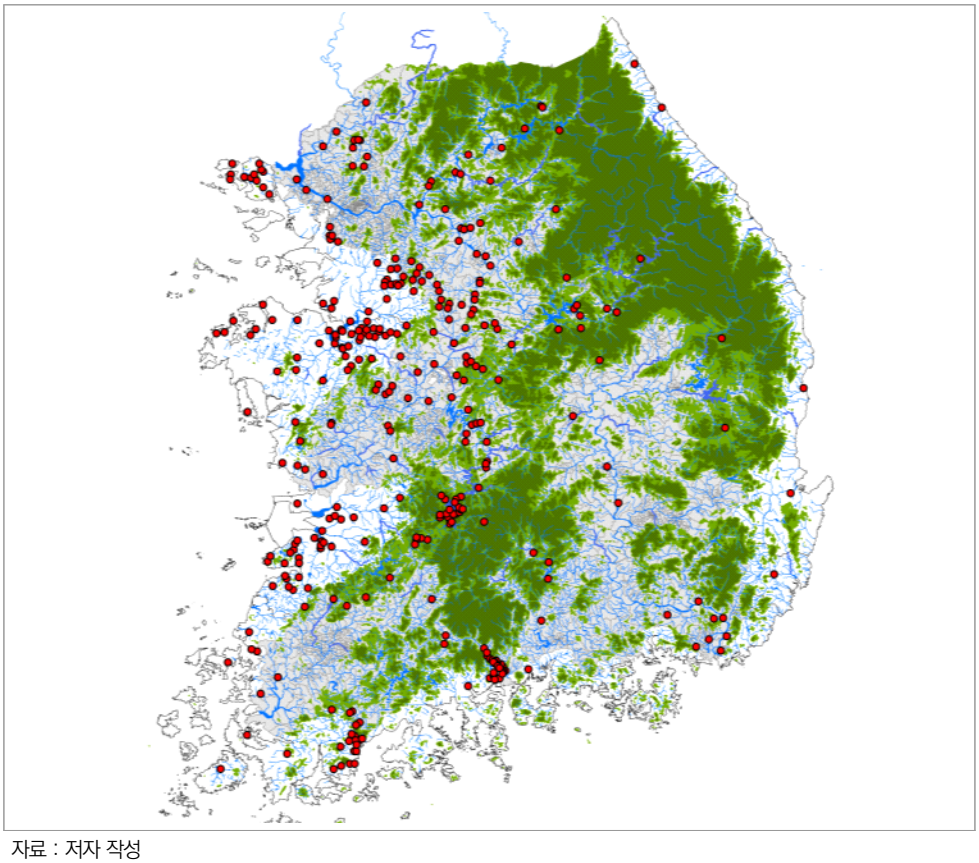
구분	세부내용
영어조합법인	-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어업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하여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영어조합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결권은 행사하지 못한다.
어업회사법인	-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어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로 하되, 어업인이나 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저자가 재정리함

다. 내수면어업계

내수면어업계는 「내수면어업법」 제15조[10] 규정에 따라 전국에 총 338개소, 8,328명으로 조사되었고, 어업계의 평균 계원수는 24.6명으로 나타났다. 내수면어업계는 입지형태로 볼 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대부분 서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 충북, 충남 일원 등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분포에 비해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를 따라서는 그 분포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내수면어업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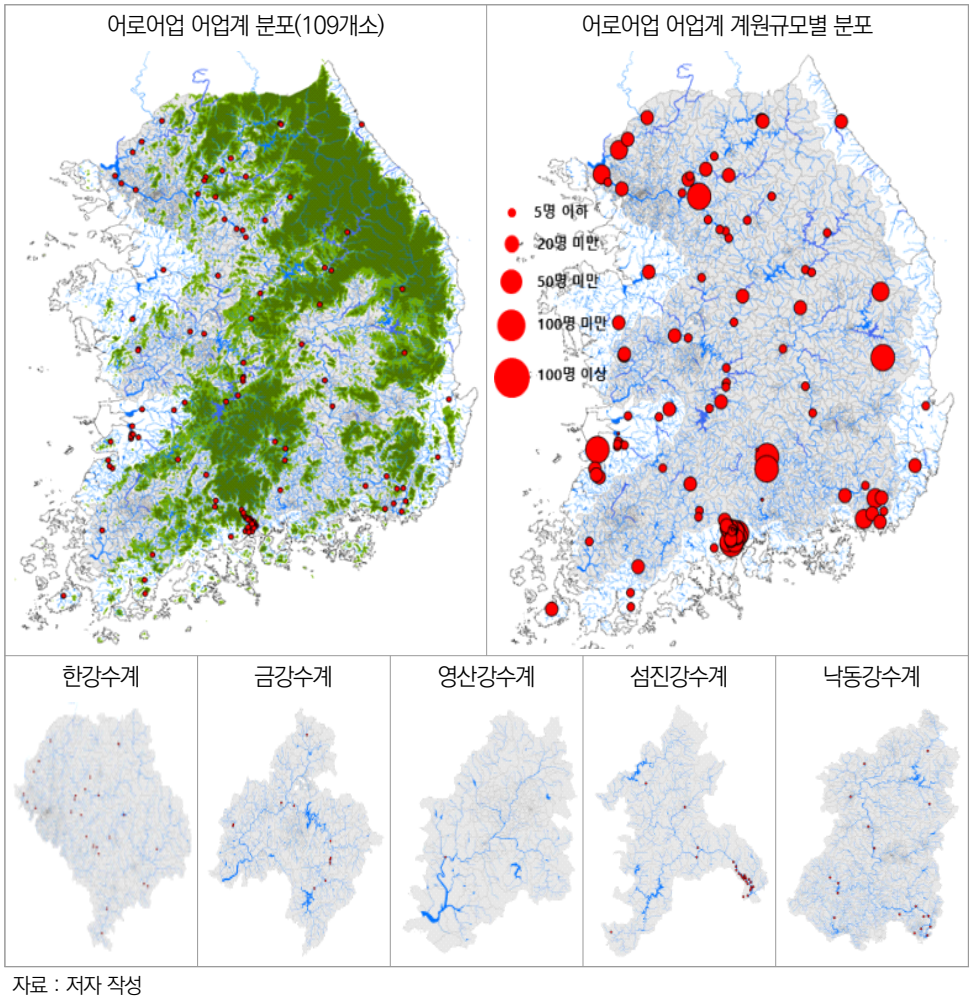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10) 제15조 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내수면어업인은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내수면어업계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조직은 어업을 하려는 내수면이 위치한 행정구역별로 조직하되 그 계원 자격 및 계원수는 그 내수면에 잇닿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5명 이상으로 한다.

(1) 어로어업 어업계

어로어업 어업계는 총 109개소로 평균 어업계원수는 36.6명으로 〈그림 2-10〉과 같이 강·하천의 수계를 따라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어로어업 내수면어업계는 5대강 수계를 따라 82개소, 수계 이외의 지역에 27개소로 나타났다. 수계별로는 한강수계와 섬진강수계에서 각각 26개소로 나타났으며, 낙동강수계 18개소, 금강수계 11개소, 영산강수계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어로어업 어업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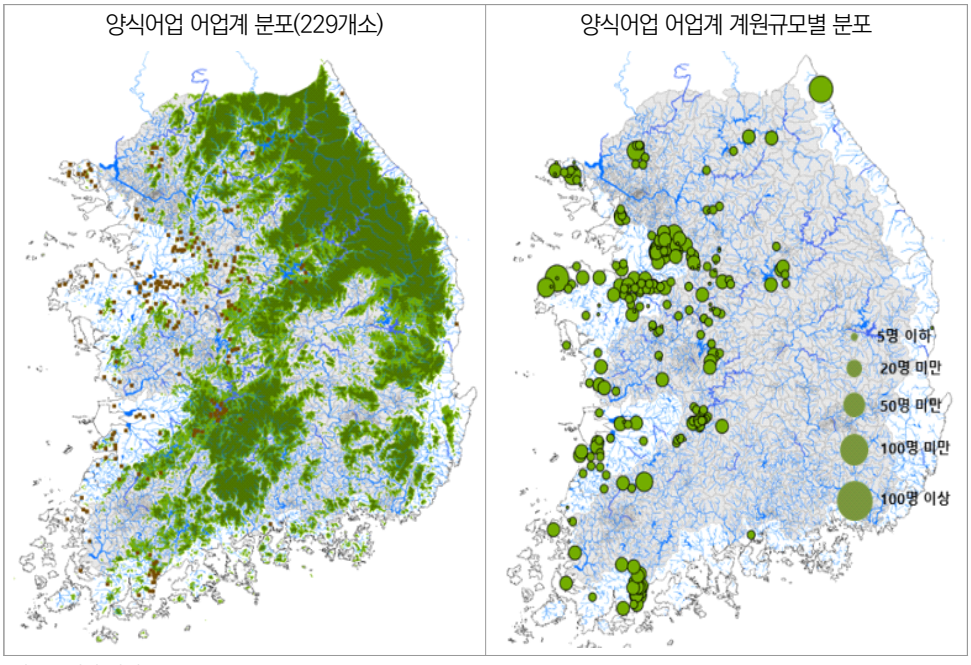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양식어업 어업계

양식어업 어업계는 총 229개소로 대부분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일원에 173개소(75.9%)가 밀집되어 있으며, 평균 어업계원수는 18.9명으로 어로어업의 절반 수준으로 〈그림 2-11〉과 같다. 특히 양식어업 어업계의 절반 정도인 110개소(48.2%)가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경기, 충남이 70개소(63.6%)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입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반면, 양식어업 어업계의 40개소 정도가 뱀장어, 쏘가리, 자라, 송어, 철갑상어 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양식어업 어업계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3) 경제활동 영역범위

강마을 경제활동 영역범위는 어업, 농업, 제조·가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로 어업과 농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농업활동 이외에 서비스업은 낚시업과 수상레저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요식업과 숙박업(농어촌민박)이 활성화될 지역은 지역 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가. 어업

내수면어업은 크게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으로 대별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허가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면관리자는 공공용 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인 지배를 하는 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의미한다.

어업활동은 낚시업을 제외하면 어로어업이 109개소로 내수면어업계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양식어업은 40개소로 나타나 어로어업의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위축되어 어업계가 급격히 이완, 해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금강수계도 중·하류지역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수면어업계가 대부분 소멸되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상류지역에서 어업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1) 면허어업

면허어업은「내수면어업법」제6조에 따라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면허어업은 양식어업[11], 정치망어업[12], 공동어업[13]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

1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1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3) 공동어업 :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면을 전용(專用)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면허어업은 2015년 말 기준 내수면어업의 면허·허가·신고 총 9,386건 중 421건(4.5%)으로 나타났다. 면허어업 가운데 양식어업의 품종은 장어류, 동자개, 황복, 자라, 송어, 미꾸라지류, 쏘가리, 다슬기류, 메기, 철갑상어, 관상어종 등으로 나타났다.

(2) 허가어업

허가어업은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가어업은 저수지·댐, 강·하천 등 전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업종은 자망어업[14], 종묘채포어업[15], 연승어업[16], 패류채취어업[17], 낭장망어업[18], 각망어업[19] 등 어종과 포획방법에 따라 다양한 어구어법이 사용되고 있다.

(3) 신고어업

신고어업은 「내수면어업법」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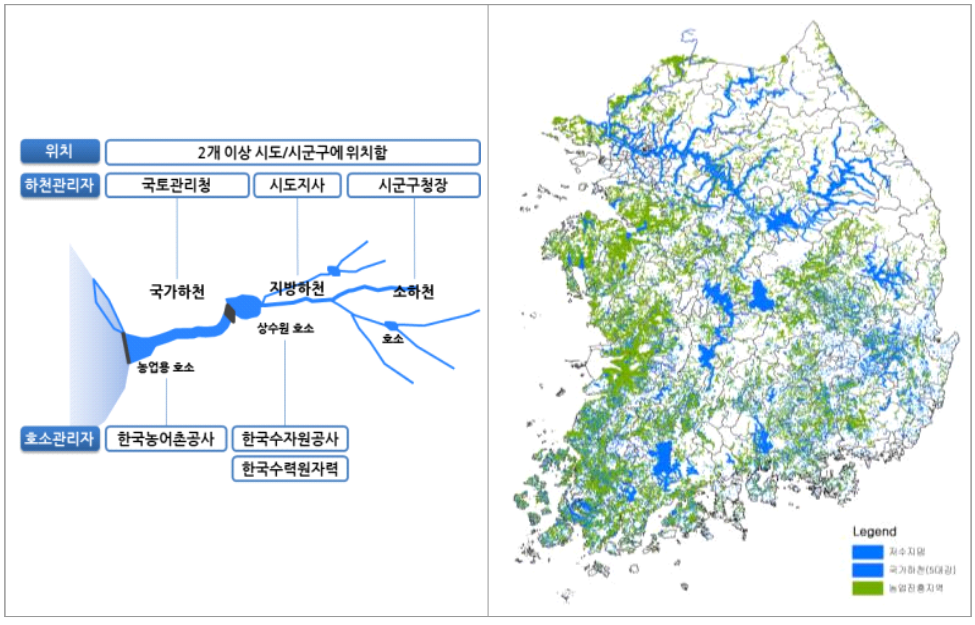
나. 농업

강마을 일원은 강·하천의 수계를 따라 14,000여 개의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농업활동이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그림 2-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강·하천, 저수지·댐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는 내수면어업계 등 지역공동체가 분포하는 강마을 일원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서측에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강마을은 어업과 농업이

14)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5) 종묘채포어업 :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채취하는 어업
16) 연승어업 :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7) 패류채취어업 : 형망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18)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19)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양립하는 반농반어의 촌락형 지역이다.

〈그림 2-12〉 강마을 일원의 농업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다. 관광·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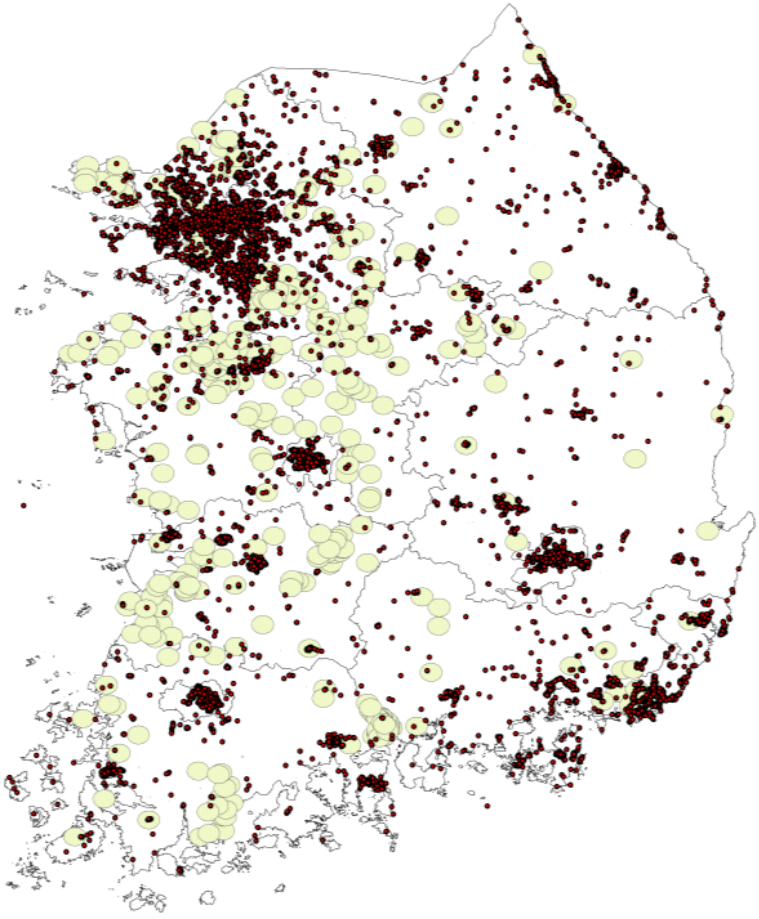
강·하천, 저수지·댐 등 접근성과 주변 자연경관이 수려한 강마을은 관광·서비스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지역은 식당과 농어촌민박(펜션업) 등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업활동과 연계한 사업의 다각화와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인프라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서비스업에 대한 공공데이터를 통해 요식업, 농어촌민박의 분포 등을 살펴보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목적 외 사용실태를 통해 낚시업, 수상레저업, 유도선업 현황도 공간통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요식업

강마을은 내수면의 수려한 자연여건과 교통망 여건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요식업이 농·산·어촌과 비교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수면어업계 338개소를 반경 5㎞ 구간에 대한 요식업 분포는 〈그림 2-13〉과 같이 나타났다. 요식업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에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원에 있는 강마을에는 식당, 카페 등이 연계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3〉 강마을 일원의 요식업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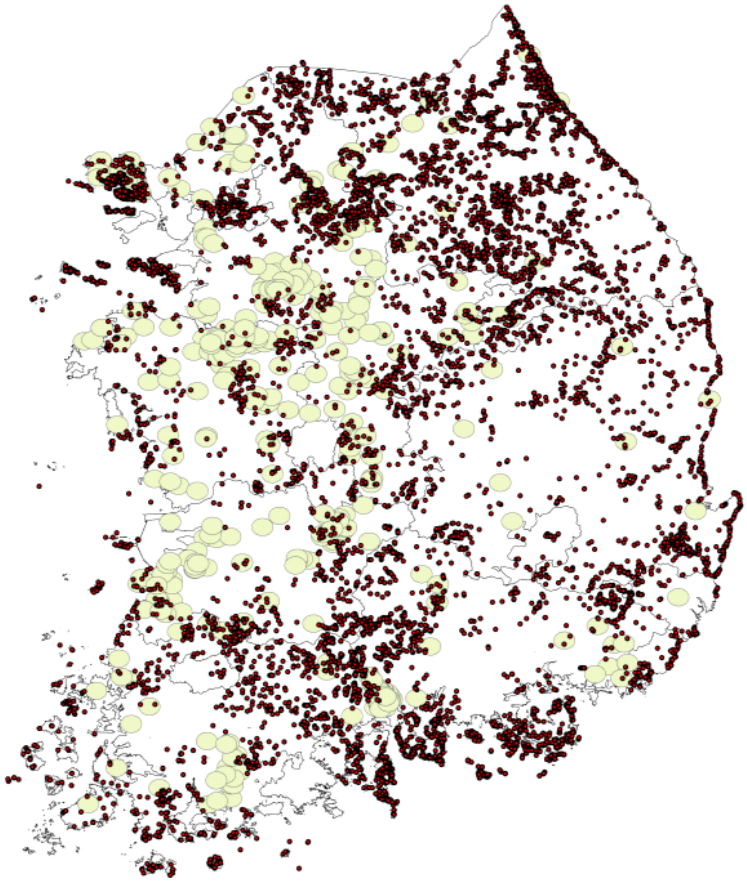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숙박업(농어촌민박)

강마을 일원은 강과 하천의 수려한 자연경관, 먹거리, 낚시관광, 수상레저 등 입지적인 특성상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이 약 24,000개소 가량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어업계 일원에 농어촌민박 분포를 분석해 보면 〈그림 2-14〉와 같이 나타났다. 농어촌민박 13,000여 개소는 해수욕장 등 연안지역에 분포하며, 나머지 11,000개는 내륙의 관광지와 내수면 일원에 지역적으로 밀집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14〉 강마을 일원의 농어촌민박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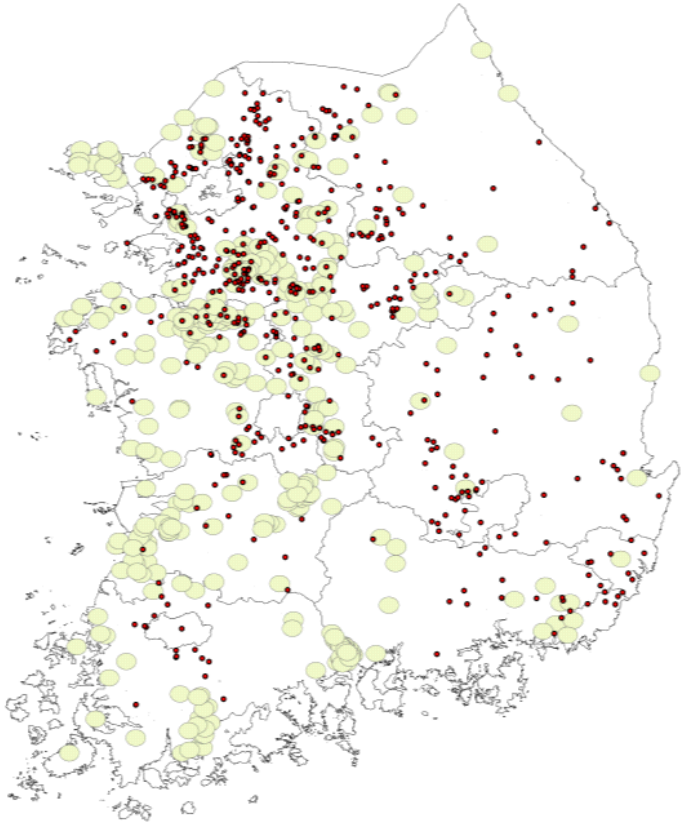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⑶ 낚시업

강마을은 강과 하천, 댐·저수지 등의 내수면에 걸쳐 낚시업이 〈그림 2-15〉와 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터는 553개소로 이 가운데 수도권의 폭 넓은 수요층과 빠른 접근성으로 인해 경기, 충남지역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도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의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5〉 강마을 일원의 낚시터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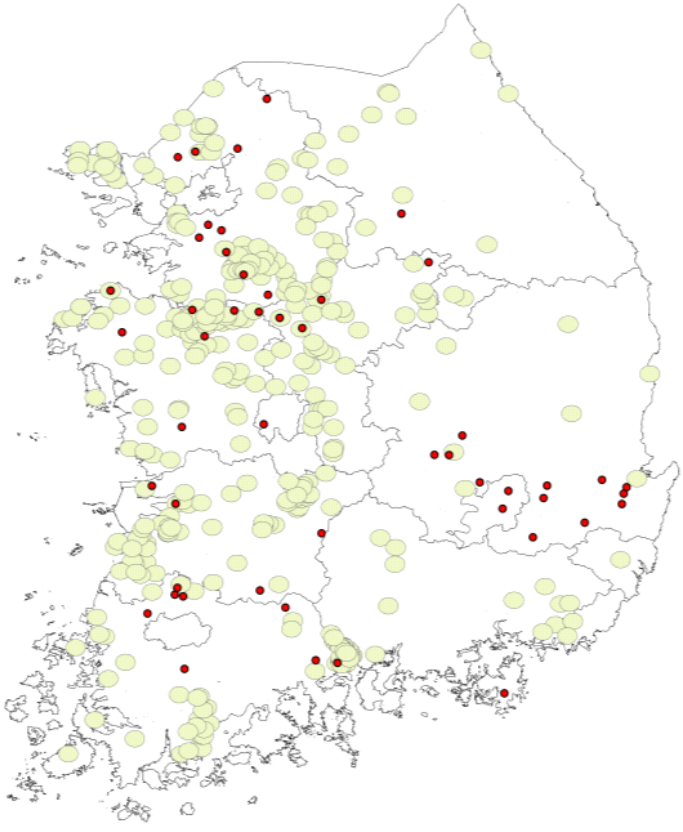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4) 수상레저 및 유선업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라 수산레저활동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상레저업과 강과 하천, 댐·저수지 등의 내수면에 걸쳐 유선업이 개인, 어업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도선업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유선사업은 개인, 어업계가 주로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와 유선업은 낚시업과 유사한 입지적 특성으로 경기, 충남일원과 대구, 광주의 주변부에 입지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2-16〉 강마을 일원의 수상레저 및 유선업 분포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제2절 내수면 관련 법제도 검토

1. 관련 법제도 검토

강마을은 내수면의 다양한 공간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법령과 지침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강마을 관련 법령은 「하천법」('61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99년), 「농어촌정비법」('94년), 「5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02년), 「수도법」('61년), 「물환경보전법」('90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90년), 「수산자원관리법」('09년), 「소하천정비법」('95년), 「수상레저안전법」('99년), 「유선 및 도선사업법」('80년), 「내수면어업법」('75년) 등 다양한 법령과 지침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이들 법령과 지침은 〈그림 2-17〉, 〈표 2-9〉과 같이 수면과 수변부로 각각 구분하고, ⅰ)공간범위, ⅱ)환경보전, ⅲ)안전재해, ⅳ)관광 및 지역개발, ⅴ)수산업적 이용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수면과 수변부의 공간범위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하천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이 있고, 수면부에만 적용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둘째, 환경보전과 관련 있는 법률은 수면와 수변부 동시에 적용되는 「5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수면에만 적용되는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등이 있다.

셋째, 수면 및 수변부에 같이 적용되는 안전재해와 관련된 법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고, 「소하천정비법」은 수변부에만 적용되며 「수상레저 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수면에 적용된다.

넷째, 관광 및 지역개발 관점에서 수면 관련 법률은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있으며, 수변부를 관리하는 법률은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면의 수산업적 이용관리를 위한 법률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이 있고, 수변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그림 2-17〉 강마을 관련법 체계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법률을 조사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내용임

〈표 2-9〉 강마을 관련 소관부처별 법령 현황

법률		주요내용(목적)	소관부처
공간범위	하천법	하천(하천구역과 하천부설물)의 관리	국토교통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관리, 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용	국토교통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를 활용한 식량확보 및 관리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보전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대강 수자원과 오염원관리 및 수질개선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환경부
	수도법	수도의 합리적 설치·관리	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	환경부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규정	해양수산부
안전재해예방	소하천정비법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	국민안전처
	저수지·댐의 안전 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	국민안전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국민안전처
지역개발/관광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	국민안전처
	어촌어항법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해양수산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해양수산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주거환경 및 노후·불량 주택을 계획적·효율적으로 개선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해양수산부
수산	내수면어업법	내수면 어업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 규정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체계의 효율화와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정	해양수산부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의 관련법을 조사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내용임

2. 강마을 관련법 검토

1) 관련법 주요내용

강마을과 관련된 법은 앞의 〈표 2-9〉과 같이 그 대상 및 성격에 따라 5개 이상의 부처로 행정기능이 분담되어 수행되고 있다. 관련 법령 가운데 강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내용과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강마을 활성화 관련법의 주요내용 및 제약사항 검토

구분	주요내용	행위제한 및 제약내용
하천법	하천의 구분 및 지정, 하천관리청, 하천구역의 결정,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관리, 하천의 점용허가 등	보전지구 등의 관리,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의 사용금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다목적댐 건설과 관리, 댐관리청과 수탁관리자. 댐 관리를 위한 사업, 댐 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및 재원과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등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낚시행위 금지하는 지역 지정, 댐건설 시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사용
농어촌 정비법	농어촌정비를 위한 조사, 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 및 오염방지·수질개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관광휴양자원 개발 등	저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등 제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농축수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조성, 준공검사 전 수산물 시범양식 승인 등	행위 등에 제한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5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주민지원사업 실시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등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물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 및 수계 영향권 물환경관리와 호소, 수생태계 조사 등의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 등	양식면허어업의 제한, 호소안의 쓰레기 수거 처리, 중점관리저수지지정 및 수질개선 등
수도법 시행령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 등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행위허가기준·신고행위, 공장설립 제한된 지역의 범위 등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기본규정, 수사자원 회복 및 조성,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포획·채취 등 제한, 어선어구어법 등 제한, 보호수면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행위제한 및 제약내용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등의 점용, 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저수지·댐 안전관리 기준·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사항,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관리 등	저수지·댐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토지의 정착한 이에 관한 소유권, 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사용
수상레저안전법	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의 지정 등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수상레저교육사업의 신고, 안전점검 등	기상·수상상태, 수상사고, 수질오염, 장애물 발생 등으로 인한 영업의 제한
어촌어항법	어촌종합개발 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및 목적 외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지속적인 오염원의 유입, 그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재해·질환예방, 취약계층·아동·여성의 복지증지, 고령 농어업인 생활 안전 지원, 농어촌산업육성, 기초생활여건 개선 및 경관보전, 문화·예술의 진흥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생태·환경의 보전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유해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 낚시관련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	-
내수면어업법	내수면어업에 관한 기본사항, 내수면의 정의 규정, 기타 내수면어업에 관한사항, 유어질서, 어도관리, 내수면 실태조사 및 현황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 규정, 수산업의 육성, 기르는 어업의 육성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	어구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보호구역,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어업권 행사 제한, 어획물운반업의 제한 등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 수산물 유통기반의 조성, 수산물 품질 및 위생관리, 불법수산물의 유통금지 등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행위제한 및 제약내용
댐관리규정 (한국수자원공사)	댐 및 하굿둑 관리의 기본사항 규정, 댐 및 하굿둑의 용도, 저수지의 운영, 갑문 및 어도의 조작, 수질 및 생태환경 관리와 생태환경 변화조사, 오염원 관리 및 대응, 수질개선사업 등 시행, 댐·저수구역내의 토지 및 수면관리 사항	불법행위, 수질오염 유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 (농어촌공사)	용수의 목적외 사용 절차·승인 및 사용자 의무사항, 수질보호를 위한 수질 검사·유지·관리 및 환경정화	수질악화 우려 등에 따른 사용제한,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개 지자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어업의 면허 및 허가,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농촌 및 내수면어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강화,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관련법을 조사하여 저자가 재구성한 내용임

2) 강마을 거버넌스

강마을 및 주변수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표 2-1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 중앙부처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다.

내수면어업, 자원조성, 어촌개발 등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수질환경보전, 먹는 물 관리, 5대강 수계의 물 관리는 환경부, 하천의 이용 및 댐건설은 국토교통부, 농업용수 및 저수지 개발, 간척농지 개발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상레저활동의 관리 및 유선·도선사업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저수지·댐의 안전은 행정안전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

이와 같은 관리행정은 기능에 따라 소관사항이 다르지만, 중앙부처가 전국적인 계획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가 단기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표 2-11〉 강마을 활성화 관련 행정기능 분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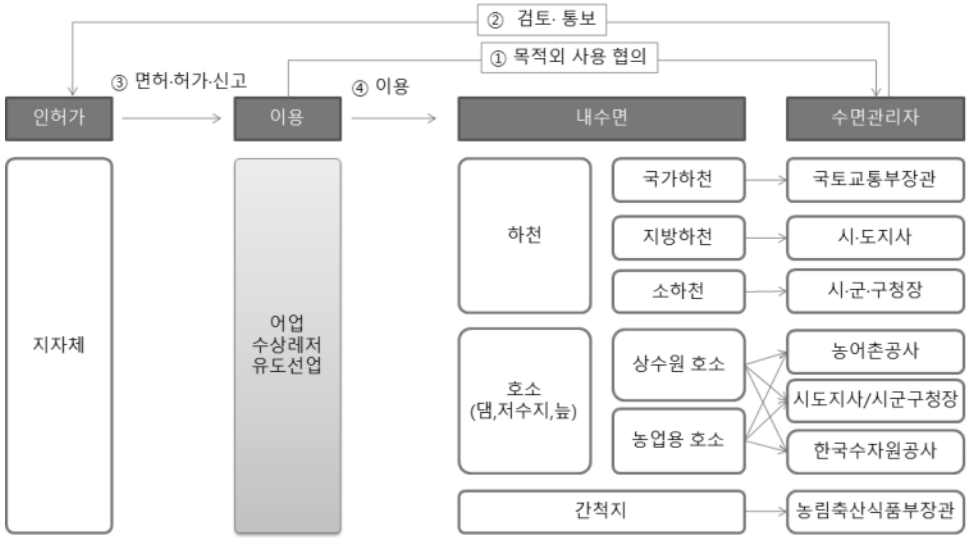
소관부처	행정기능	담담부서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하천관리	수자원정책국 (하천계획과) (하천운영과)	수자원 장기계획 수립, 댐건설계획 및 광역상수도 계획 등 수립·시행, 수해방지대책 및 내륙주운 관련 사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수자원정책국 (수자원개발과)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촌정비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사항 규정 농업용수 개발 등 저수지 조성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	식량정책관 (간척지농업과)	간척지의 효율적 이용
환경부	5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관리,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먹는물 관리 상하수도관리	물환경정책국 (수도정책과)	먹는 물에 대한 합리적인 수질관리 상하수도 합리적인 설치·관리 등
	물환경보전 및 수질·수생태계 보전	물환경정책국 (물환경 정책과)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관리 깨끗한 하천·호소의 보전·이용
행정안전부	소하천정비	예방안전정책관 (재난경감과)	소하천 안전재해예방, 댐·저수지 안전관리
	저수지·댐의 안전 관리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관리	구조안전국 (해양안전과)	조종면허 및 수상레저기구 등록 검사 수상레저활동 및 안전관리 수상레저사업자 관리감독
	유선 및 도선관리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해양수산부	내수면어업	어촌양식정책국 (양식산업과)	내수면어업 관련 제도의 조정·운영 및 자원의 관리 어장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내수면에 있어서 수산시험, 연구사업 등
	수산자원관리 및 낚시관리	수산정책국 (수산자원정책과)	수산자원관리 정책 수립 낚시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어촌개발	어촌양식정책국 (어촌어항과)	어촌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 등에 관한 사항 어촌종합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
	수산물 유통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수산물 유통 및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자료 : 각 부처 홈페이지의 조직현황을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한 내용임(검색일 : 2017.5.30.)

3) 내수면 이용관련 법·제도 검토

어업계 또는 어업인은 강마을의 내수면 이용을 위해 〈그림 2-18〉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어업인이 하천 또는 호소에서 어업·수상레저·유도선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수면관리자와 수면이용에 관한 협의절차가 필요하다. 내수면은 수계, 하천, 강, 저수지, 호수 등에 개별적으로 수면관리자가 존재하고, 어업인은 내수면 수면에서 어업활동 및 수상레저, 유도선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면관리자에게 수면을 임대하고 있다. 수면관리자와 협의 후에, 어업인은 지자체에 어업등의 면허·신고·허가 등을 신청 후에 할당받은 수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림 2-18〉 내수면 이용관련 법·제도 검토



자료 : 저자 작성

제3절 강마을 현황 및 유형별 실태분석

1. 강마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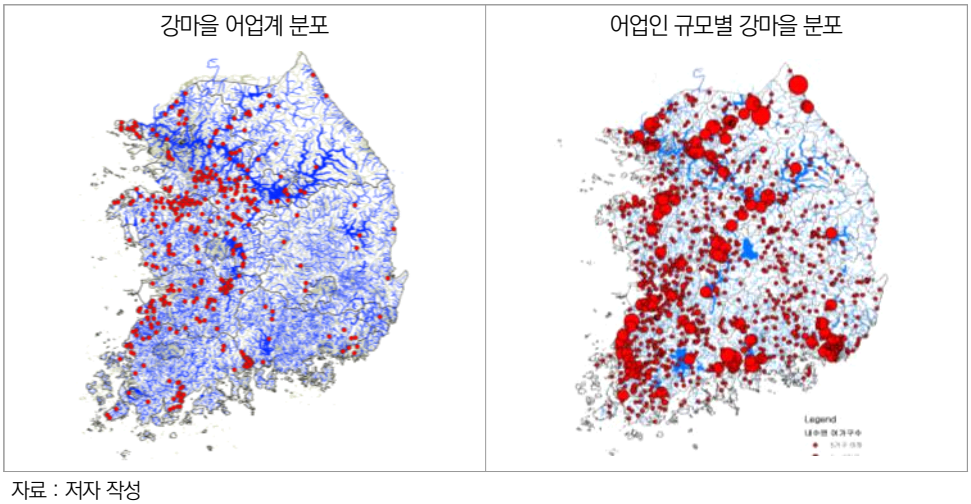
1) 어업계·어촌계 현황

가. 규모별 특성

강마을의 어업계는 전국 338개소로 87개의 시·군·구에 나누어져 분포하고 있다. 어업계당 평균 어업인수는 24명이지만, 경상남도지역의 평균 어업인수는 84명으로 어업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부산과 전라남도지역의 평균어업인 수는 30명 이상으로 경남지역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북도의 어업계당 평균 어업인수는 12명으로 소규모의 어업계가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수면 어업인 분포로 시도별 규모를 보면, 전라남도지역과 경기도지역이 내수면 규모가 크고,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9〉 입지유형별 강마을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표 2-12〉 시도별 어업계 분포 및 어업인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시군구	어업계 (어촌계)	어업계원수	어업계 평균 어업인수
합계	87	338	8,213	24
부산광역시	3	4	110	28
울산광역시	1	1	28	28
인천광역시	1	12	177	15
세종특별자치시	1	2	32	16
강원도	9	13	320	25
경기도	15	61	1620	27
경상남도	8	15	1255	84
경상북도	8	8	120	15
전라남도	10	53	1808	34
전라북도	10	62	983	16
충청남도	12	62	1212	20
충청북도	9	45	548	12

자료 :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분류함

어업계별 계원수 규모를 살펴보면, 10명 미만의 어업계는 저수지에서 양식 또는 낚시업을 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30명 미만의 어업계는 하천이나 호소에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계의 59.8%가 20명 미만의 어업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명 규모의 어업계는 30.5%로 50명 미만의 어업계가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명 이상 규모의 어업계는 11개소로 나타났고, 주로 규모가 큰 하천이나 댐에서 어로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2-13〉 규모별 어업계 분포 및 어업인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어로어업			양식/낚시업	
		하천	호소	복합 (하천,호소)	하천	호소
합계	338	97	97	15	1	128
10명 미만	103	18	22	2	-	61
20명 미만	99	29	32	6	-	32
30명 미만	73	22	26	3	1	21
40명 미만	23	7	11	1	-	4
50명 미만	7	3	-	1	-	3
60명 미만	10	7	-	-	-	3
70명 미만	5	4	1	-	-	-
80명 미만	6	4	1	-	-	1
90명 미만	1	-	-	-	-	1
100명 미만	1	-	-	-	-	1
100명 이상	10	3	4	2	-	1

자료 :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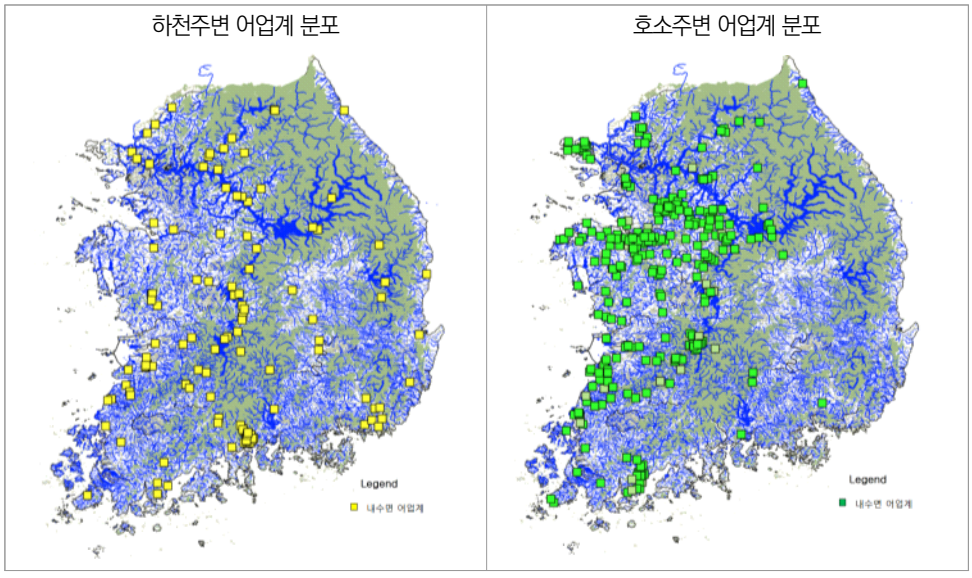
나. 입지유형별 특성

강마을의 입지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하천에 입지하는 강마을은 98개소이고, 호소에 입지하는 강마을은 225개소, 하천과 호소에 입지하는 복합형 강마을은 15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하천과 호소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계는 15개소로 주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마을의 입지유형 특징을 살펴보면, 하천에 입지하는 강마을은 5대강 수계를 중심으로 산과 골짜기에 발달한 계곡형태의 지대에 있고, 호소에 입지하는 강마을은 평야가 발달한 서해안에 주로 입지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입지유형을 시도별로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수도권과 근접하여 호소지역에 양식 및 낚시업이 발달하였고, 강원도지역은 양식 및 낚시업보다 하천과 호소에서 어로어업의 어업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20〉 입지유형별 강마을 어업계 분포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분류함

〈표 2-14〉 시도별 어업계 분포 및 입지유형별 어업인 현황

(단위 : 개소)

시도	합계	어로어업			양식 또는 낚시업	
		하천	호소	복합 (하천,호소)	하천	호소
합계	338	91	104	15	1	127
부산광역시	4	4	-	-	-	-
울산광역시	1	1	-	-	-	-
인천광역시	12	0	-	-	-	12
세종특별자치시	2	2	-	-	-	-
강원도	13	7	6	-	-	-
경기도	61	15	4	3	-	39
경상남도	15	11	4	-	-	-
경상북도	8	6	1	-	1	-
전라남도	53	20	23	2	-	8
전라북도	62	6	36	6	-	5
충청남도	62	2	22	1	-	37
충청북도	45	9	8	3	-	25

자료 : 해양수산부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분류함

2) 강마을 입지유형별 인구분포현황

강마을의 입지유형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만 명 미만 인구의 면지역에 있는 강마을은 319개소로 전체 강마을의 94.1%이고, 인구 규모가 큰 5만 명이상 읍지역에 존재하는 어업계는 10개소로 나타났다.

1천 명 미만의 면지역의 어업계는 주로 호소에서 어로어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 명 미만의 면에 있는 어업계는 하천에서 어로어업을, 호소에서는 양식 및 낚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만 명이상 규모에 있는 어업계는 주로 호소에서 양식과 낚시업을 하고 있다.

〈표 2-15〉 입지유형별 인구분포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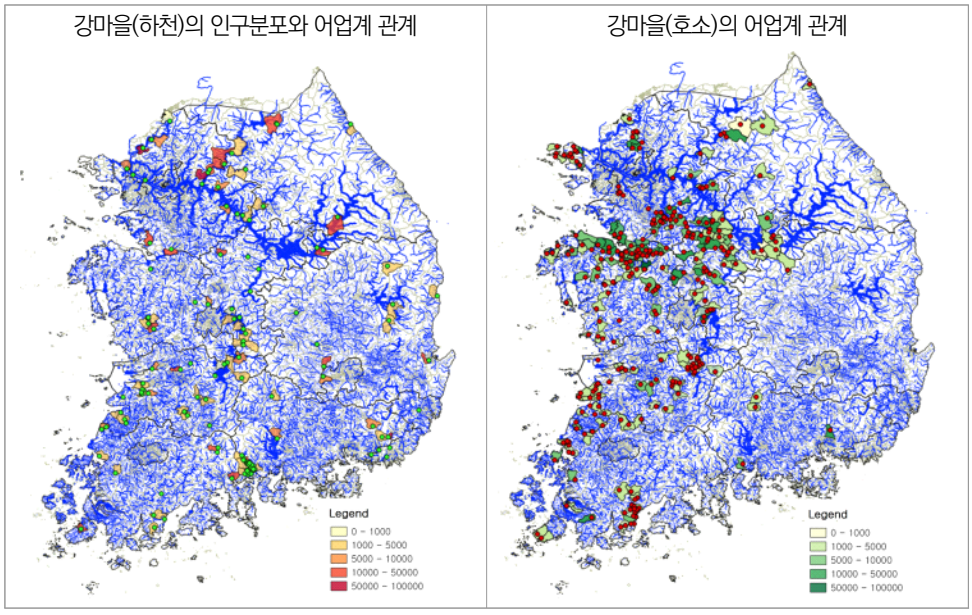
읍면규모	합계	어로어업			양식 또는 낚시업	
		하천	호소	복합 (하천,호소)	하천	호소
합계	338	91	104	15	1	127
1천 명 미만	49	12	31	4	-	2
5천 명 미만	217	59	65	9	1	83
1만 명 미만	52	10	7	1	-	34
5만 명 미만	20	10	1	1	-	8

주 : 27개소 어업계는 동지역에 있어 제외함

자료 :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검색일 :2017.05.31.)

호소를 중심으로 발달한 어업계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대규모 댐 또는 호수지역에 밀집하고 있다. 반면,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업계는 5대강 수계 상류지역에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의 수계를 따라 산재해 있다.

〈그림 2-21〉 강마을의 어업계와 인구분포 현황



자료 : 해양수산부의 내수면 어업계 현황 내부자료 및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검색일 :2017.05.31.)

3) 강마을 귀어현황

강마을의 귀어현황은 연안 읍·면지역을 제외한 내륙지역의 귀어인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91명의 귀어인이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가구수는 293가구, 평균연령은 47.8세로 중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마을의 귀어는 1인 창업을 통한 귀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한강수계(어로어업)와 충남지역 및 전라북도의 귀어인은 주로 양식어업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지역은 뱀장어, 가물치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양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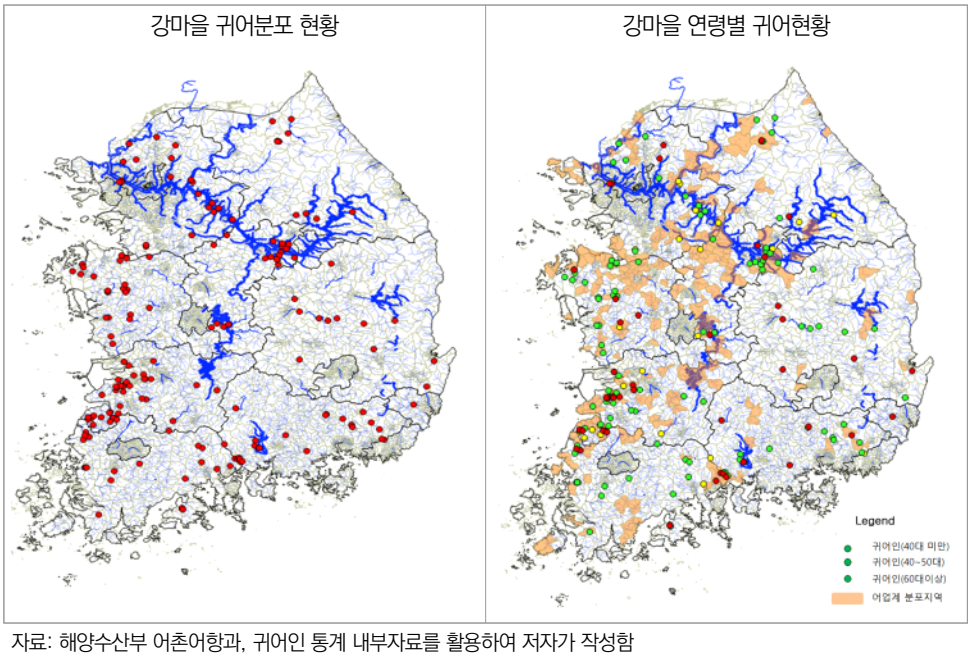
〈표 2-16〉 강마을 귀어인 현황(2013~2015년)

(단위 : 명, 가구, 세)

읍면규모	귀어인수	귀어가구원수	귀어 평균연령
합계	191	293	47.8
강원도	10	13	48.7
경기도	22	28	51.3
경상남도	26	47	47.2
경상북도	12	16	42.6
울산광역시	1	2	33.0
전라남도	24	41	48.0
전라북도	50	77	46.8
충청남도	27	43	48.1
충청북도	19	26	50.5

주 : 귀어현황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전입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2013~2015)를 활용하여 재작성함

〈그림 2-22〉 강마을의 귀어 현황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귀어인 통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2. 내수면 이용실태

1) 내수면 정비사업

가. 일반농산어촌사업

강마을 일원에 추진되었던 일반농어촌개발사업 331개소를 분석한 결과, 수변 및 경관 정비가 292개소(8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수개발 26개소(7.9%), 양식 및 체험 6개소(1.8%), 낚시터정비 4개소(1.2%), 수상레저 3개소(0.9%) 순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개발 차원에서 추진했던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내수면의 경관정비와 용수개발 등이 대부분으로 어업활동과 내수면어업계의 소득과 부가가치 제고 등을 위한 사업추진은 해양수산부 어촌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7〉 강마을 일원의 일반농산어촌사업 추진 현황

(단위 : 개소, %)

	총계	낚시터정비	수상레저	양식 및 체험	수변 및 경관 정비	용수개발
일반농산어촌사업	331	4	3	6	292	26
비율	100.0	1.2	0.9	1.8	88.2	7.9

자료 :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http://www.raise.go.kr/, 검색일 : 2017.05.31)

2) 내수면어업 현황

가. 인·허가 현황

강마을의 내수면어업 인·허가는 2015년 기준으로 총 9,726건으로 이 가운데 신고 5,087건(52.3%), 허가 4,578건(47.1%), 면허 61건(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남 2,4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658건, 전남 992건, 전북 923건, 강원 862건, 충북 828건, 충남 714건으로 어업계 분포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8〉 전국 내수면어업 인·허가 현황(2015년)

(단위 : 건)

구분	계	세종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9,726	42	322	33	39	7	2	28	1,658	862	828	714	923	992	542	2,492	222
면허	61	-	-	3	-	-	-	-	8	-	1	22	12	6	2	7	-
허가	4,578	17	276	-	12	-	-	22	1,165	669	369	347	205	302	296	670	208
신고	5,087	25	46	30	27	7	2	6	485	193	458	345	706	684	244	1,815	14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어업현황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나. 내수면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내수면어업의 생산량은 〈표 2-19〉과 같이 2011년 32,270톤에서 2013년 25,413톤으로 감소하였다가 2015년 33,055톤으로 다시 회복되었으나 국내생산량은 3만 톤 내외로 나타났다.

내수면어업의 업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로어업은 2011년 10,283톤에서 2015년 9,133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강·하천과 저수지의 환경문제와 베스, 블루길, 강준치 등 유해어종의 확산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어종별로는 패류(재첩 등) 1,422톤, 잉어 1205톤, 붕어 1,096톤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라미 215톤, 메기 150톤, 뱀장어 80톤, 가물치 27톤으로 어종별 생산량에서 다소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양식어업은 2011년 21,987톤에서 2015년 23,922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어종별로는 뱀장어 9,009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렁이 3,997톤, 송어류 3,064톤, 향어 1,479톤, 미꾸라지 849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9〉 내수면 어업 품종별 생산현황

(단위 :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32,270	28,131	25,413	29,774	33,055
어로어업	10,283	10,221	7,179	9,017	9,133
가물치	77	68	25	55	27
메기	97	149	131	156	150
뱀장어	72	106	69	85	80
붕어	2,710	2,694	1,501	1,680	1,096
잉어	1,775	1,897	1,032	1,138	1,205
피라미	249	292	214	236	215
패류(재첩 등)	1,774	1,275	1,776	1,882	1,422
기타	3,529	3,740	2,431	3,785	4,938
양식어업	21,987	17,910	18,235	20,757	23,922
가물치	282	260	250	290	307
민물돔	220	184	139	152	148
뱀장어	7,185	4,259	5,149	5,631	9,009
잉어	142	78	89	68	63
향어	1,434	1,737	1,068	1,636	1,479
송어류	3,014	3,066	3,390	3,304	3,064
미꾸라지	550	451	603	689	849
우렁이	3,383	3,191	2,706	3,264	3,997
다슬기	27	6	4	6	6
재첩	113	217	39	40	50
기타	794	785	889	1,070	829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어업현황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다. 지역·품종별 어업생산현황

내수면어업의 지역·품종별 생산현황은 〈표 2-20〉와 같이 가물치(충남), 메기(전북), 뱀장어(전북, 전남), 산천어(강원), 송어류(강원, 충북), 쏘가리(충북), 은어(경북), 향어(전북), 재첩류(전남, 경남)에서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났다. 이들 어종과 지역은 향후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전략적인 어종 선택과 발전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2-20〉 지역별·품종별 생산현황(2016년)

(단위 : 톤)

구분	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5,372	1,601	64	224	18	94	3	324	2,979	2,707	2,332	3,403	6,945	7,911	2,280	4,452	35
가물치	396	178	-	-	-	-	-	-	12	-	-	144	20	18	14	10	-
농어류	44	-	-	-	-	-	-	-	-	-	-	15	-	-	29	-	-
동자개류	513	5	1	8	-	-	-	5	63	7	11	9	173	84	39	108	-
메기	4,931	-	15	-	-	-	-	235	436	8	877	1,047	1,849	199	167	98	-
미꾸라지류	832	-	-	-	1	-	-	-	40	1	10	62	611	87	9	11	-
틸라피아	130	-	-	-	-	-	-	-	57	-	-	23	-	-	10	40	-
뱀장어	9,905	9	-	216	16	-	-	-	394	35	204	182	2,609	5,818	170	217	35
블루길	324	45	-	-	-	-	-	-	26	8	37	162	-	2	5	39	-
배스	192	-	-	-	-	-	-	-	34	-	21	53	33	3	4	44	-
금붕어	47	-	-	-	-	-	-	-	-	-	-	1	34	7	1	4	-
붕어	1,714	35	8	-	-	-	-	8	320	117	77	128	8	264	330	419	-
떡붕어	529	80	-	-	-	-	-	-	3	108	31	120	8	54	67	58	-
빙어	303	-	-	-	-	-	-	-	-	125	12	131	-	35	-	-	-
산천어	165	-	-	-	-	-	-	-	1	137	-	-	2	-	25	-	-
송어류	3,066	-	-	-	-	12	-	-	126	1,590	508	73	27	2	714	14	-
숭어류	523	-	-	-	-	-	-	-	382	1	-	9	29	97	0	5	-
쏘가리	90	-	-	-	-	-	-	-	13	16	43	1	1	2	13	1	-
웅어	2	-	-	-	-	-	-	-	2	-	-	-	-	-	-	-	-
비단잉어	41	-	-	-	-	-	-	-	1	-	13	-	18	6	1	-	-
잉어	1,369	88	19	-	-	-	-	29	244	128	66	36	1	317	233	208	-
연어류	61	-	-	-	-	-	-	-	-	55	-	-	-	-	6	-	-
은어	53	-	-	-	-	-	-	-	-	-	-	-	-	11	31	11	-
향어	1,724	4	20	-	-	-	-	32	3	4	25	51	1,342	138	60	45	-
피라미	262	-	-	-	-	-	-	-	11	74	6	-	-	-	42	129	-
황복	1	-	-	-	-	-	-	-	-	-	-	1	-	-	-	-	-
철갑상어류	34	-	-	-	-	-	-	-	7	5	5	4	-	-	10	3	-
기타어류	988	1	1	-	-	-	3	15	467	203	144	5	1	12	77	59	-
참게류	145	17	-	-	-	-	-	-	83	-	-	25	-	4	3	13	-
새우류	120	-	-	-	-	-	-	-	70	-	-	20	-	18	7	5	-
논우렁이	489	-	-	-	-	-	-	-	21	-	58	237	-	-	34	139	-
왕우렁이	4,270	862	-	-	-	82	-	-	12	-	37	855	141	279	127	1,875	-
다슬기류	427	-	-	-	-	-	-	-	147	61	142	1	-	27	14	35	-
재첩류	1,488	277	-	-	-	-	-	-	-	24	-	-	-	330	-	857	-
자라	194	-	-	-	1	-	-	-	4	-	5	6	38	97	38	5	-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어업현황 자료를 저자가 재분류하여 작성함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라. 내수면 어선현황

(1) 업종별 어선현황

내수면 어선현황은 〈표 2-21〉, 〈그림 2-23〉과 같이 나타났으며, 2006년에서 2010년사이 4,150척에서 2,790척으로 급감하였다가 2015년 이후 3,101척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어선현황은 양식어업에서 급감하였고, 정치망어업, 어로어업, 낚시업 어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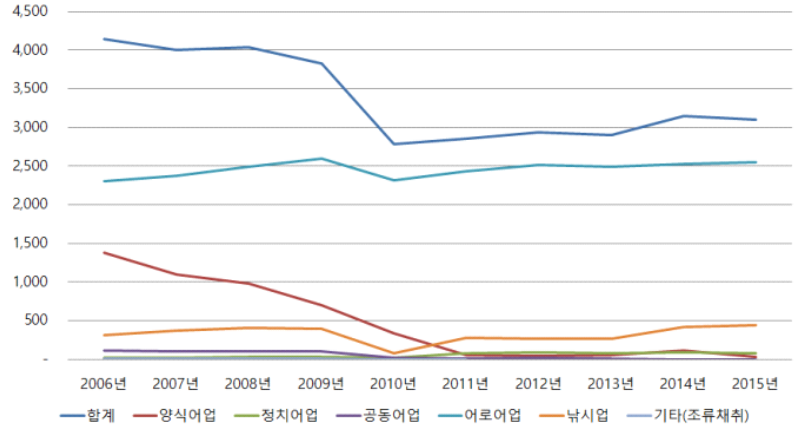
〈표 2-21〉 내수면 업종별 어선현황

(단위: 척)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합계	4,150	4,000	4,040	3,824	2,790	2,860	2,937	2,908	3,150	3,101
양식어업	1,376	1,103	985	696	343	57	46	52	118	27
정치어업	24	26	36	32	22	85	88	81	88	81
공동어업	114	106	108	100	19	10	17	10	2	2
어로어업	2,310	2,381	2,495	2,598	2,320	2,434	2,518	2,496	2,525	2,548
낚시업	312	378	408	392	84	273	268	269	417	443
기타	14	6	8	6	2	1	-	-	-	-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 어업현황자료를 저자가 재분류함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그림 2-23〉 내수면 업종별 어선수 변화(2006-2015)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 어업현황자료를 저자가 재분류하여 작성함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2) 시도별 어선현황

시도별 내수면 어선현황은 〈표 2-22〉와 같이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1,226척에서 221척으로 급감하였고, 그 이외의 경남, 강원, 전북 등의 지역은 일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 충남, 경북지역은 어선이 일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2-22〉 시도별 어선현황

(단위: 척)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전국	4,150	4,000	4,040	3,824	2,973	2,860	2,937	2,908	3,150	3,101
세종시	0	0	0	0	0	0	2	0	6	7
부산광역시	201	283	290	295	270	290	284	261	276	248
대구광역시	14	13	14	14	8	8	9	8	0	6
인천광역시	15	5	7	5	1	0	1	1	3	2
울산광역시	1	2	0	0	0	0	0	1	18	22
경기도	943	812	916	918	642	716	732	741	873	897
강원도	325	318	326	334	291	300	299	309	325	296
충청북도	439	467	471	463	402	433	432	431	442	433
충청남도	275	257	250	270	240	242	258	249	255	322
전라북도	99	47	84	76	79	74	71	71	73	75
전라남도	1,226	1,024	894	772	500	240	289	267	306	221
경상북도	117	158	145	159	154	165	172	183	186	183
경상남도	495	610	641	518	386	392	388	386	387	388
제주도	0	4	2	0	0	0	0	0	0	1

자료 : 수산정보포털, 내수면 어업현황자료를 저자가 재분류함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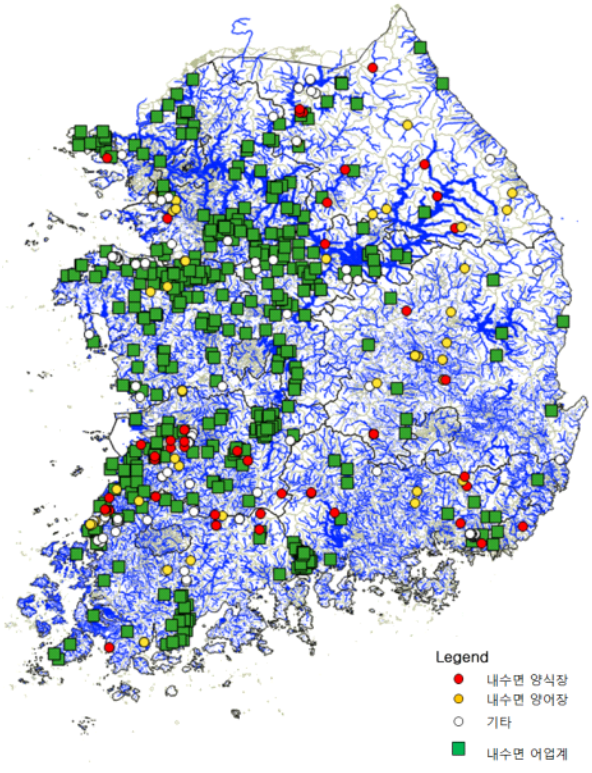
3) 내수면 양식, 유어낚시 및 기타·수상레저 현황

가. 내수면 양식 및 양어장 분포 현황

강마을 내수면 양식장 및 양어장은 전국에 139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장은 전국 80개소로 전남과 전북지역에 밀집하여 있고, 양어장은 59개소로 경북과 전남지역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면 양식장 및 양어장을 강마을 어업계 분포와 비교하면, 양식장 및 양어장은 어업계 분포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2-24〉 강마을 내수면 양식·양어장과 어업계와의 관계



자료 : 저자 작성

나. 내수면 낚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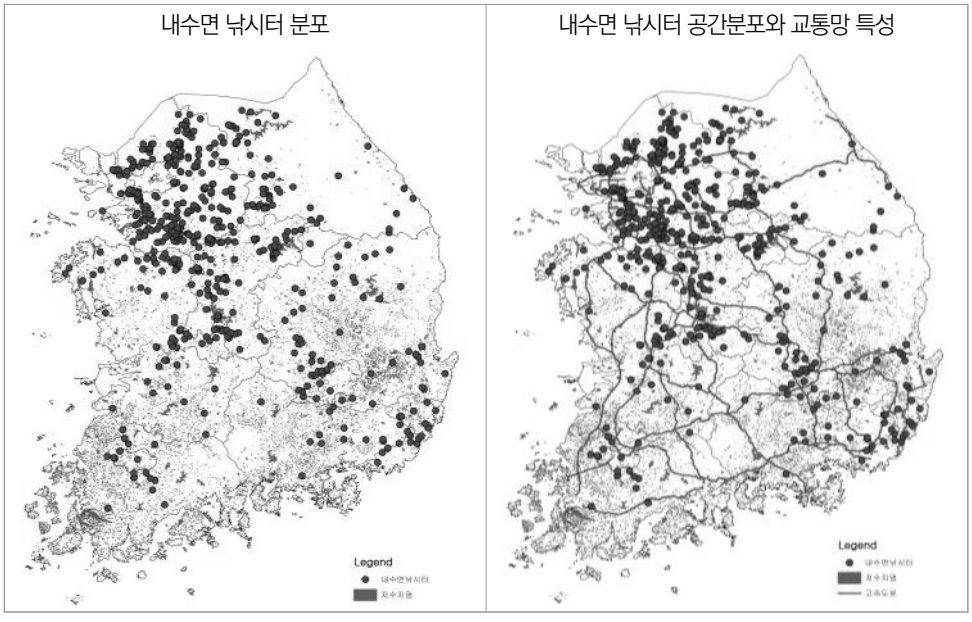
(1) 낚시터 분포 현황

강마을 지역의 내수면 낚시터는 전국에 553개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낚시터는 개인 또는 어업계에서 저수지·댐의 수면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경기·인천의 수도권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다. 그 이외에 충남·대전권, 충북권, 전남권, 경남권은 비교적 비슷한 밀도로 분포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인다.

(2) 낚시터 공간분포와 교통망 특성

강마을 지역의 내수면 낚시터 공간분포와 고속도로 교통망을 매칭해 보면 고속도로 IC를 따라 인근 저수지·댐의 수면을 활용하여 낚시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접근성과 낚시터 분포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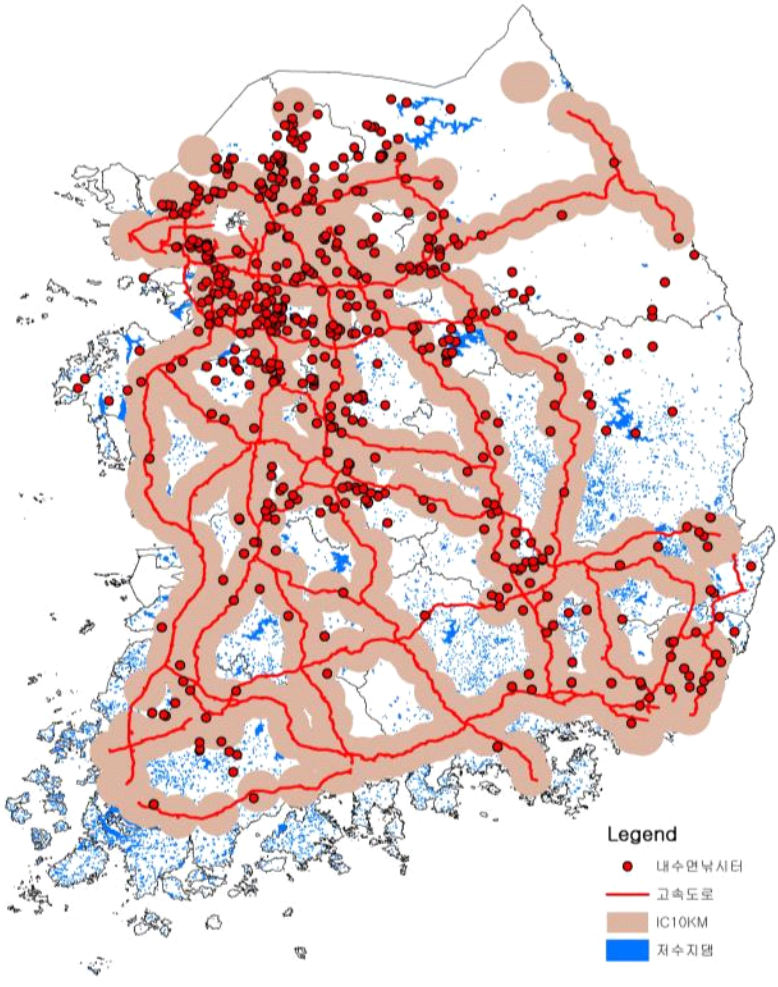
〈그림 2-25〉 내수면 낚시터 분포 및 공간특성



자료 : 저자작성

강마을 내수면 낚시터와 고속도로의 IC 분기점을 기준으로 반경 10㎞ 범위를 설정하여 살펴보면, 내수면 낚시터 30개소를 제외한 523개소 고속도로 변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수면 낚시터는 공간적 분포 특성은 자원성보다 지리적 접근성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6〉 강마을 내수면 낚시터와 광역교통망 간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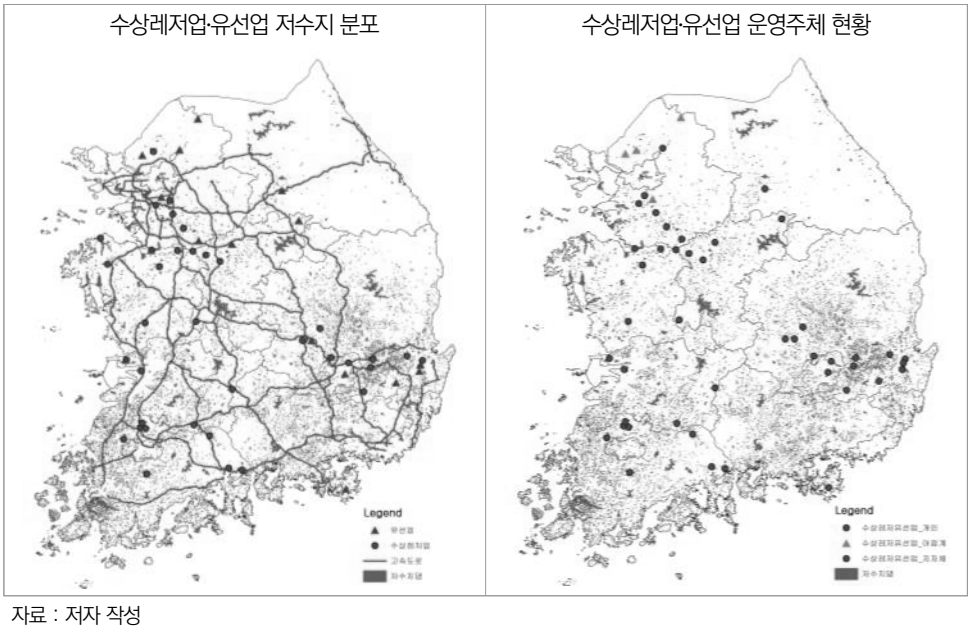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다. 내수면 수상레저업·유선업 현황

내수면 수상레저활동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로 관리하는 저수지·댐의 목적외사용 현황[20]”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54개 저수지·댐 가운데 수상레저업과 유선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52개로(14.7%)로 도로교통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댐의 수면을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은 수상골프, 수상스키 등 최근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레저활동과 유선업(유람선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 수상레저업과 유선업의 운영주체는 총 52개소 가운데 개인 42개소(80.8%), 어업계 6개소(11.5%), 지자체 4개소(7.7%)로 나타나 수상레저업과 유선업은 어업계나 지자체 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7〉 내수면 수상레저업·유선업 분포 및 운영주체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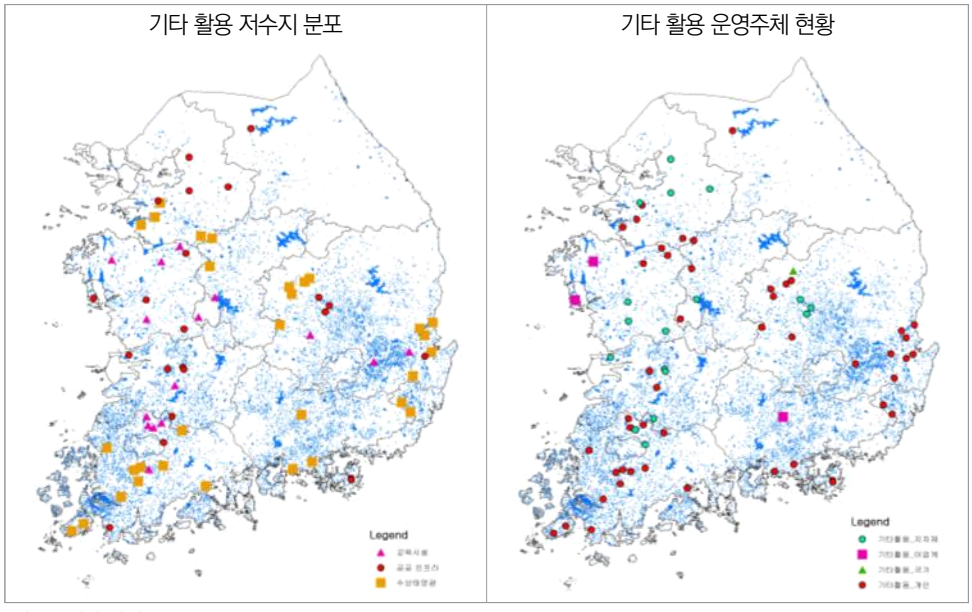
20)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로 관리하는 저수지·댐의 목적외사용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함

라. 기타 활용 현황

내수면 기타 활용은 마찬가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로 관리하는 저수지·댐의 목적외사용 현황[21]”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354개 저수지·댐 중 기타 활용(수상태양광, 교육시설, 공공 인프라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은 74개로(20.9%)로 나타났다. 이 중 수상태양광 31개소(41.9%), 공공인프라 27개소(36.5%), 교육시설 15개소(20.4%)로 나타났다.

한편 운영주체는 개인이 49개소, 지자체는 21개소, 어업계는 3개소, 국가는 1개소로 나타났다. 어업계 등 지역공동체는 주로 어업과 낚시업, 수상레저업에 국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28〉 내수면 기타활용 및 운영주체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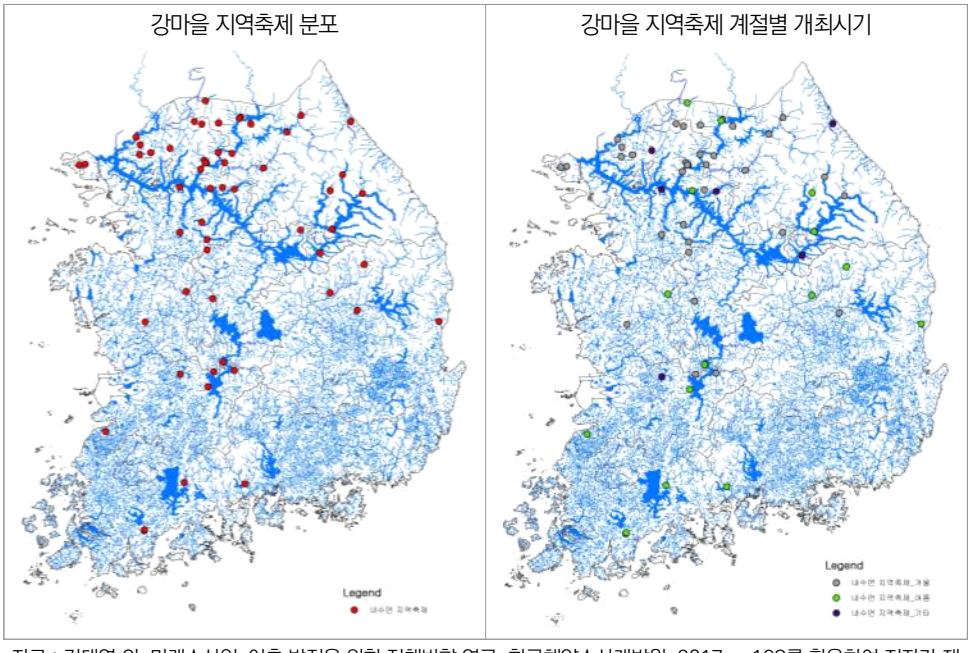
21)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면관리자로 관리하는 저수지·댐의 목적외사용 현황 내부자료를 토대로 저자가 재작성함

마. 강마을 지역축제 현황

(1) 지역축제 개요

강마을 지역축제는 전국에 58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저수지·댐, 강·하천을 따라 사계절에 걸쳐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내수면 특성상 산천어, 송어, 빙어 등의 어종은 겨울철에 축제시기를 마련하는 곳이 36개소(62.1%), 여름철은 18개소(32.1%)로 나타났고, 봄·가을에 편중된 해면의 축제 또는 어촌체험마을과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강마을의 지역축제는 위원회, 협의회, 마을회, 어업계 등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들 대부분은 주로 낚시 또는 맨손으로 잡는 체험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2-29〉 강마을 지역축제 분포 및 계절별 개최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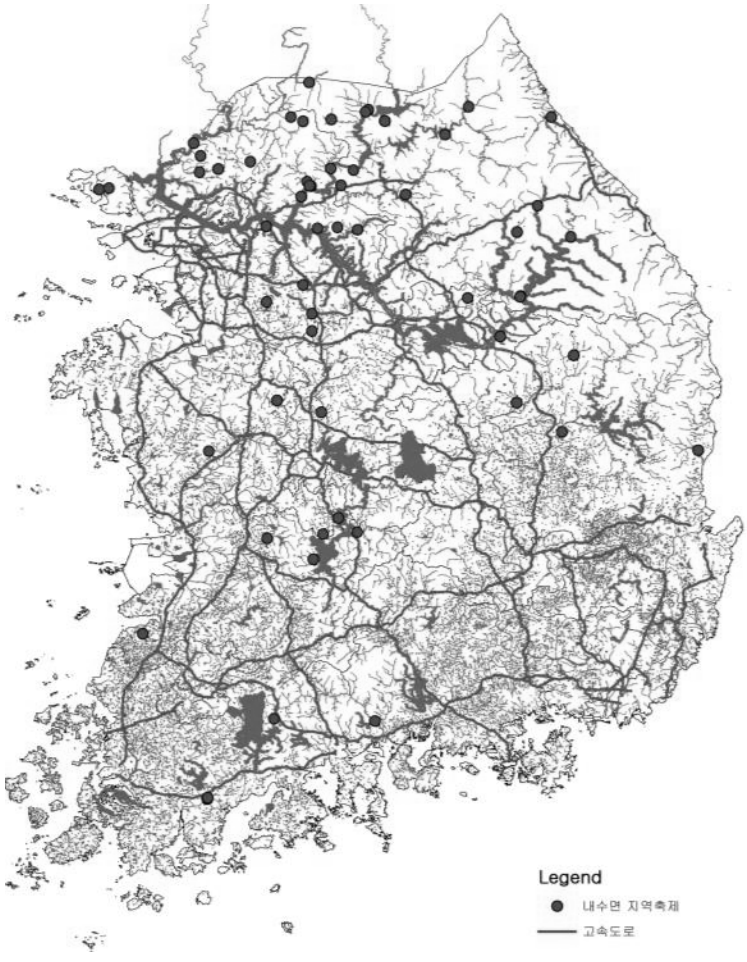


자료 : 김대영 외, 미래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198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2) 지역분포 특성

강마을 지역축제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41개소가 분포하여 전체의 7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경기 등의 광역대도시권의 인구와 도로교통망, 한강수계의 자원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의 접근성으로 인해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림 2-30〉 강마을 지역축제 지역 및 공간적 분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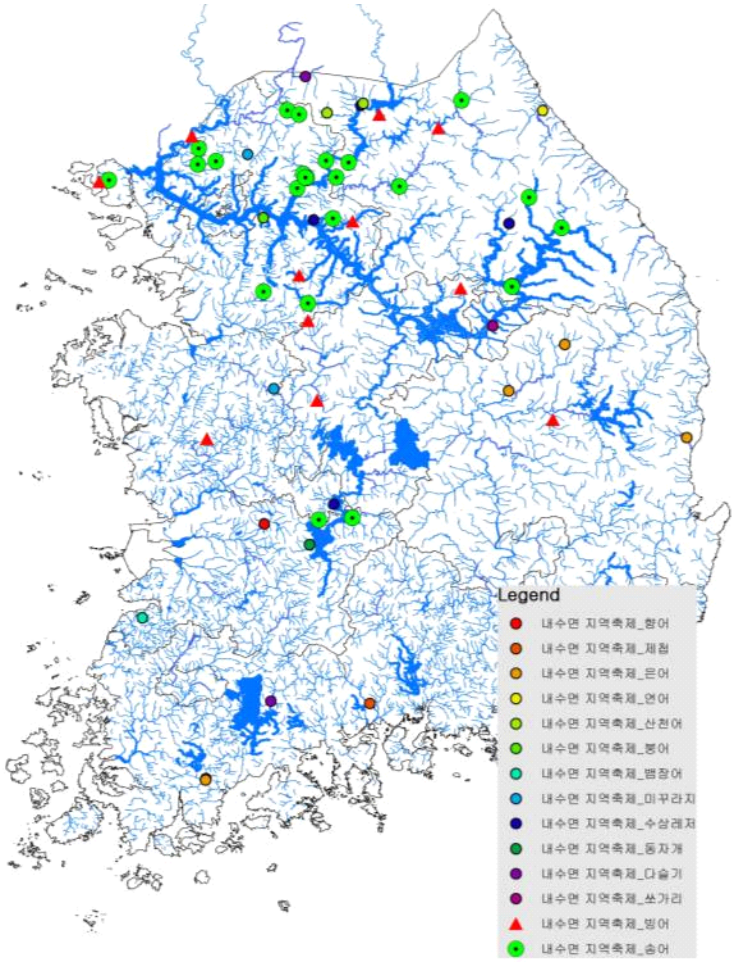


자료 : 김대영 외, 미래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p.198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3) 주요 어종별 지역축제 특성

강마을 지역축제는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송어와 빙어축제와 지역별 특화 어종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적 특성은 쏘가리(단양군 남한강), 연어(양양군 남대천), 뱀장어(고창군 선운천), 재첩(하동군 섬진강), 향어(완주군 만경강), 동자개(진안군 정천) 등에서 나타난다.

〈그림 2-31〉 강마을 지역축제 지역 및 공간적 분포 특성



자료 : 저자작성

3. 내수면 입지유형별 심층사례 분석

1) 충남 아산시 아산호

가. 지역개요

아산호는 1973년 당시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원을 확보하고 조수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아산만방조제 건설로 인해 조성된 인공적인 호수이다. 아산호는 충남 아산시와 경기 평택시 간 도계(道界)이며, 경기·충남 지역의 어업계가 동일한 내수면을 이용하면서 아산호의 명칭과 어업활동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최근 아산호에는 모래준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아산호 생태환경의 황폐화와 수심이 깊어지면서 강준치, 누치 등의 어종이 급증하게 되고, 이들이 새로운 상위포식자로 군림하면서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산호 주변은 대부분 농경지로 낚시인들이 급증하면서 주차, 생활쓰레기, 불법어업 등 지역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반면 넓은 수역과 접근성으로 인해 수상레저, 낚시관광으로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2-32〉 아산호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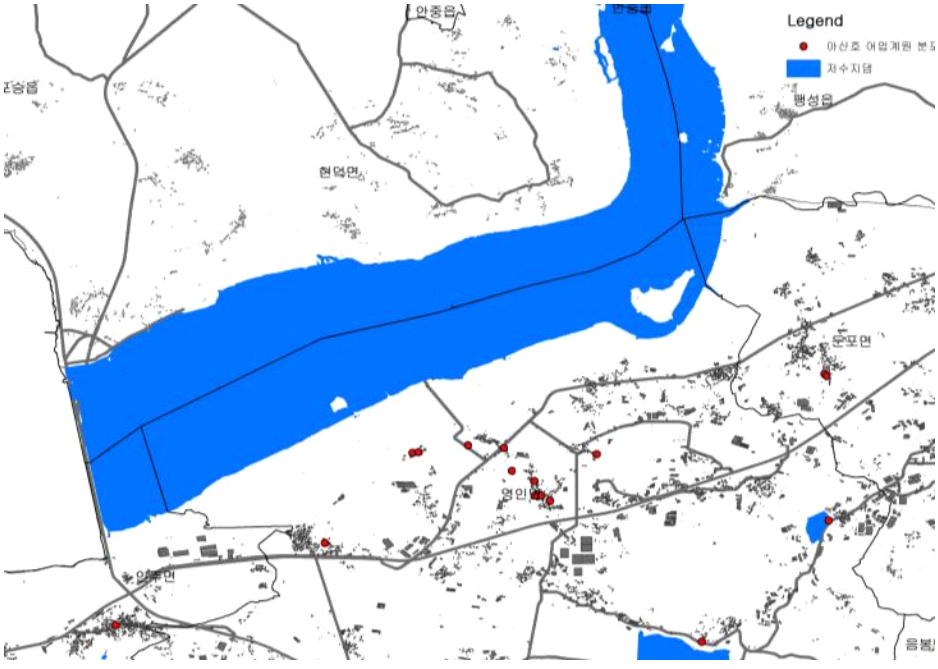
자료 : 네이버, 아신호 전경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wg6989&logNo=22096579280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검색일 : 2017. 5. 25)

나. 아산호의 현황 및 특성

(1) 지역공동체 현황

아산호는 〈그림 2-33〉과 같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아산시의 도행정경계로 평택시는 평택호내수면어업계(41명), 아산시는 아산호내수면어업계(20명)를 각각 설립하고, 각망, 연승, 자망 등의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팽성읍과 현덕면에 접해 있고, 아산시는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등 3개 면 지역과 접해 있다. 아산호 일원의 어업계원은 수계를 따라 분산되어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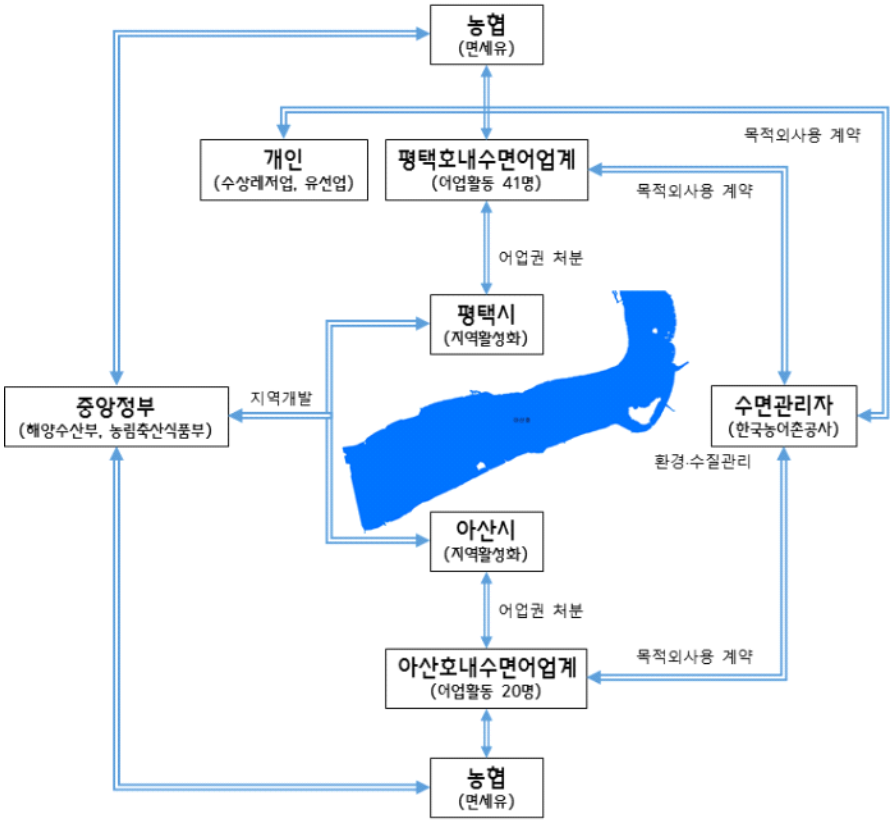
〈그림 2-33〉 아산호 행정경계 및 어업계원 분포 현황



자료 : 저자 작성

아산호는 〈그림 2-34〉와 같이 평택호어업계와 아산호어업계가 시도 수역 경계를 기준으로 수면관리자로부터 목적외사용 임대계약을 통해 어로어업(각망, 자망, 연승)을 하고 있다. 특히 각망은 계원별로 어로구역을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어 어업활동에 따른 계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어로어업을 통한 어업계 공동의 목표설정과 공동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성원 간에 결속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4〉 아산호(평택호) 강마을의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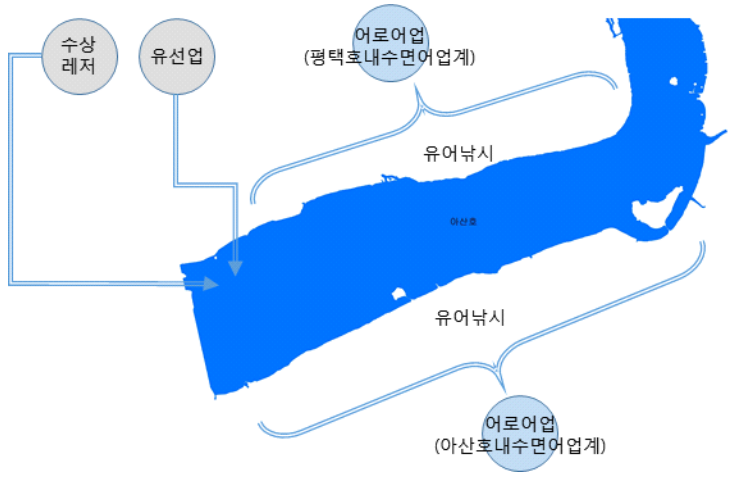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복합적인 수면 활용

아산호 수면은 어로어업(각망, 자망, 연승), 유어낚시, 수상레저업, 유선업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로어업은 어업계가 호의 수제부를 따라 허가를 받아 어업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상레저업과 유선업은 개인이 수면관리자와 임대계약을 통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호는 수도권과 인접하고, 베스, 강준치 등 루어낚시를 즐기는 낚시인들이 집중되고 있어 양안의 어업계 모두 어업활동과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면관리자가 내수면 목적외사용의 여건과 효율적인 활용 등을 고려하여 기능별 구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그림 2-35〉 아산호 행정경계 및 어업계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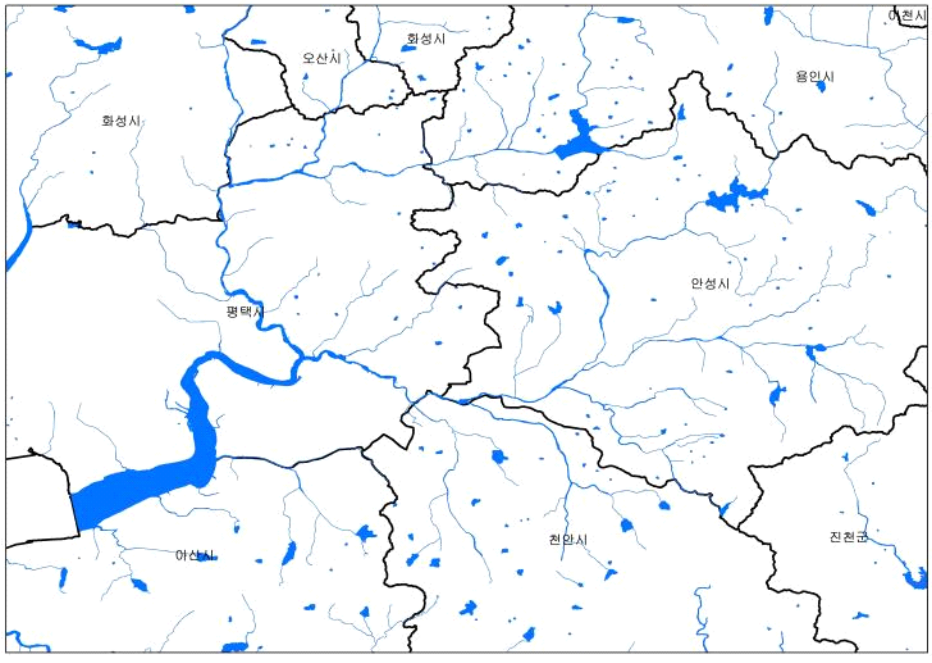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3) 상류지역으로부터 환경적인 영향

강·하천은 수계의 흐름에 따라 상류부터 여러 지역을 가로질러 하류에 이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구조환경은 수질, 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산호는 수계가 2개 지류로 나누어져 경기도 6개 시·군(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충청남도 3개 시·군(진천군, 천안시, 아산시)에 걸쳐있다. 평택호와 아산호어업계의 자구적인 노력과는 별개로 상류지역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림 2-36〉 수계 흐름에 따른 환경문제 발생



자료 : 저자 작성

다. 아산호의 문제점과 과제

(1) 쓰레기 유입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

아산호는 상류인 안성천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각종 부유쓰레기와 낚시객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어업계의 경제활동 터전을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산호가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낚시객과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지속적인 운영·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그림 2-37〉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및 어업계 정화활동



자료 : 월간조선 및 아산뉴스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_r.asp?Idx=470&Newsnumb=20041006, 검색일 : 2017. 5. 25)
(http://www.asannews.co.kr/sub_read.html?uid=38309&section=sc3, 검색일 : 2017. 5. 25)

(2) 유해어종으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아산호의 어업계는 강준치, 베스, 블루길 등이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수역 내 생태계 교란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강준치는 수면관리자가 아산호의 모래준설을 허용하면서 수심이 깊어져 계곡을 형성하면서 저수온 환경이 만들어져 강준치 개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산호 내 강준치의 급증은 과학적인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이로 인해 어업계의 어업소득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준치 등 유해어종에 대한 판매실적은 지자체 수매실적과 어분사료량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8〉 강준치 및 저장고



자료 : 저자가 아산호 어업계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촬영(2017.5.16.)

(3) 불법적인 수상레저와 낚시활동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

아산호의 수면적은 2,228㏊에 달해 아산호어업계 20여 명의 인력과 노력으로는 사실상 불법어업, 수상레저활동, 생활쓰레기 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산호의 불법적인 수상레저와 낚시활동을 통제하고 어장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광활한 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전담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2) 강원 원주시 섬강

가. 지역개요

원주시 섬강은 횡성군에서 발원하여 원주를 지나 경기·강원도가 접하는 지점 가까이에서 남한강과 합류하는 강으로 총길이 73.02㎞이다. 그중 대부분의 수계가 원주시를 지나고 있으며, 섬강의 연장은 약 50㎞에 이른다. 어업수역은 길지만 최근 수심이 낮아져 어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어로활동, 낚시객 유어활동, 유해어종으로 인하여 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그림 2-39〉 섬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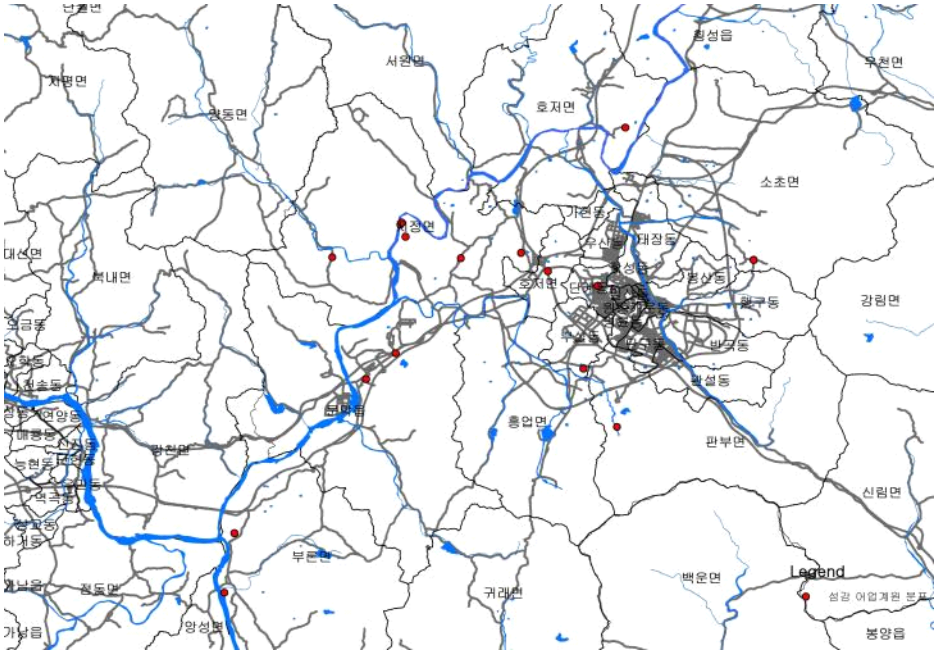
자료 : 원주신문(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 검색일 : 2017.05.28.)

나. 섬강 현황 및 특성

(1) 지역공동체 현황

원주 섬강 어업계는 원주를 지나는 섬강 약 50㎞와 남한강 일부지류인 6㎞, 총 56㎞를 어업계 어업구역으로 설정하고, 17명의 어업계원이 각각 수역별로 구역을 구획하여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자망어업을 주 어업수단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계원의 거주지역은 〈그림 2-40〉과 같이 지정면 6명, 원주시내 3명, 호저면 2명, 부론면 2명, 문막읍 2명, 귀래면 1명, 소초면 1명 등 섬강지역 수계를 중심으로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그림 2-40〉 어로구역 및 어업계원 분포



자료 : 원주시, 섬강어업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2) 주요 생산어종 및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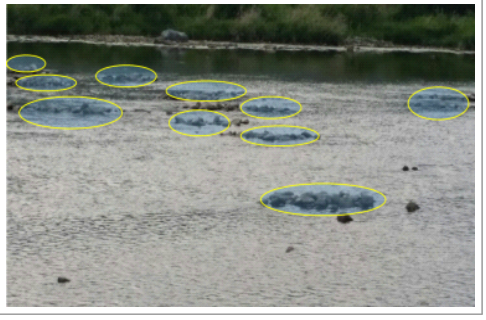
원주 섬강어업계에서는 총 15~16종의 어류를 어획하고 있으며, 주 어획어종은 쏘가리, 대농갱이이며 일부 장어가 잡히기도 한다. 나머지 어종은 매우 소량씩 잡히기 때문에 잡어로 처리한다. 쏘가리는 연평균 5~6톤 정도가 어획되고 대농갱이가 15톤 정도 어획된다. 어로활동으로 인한 어업계원들의 평균소득은 4~5천만원 정도이며 일부 어업외 소득원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내년에 수산물 직판장을 건설 및 운영하여 어획어종에 대한 가격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지속적인 치어 방류사업으로 안정적인 어로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 섬강의 문제점과 과제

(1) 불법어로 활동

불법어로 활동은 섬강어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하여 어획고가 급감하고 지속적인 어자원 관리가 되지 않아 향후 어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어업자들은 많은 어획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장비와 포획방법을 미성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섬강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어획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돌무덤을 이용한 어획방법이 있다. 배터리 어획법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모든 어종을 유어·성어 가리지 않고 포획하며, 돌무덤은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오는 어류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형태로 돌을 쌓아 조성하는 것으로 지류 주변에 20~30개 정도를 만들어 일정시간이 지난 뒤 그물로 돌무덤 주변을 감아 포획한다. 특히, 돌무덤을 이용한 불법어획은 돌무덤 하나에 10~30kg의 어류가 포획되어 과잉어획의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원주 섬강은 어로범위가 길고 섬강의 구역별로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를 단속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그림 2-41〉 주요 불법어획 도구 및 방법

불법어획도구(배터리)	불법어획방법(돌무덤)
	

자료 : 저자가 원주시 섬강어업계 현장조사를 통해 촬영(2017.5.16.)

⑵ 유어 낚시객과의 갈등

섬강은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하천으로 최근 유어객이 증가하여 섬강 전체 지류를 따라 낚시객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일 최대 200~300명[22] 정도의 낚시객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낚시객의 급격한 증가는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섬강어업계는 낚시객으로 인한 쓰레기, 낚시어구 무단폐기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강어업계는 한 달에 2회 섬강 일원에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낚시객들은 내수면 어업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낚시를 제한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업계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⑶ 유해어종 개체 수 증가

유해어종 개체 수의 증가는 섬강의 어업활동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섬강에는 강준치와 누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으로 주요 어획어종의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다. 원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유해어종에 대한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급격한 개체 수의 증가에 비해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유해어종 퇴치사업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유해어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치어방류사업도 효과를 볼 수 없어 정부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⑷ 귀어·귀촌인에 대한 진입장벽

내수면 어업지역으로 귀어나 귀촌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수면어업은 해수면과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높고, 특히 섬강의 경우 어업활동 구역이 어업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어업공동체 구성원이 어업권을 매매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로어업으로 어촌사회에 진입할 수 없어 진입장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22) 낚시객수는 섬강어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임

제4절 강마을 어업계 인식도 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조사는 어업계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및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하여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조사내용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응답자 기본정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지역개발사업 시 참여의사 및 지지도 등 크게 4개 항목, 12개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2-23〉 설문 조사내용

항목	조사내용
기본사항	① 성별 ② 연령 ③ 거주지역 ④ 어업 활동 수계 ⑤ 겸업여부 및 어업 이외 경제활동 ⑥ 어업 소득 비중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일반인식	① 강마을 지역개발사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② 강마을 지역개발 거버넌스(주민 협력 수단)에 대한 인식
지역개발사업 만족도	① 기 추진된 강마을 지역개발사업명 및 사업 유형 ② 시행된 강마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지역개발사업 참여 의사 및 지지도	① 강마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지지도 ② 추진 희망 사업 유형

자료 : 저자작성

3) 조사설계

본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기초하여 전국 내수면 어업계 총 338개소 어업계장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가운데 총 222개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였다. 설문조사의 수행기간은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6일까지 13일 간 이루어졌으며,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표 2-24〉 조사설계

구 분	내 용
모집단(조사대상)	내수면 어업계 338개소(어업계장)
조사방법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
유효표본	총 22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4% 포인트
조사기간	2017년 8월 25일 ~ 9월 6일
조사기관	사회조사센터

자료 : 저자작성

4) 응답자 및 어업활동 기본특성

가. 연령대별 분포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60대 이상이 106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89명(40.1%), 40대 22명(9.9%), 30대 5명(2.3%) 순이고, 50~60대가 전체의 8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5〉 연령대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유효표본수	비율 (%)
전체	222	100.0
30대	5	2.3
40대	22	9.9
50대	89	40.1
60대 이상	106	47.7

자료 : 저자작성

나. 지역별 분포

유효표본 222명의 지역별 분포는 〈표 2-26〉과 같이 내수면이 발달한 전북, 충남, 충북, 전남, 경기 등의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서울, 울산, 부산, 경북 등의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2-26〉 지역별 분포 현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합계	222	100.0
서울	1	0.5
부산	7	3.2
인천	10	4.5
울산	1	0.5
경기	24	10.8
강원	11	5.0
충북	35	15.8
충남/세종	38	17.1
전북	42	18.9
전남	34	15.3
경북	7	3.2
경남	12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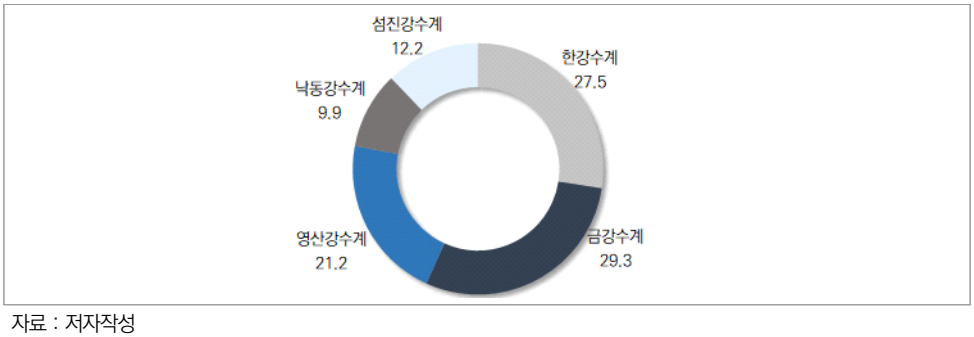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다. 수계별 분포

유효표본 222명의 수계별 분포는 금강수계와 한강수계가 각각 29.3%, 27.5%로 높게 나타났고, 섬진강수계와 낙동강수계는 각각 12.2%, 9.9%로 나타났다.

〈그림 2-42〉 수계별 분포 현황

(단위: %, n=222)



자료 : 저자작성

라. 수계별 어업계의 내수면 활용

어업계의 내수면 활용 형태는 수계별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수계는 낚시터 운영이 어업보다 더 높은 반면에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어업활동 중심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수계별 어업계의 내수면 활용 형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한강수계	금강수계	영산강 수계	낙동강 수계	섬진강 수계	전체
전 체		222	27.5	29.3	21.2	9.9	12.2	100.0
어업 형태	어업	159	62.3	43.1	95.7	100.0	96.3	71.6
	낚시터 운영	63	37.7	56.9	4.3	0.0	3.7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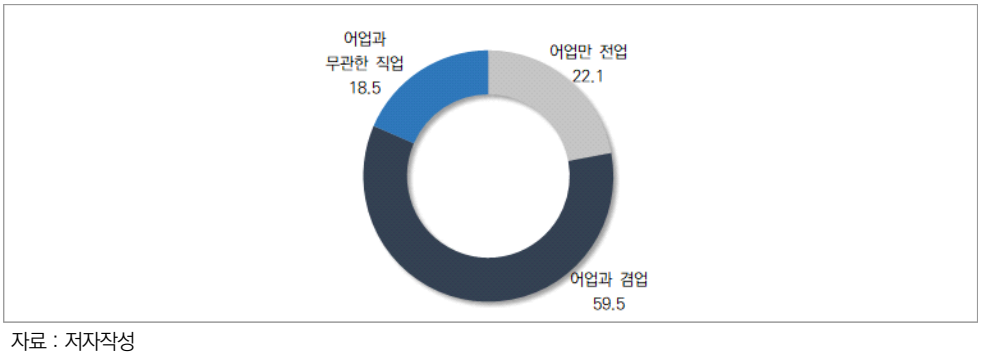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마. 종사유형

유효표본 222명 가운데 전업은 22.1%인 반면에 겸업은 59.5%로 나타나 어업활동 이외에 별도의 생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어업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무려 18.5%로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3〉 종사유형

(단위: %, n=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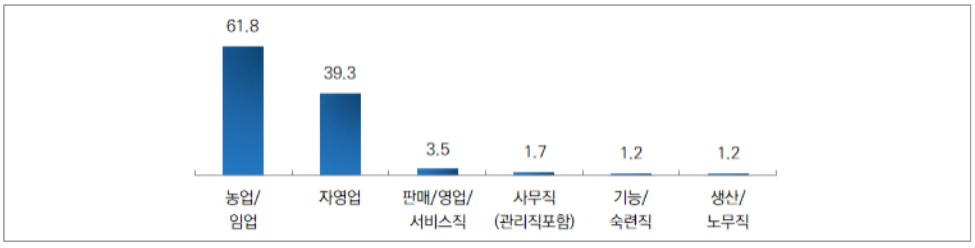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겸업이나 어업 이외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173명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61.8%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39.3%, 서비스업 3.5%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내수면 여건상 대부분 농업활동이나 자영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44〉 어업 이외 직종 형태

(단위: %, n=173, 중복응답)



자료 : 저자작성

바. 어업소득 비중

유효표본 132명의 어업소득 비중은 평균 32%로 해면어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 이하인 경우도 전체의 61.4%로 내수면 어업활동을 통한 어업소득 비중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수계별로는 어업소득 비중은 영산강수계와 섬진강수계가 각각 48.9%, 46.1%로 평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8〉 어업소득 비중

(단위: 명, %)

		사례수	10%이하	11-30%	31-60%	61%이상	무응답	평균
전 체		132	32.6	28.8	25.0	12.9	0.8	32.0
수계	한강수계	(17)	17.6	35.3	29.4	17.6	0.0	40.6
	금강수계	(31)	16.1	35.5	35.5	9.7	3.2	35.7
	영산강수계	(14)	7.1	28.6	35.7	28.6	0.0	48.9
	섬진강수계	(9)	11.1	22.2	33.3	33.3	0.0	46.1
	낙동강수계	(61)	54.1	24.6	14.8	6.6	0.0	21.8

자료 : 저자작성

2. 조사결과

1)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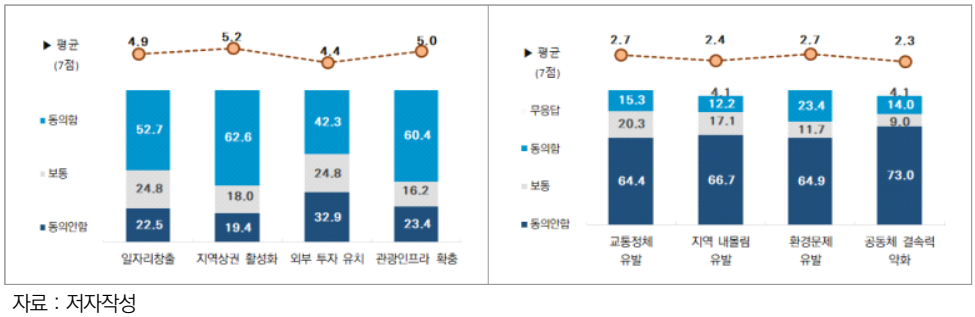
가.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긍정·부정효과 인식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의 4가지 영역에서 7점 만점 중 5.0 내외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긍정 효과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광인프라 확충'에 각각 62.6%, 60.4%가 긍정효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7점 만점 중 2.5점 내외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이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로 연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45〉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긍정·부정효과 인식

(단위: %, n=222)



자료 : 저자작성

나. 지역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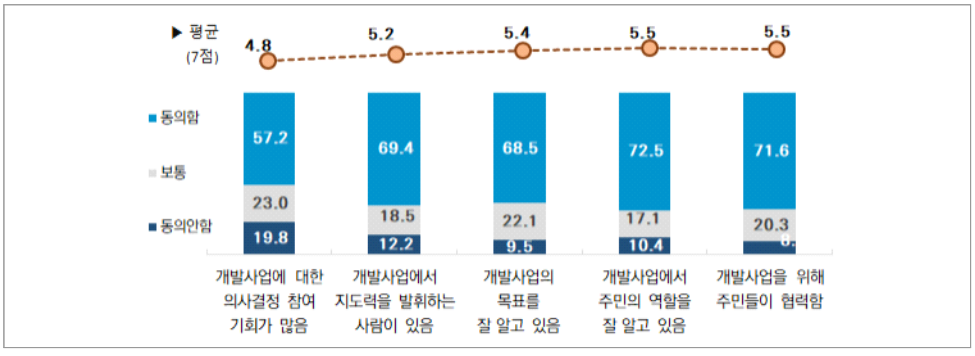
지역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은 의사결정 참여, 마을리더, 지역개발사업의 목표 인식, 주민역할과 참여 등을 살펴보았고, 7점 만점 가운데 5.2점 내외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는 의

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72.5%로 가장 높았고, '지역개발사업 시 주민들은 협력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1.6%로 나타났다.

〈그림 2-46〉 지역공동체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단위: %, n=222)



자료 : 저자작성

2)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가.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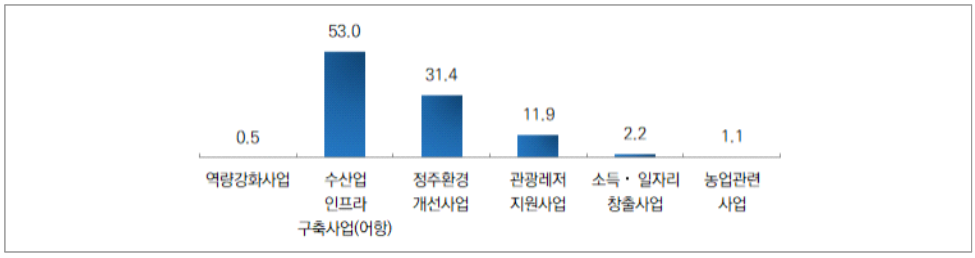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은 유효표본 222개소 중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었던 194개소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개발사업은 수산업 인프라 구축이 전체의 5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주환경개선사업 31.4%, 관광레저 지원사업 11.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일자리 창출이나 역량강화사업은 인프라 구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치어·종패 등 방류사업'이 36.2%로 가장 높았고, '강·저수지 주변 정비사업', '선착장·저수지 조성 및 보수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의 열악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로포장 및 확장사업'이 13.5%, '상·하수도 정비사업' 10.8%, '공중 화장실 지원사업',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47〉 기 추진된 지역개발사업 유형

(단위: %, n=185)



주 : 기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만 대상으로 분석함

자료 : 저자작성

〈표 2-29〉 수계별 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 현황

(단위: 개소, %)

사업내용			전체	한강 수계	금강 수계	영산강 수계	섬진강 수계	낙동강 수계
구분	세부 사업내용	비율						
사례수			185	50	45	46	27	17
역량강화	어업인 기술교육	0.5	0.5	0.0	0.0	2.2	0.0	0.0
수산물 인프라 구축	치어/종패 방류사업	53.0	36.2	22.0	42.2	65.2	18.5	11.8
	강/저수지 주변 정비사업		3.2	8.0	0.0	0.0	0.0	11.8
	선착장/저수지 건립 및 보수 사업		4.3	2.0	2.2	2.2	7.4	17.6
	양식장/양어장 지원 사업		2.2	4.0	2.2	2.2	0.0	0.0
	수질개선사업(인공습지 조성 등)		1.1	0.0	2.2	0.0	0.0	5.9
	수산물 직판매장 건립		3.2	10.0	2.2	0.0	0.0	0.0
	냉동고 지원		1.1	0.0	0.0	2.2	3.7	0.0
	수산물 가공시설		1.6	0.0	0.0	0.0	11.1	0.0
정주환경 개선	상하수도 시설사업	31.4	10.8	2.0	8.9	17.4	25.9	0.0
	도로 포장 및 확장 사업		13.5	22.0	11.1	2.2	18.5	17.6
	공중화장실 지원사업		2.7	2.0	8.9	0.0	0.0	0.0
	마을가꾸기 사업(정자 건립 등)		2.7	4.0	4.4	2.2	0.0	0.0
	공원화 사업		1.6	2.0	0.0	2.2	0.0	5.9
관광레저 지원	관광마을 조성사업(체험마을 등)	11.9	3.8	8.0	2.2	0.0	3.7	5.9
	관광시설 개발사업		4.3	8.0	6.7	2.2	0.0	0.0
	둘레길 조성사업		2.2	2.0	4.4	0.0	0.0	5.9
	축제 등 지역행사개최		0.5	0.0	0.0	0.0	0.0	5.9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1.1	2.0	0.0	0.0	3.7	0.0
소득 일자리	수산물 가공 및 판매 지원사업	2.2	1.6	0.0	0.0	0.0	3.7	11.8
	태안화력발전소		0.5	0.0	2.2	0.0	0.0	0.0
기타		1.1	0.5	0.0	0.0	0.0	3.7	0.0
			0.5	2.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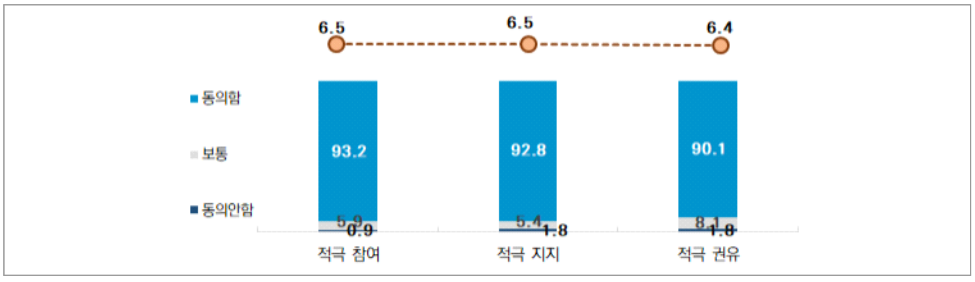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나. 지역개발사업 참여 및 개발수요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강마을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어업계의 참여 및 지지도는 〈그림 2-48〉과 같이 7점 만점 중 6.5점 내외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8〉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및 지지도

(단위: %, n=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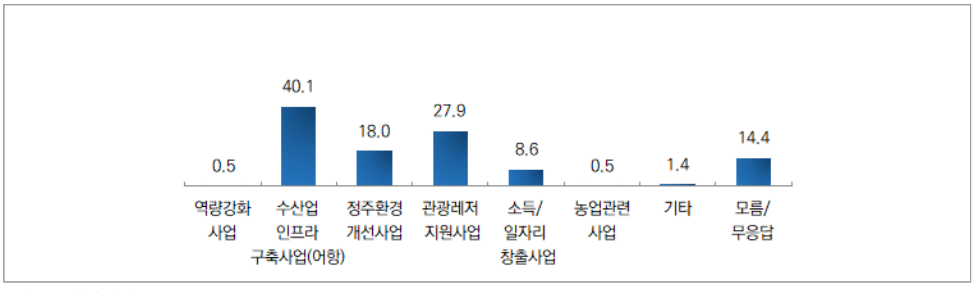


자료 : 저자작성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희망하는 사업은 수산업 인프라 구축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레저 27.9%, 정주환경개선 18.0%, 소득·일자리 창출 8.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2-49〉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수요

(단위: %, n=222, 중복응답)



자료 : 저자작성

제5절 종합분석

이 절에서는 제2장 강마을 개념 및 실태분석에서 살펴보았던 관련정책, 법제도 검토, 내수면 어업지역 현황, 내수면 이용현황, 내수면 어업지역 심층사례, 어업계 인식 등 강마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강마을 실태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표 2-30〉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제4장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제5장의 정책제언에 분석결과를 반영하였다.

첫째, 내수면 이용과 관리에 대한 법제도 검토 결과, 내수면 특성상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복합한 거버넌스 체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주도의 강마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 제정과 해수부 소관 지원사업의 정비를 통해 독립된 사업추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내수면 어업지역은 5대강 수계를 따라 87개 지자체에 338개소 어업공동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하천 98개소, 저수지 225개소, 복합 1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강마을 지역이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저성장 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맞물려 귀어·귀촌이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면 어업지역은 약 191명에 불과해 강마을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을 강마을에 정착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셋째, 내수면 이용은 어업생산, 낚시관광, 지역축제에서 어종과 지역적인 편중이 나타났다. 어업생산 현황은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고, 뱀장어, 송어, 다슬기 등 특정 어종에서 쏠림현상이 있다. 낚시관광도 접근성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원의 저수지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고, 지역축제도 겨울철에 송어, 빙어 등 특정어종으로 편중되고 있다. 따라서 강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 시 지역 전략품종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한 상품개발과 브랜드화 전략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내수면 어업지역의 심층사례는 충남 아산호 어업계와 강원 원주시 섬강

어업계에 대한 지역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불법낚시와 쓰레기 유입에 따른 환경문제, 유해어종 유입에 따른 어족자원 감소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현안과 문제점들은 강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 시 지원사업과 내수면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명예관리인 도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계의 인식조사에서는 공동체 결속력 문제와 강마을 활성화 시 개발수요를 살펴보았고, 이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방안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표 2-30〉 강마을 실태분석의 종합

구분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향
법제도 검토	내수면 특성상 다부처 거버넌스 체계 - 해수부, 농식품부, 국토부, 수면관리자 등	강마을 활성화 위한 법률 제정 해수부 독립 추진사업 마련
내수면 어업지역 현황	5대강 수계를 따라 전국 338개소(평균 24명) - 하천 98개소 / 저수지 225개소 / 복합 15개소	내수면 어업지역 네트워크 구축 - 사회경제적 동질성 기반으로 사업구역 조정
	내수면 귀어 191명에 불과	강마을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내수면 이용현황	내수면 어업생산 - 양식어업 비중 높고, 특정어종 편중	지역 전략품종 개발과 브랜드화 통한 부가가치 제고
	낚시관광 - 수도권의 저수지, 댐지역에 집중 지역축제 - 겨울철, 특정어종(송어, 빙어 등) 편중	
내수면 어업지역 심층사례	충남 아산호 어업계 - 불법낚시, 쓰레기 유입 등 환경문제 - 강준치 등 유해어종 유입으로 자원 감소 - 불법적인 수상레저와 낚시활동	강마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강마을 관광활성화 - 낚시 명예관리인 지정·운영 - 유해어종 퇴치 지원 강화
	강원 원주시 섬강어업계 - 불법 어로활동 - 불법낚시, 쓰레기 유입 등 환경문제 - 유해어종 유입으로 자원 감소 - 귀어귀촌인에 대한 진입장벽	
어업계 인식	지역개발사업 시 공동체 결속력 약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추진
	지역 활성화 추진 시 개발수요 -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 - 관광레저 지원 강화 - 정주환경 개선	강마을 지원 프로그램 제시 - 신규사업 개발 - 내수면산업 육성 연계 강화

자료 : 저자작성

제3장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1. 내수면산업 육성정책

1)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년)[23]

「내수면어업법」 제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내수면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2017~2021년)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 39대 핵심과제를 통해 내수면 어업의 생산성 증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전략은 i)내수면 양식업의 활성화, ii)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및 관리, iii)내수면 이용·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 iv)내수면어업 육성 및 거버넌스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내수면 양식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까지 내수면 양식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양식생산량을 31천 톤까지 달성하고,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100여 개소의 내수면 위생관리시스템(HACCP) 양식장을 육성하고, 지역 특화품목 육성 연구시설 건립과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을 통해 내수면 양식업의 전국적인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지속가능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보호와 관리를 위해 2021년까지 어로어업의 생산량을 15천 톤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어업기반을 조성하고, 불법어업 적발건수를 2013년 대비 70%이상 끌어올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 및 생태계를 복원, 어도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어도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3) 해양수산부,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실태조사, 2016 p.17 주요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함

셋째, 내수면 이용·가공 및 수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까지 수산식품 거점센터 2개소를 조성하여 내수면 수산물 식품·가공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계획기간 내에 내수면 수산물 자급률을 68%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내수면 수산물의 수급관리를 강화하여 계통출하 비율은 50%이상으로 끌어올려 내수면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국·도립 연구기관과 주기적인 업무협의와 내수면 관련 전담부서 및 귀어귀촌 정착 서비스 지원 확충, 내수면 관련단체 육성 및 소비활성화 등의 내수면 어업육성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은 수산업적인 측면에서 내수면 양식어업과 어로어업 통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2) 내수면 어업 육성 및 낚시산업 선진화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산업 육성에 따른 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 선진화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을 〈표 3-1〉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새롭게 도입하여 현재까지 큰 성과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지원사업은 강마을 지역 활성화와 연계하여 어업여건 개선과 내수면 환경 개선과 낚시관계자들의 역량강화와 감시체계 도입을 통해 사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내수면 양식단지, 유휴저수지 자원화,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표 3-1〉 내수면 어업 및 낚시산업 선진화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내용
내수면 어업 육성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국고보조 80% 11개소(5억)	- 인공산란장 설치비 -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분석비 (사업비 10%)
	어도 개보수사업	국고보조 50% 전국 5,223개소	- 어도 개보수 공사비 - 모니터링 사업비(투자효과 분석) - 어도 유지관리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50% 창업희망자	- 양식단지 기반조성(3년) - 양식장 시설(자부담, 융자 1%)

구분	사업명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내용
내수면 어업 육성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국고보조 50% 해당 지자체	- 어류서식 및 산란환경 조성시설 - 수산종묘 방류·육성·관리 - 어로어업 위한 다기능부잔교 등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 센터 설립	민간사업자 보조 50% 민물고기 유통판매(주)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조성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 30% (공유수면)	- 환경 정화사업 (내수면 10㏊당 10백만원) - 환경오염방지사업(화장실, 수거함) - 안전, 환경 구축사업
	낚시 전문교육	국고보조 100% 전문기관 지정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 대상 교육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국고보조 100% 민간기관 지정	-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에 필요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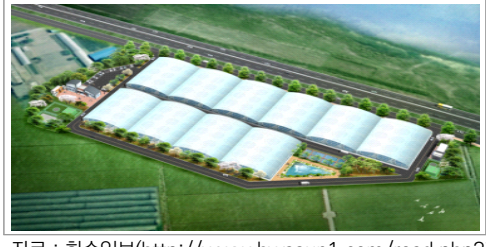
자료 : 해양수산부, 2017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침서의 내수면 관련 사업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정리함

가.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해양수산부는 내수면 양식산업이 지역별, 품종별로 편중되어 고가품종 위주로 발전하고 있어 시·군 단위 계획으로 주요 수계에 산재해 있는 내수면의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자체 협력을 통해 거점별·유형별 내수면 특화품종별 양식단지를 시범사업으로 2개소 추진 중에 있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생산지형·소비지형·거점유통형 등으로 거점별·유형화 전략으로 특화된 품종별 양식단지로 추진된다. 내수면 양식단지는 지역별, 품종별 양식업체를 조직화 및 규모화하고, 기본양식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6차산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내수면 양식단지와 지역별 내수면연구소 연계를 통해 종자, 사료개발, 가공기술 등 내수면 양식 클러스터를 추구한다.

〈그림 3-1〉 내수면 양식단지 시범사업 현황

화순군 내수면 양식단지



괴산군 내수면 양식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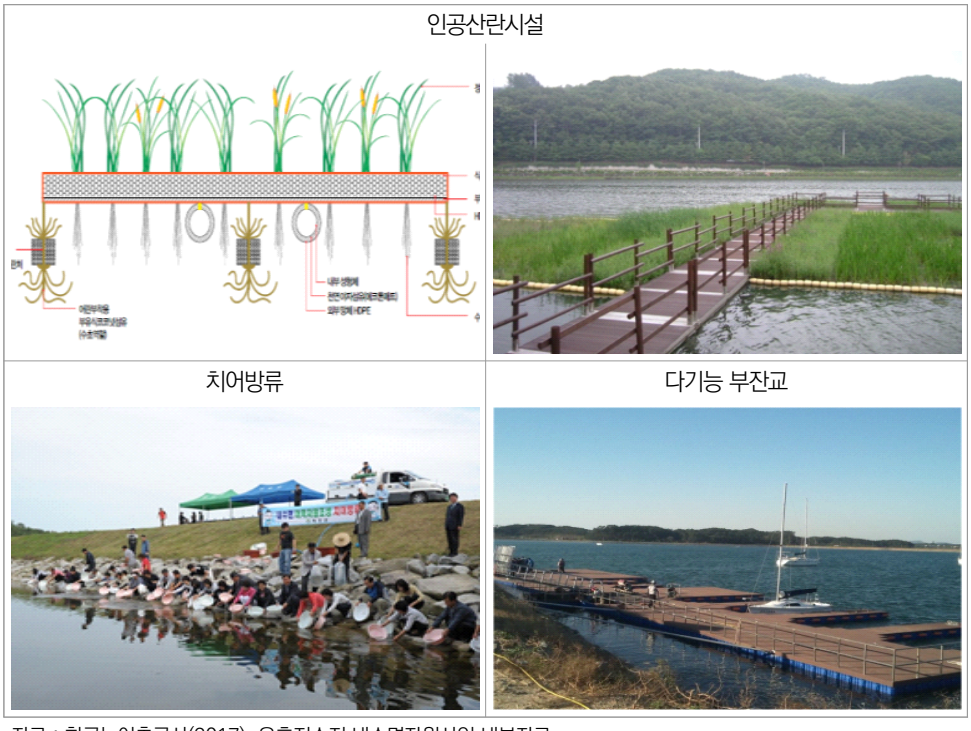


자료 : 화순일보(http://www.hwasun1.com/read.php3?aid=146452404811300t1, 검색일: 2017.05.30.),
충북일보(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20153, 검색일: 2017.05.30.)

나.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은 전국에 14,000여 개의 저수지가 농업 및 생활용수로만 활용했던 제한적 시각을 수산업 등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사업은 기존 내수면어업계 뿐만 아니라 유휴저수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내수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2개소는 기존 어업계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정착 이후에는 어업계 신설 등 어업활동을 기반으로 강마을의 확장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2〉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현황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2017), 유휴저수지 내수면자원사업 내부자료

다.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

내수면어업은 연간 3만 톤 가량의 국내생산으로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이 취약하다. 특히,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보와 소비자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위생·안전 유통체계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1차 산업 중심의 강마을이 6차산업화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도시 주변의 소비시장과 판로구축 확대는 미래 내수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다.

3) 5대강 수계별 지역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부는 내수면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5대강 수계별 대표품종 발굴을 통해 지역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 정책방안은 5대강 수계의 고유한 토속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관광, 서비스산업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역 활성화는 5대강의 강마을의 고유한 자원을 6차 산업화로 개발하여 어업생산, 제조·가공, 유통·판매, 서비스를 융·복합시킴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

2.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

1) 산천어 축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가. 개요

화천군은 인구 23,000명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적 기반이 부족하며, 각종 개발규제에 묶여 오랜 기간 낙후지역으로 머물렀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 평화의 댐 증축공사로 인한 파로호 물 빼기 작업으로 낚시 관광객이 감소하고, 군부대 외출 및 외박 자제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더욱이 화천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은 관광자원이 없어 주로 자연관광 또는 안보관광에 국한되었다. 이에 2002년 주민 및 지자체 공무원이 주축이 된 얼음나라화천 축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지속적인 모임 및 회의를 통하여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결빙이 이루어지는 자연·환경적 특성과 지역자원인 산천어를 활용하여 2003년부터 산천어 축제를 개최하였고, 여름에는 쪽배축제를 개최하였다.

나. 거버넌스

(1) 재단법인 나라

산천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재단법인 나라이며, 2005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2011년 법인명을 바꾸면서 현재의 법인명으로 변경되었다. (재)나라에는 2명의 화천군 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축제 계획, 운영, 성과 등 축제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재)나라는 매년 산천어 축제 성과평가를 통하여 축제 만족도, 당해 연도 축제의 한계점 및 향후 반영사항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차년도 축제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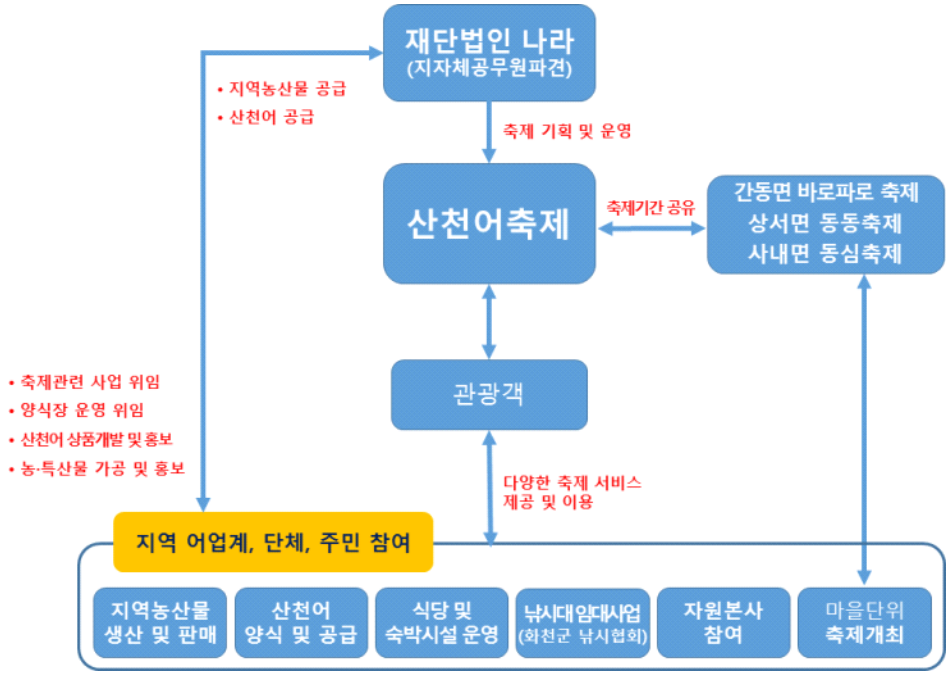
(재)나라는 산천어 축제가 활성화되면서 산처어의 안정적인 자원공급을 위해 산천어 양식장을 지역주민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특산품의 제품개발 및 포장판매, 산천어관련 식품개발을 통하여 화천군의 특산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산천어 축제 이외의 사업으로는 여름축제인 쪽배축제, 에어링산천의 도입으로 겨울철에 편중된 지역축제를 연중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 지역주민, 단체, 어업계

화천 산천어 축제에는 지역주민 및 지역 내 단체 등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축제사업에서 개별사업으로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다. 먼저 지역주민은 지역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재)나라에서 개발한 지역특산물 및 가공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산천어축제에 필요한 산천어를 양식하여 공급하거나 (재)나라를 통해 건설된 양식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축제 시 식당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낚시대 임대사업의 경우, 지역자체 낚시협회를 설립하여 지역주민 중 낚시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산천어 축제에서 낚시대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주변 면단위 지역에서는 마을 주도의 소규모 축제를 산천어 축제와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화천군 내에 소규모 축제는 간동면 바로파제 축제, 상서면 동동축제, 사내면 동심축제 3개가 있다. 이들 3개의 축제는 규모가 작지만 산천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치할 수 있도록 (재)나라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사랑방 마실 프로그램”으로 명명하여 산천어 축제의 한 축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그림 3-3〉 화천군 산천어축제 거버넌스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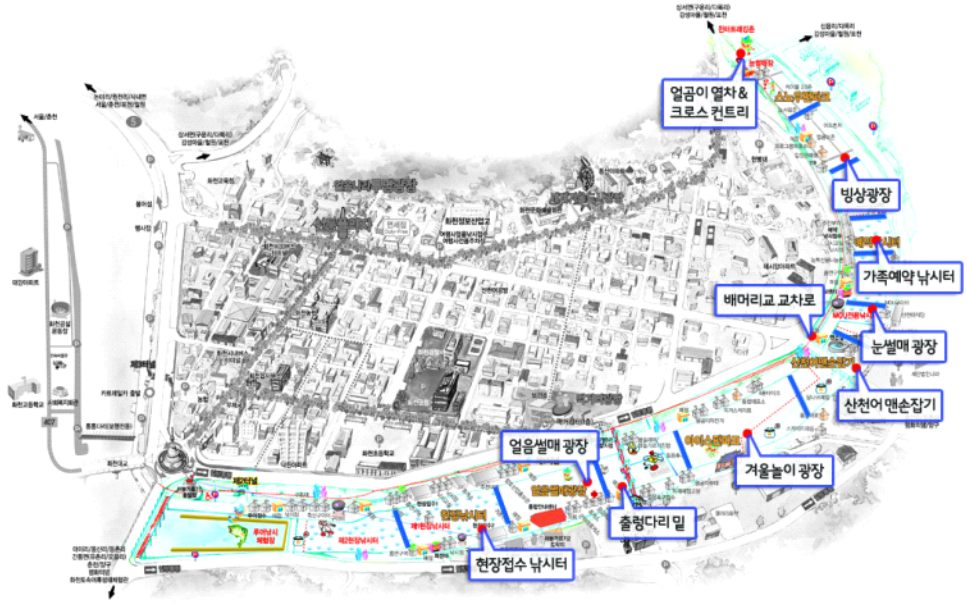
다. 사업내용

(1) 산천어축제

산천어 축제는 화천군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연간 평균 방문객이 150만 명이 넘어 세계 4대 겨울축제[24]로 평가될 만큼 성장하였다. 또한 2011년 "Lonely planet"과 "CNN"에서 세계 겨울의 7대 불가사의로 선정되어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문화관광부는 화천 산천어 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선정함으로써 국가대표 축제로 급부상하였다.

24) 캐나다 퀘백 윈터 타니발, 일본 삿포로 축제, 중국 하얼빈 빙설제, 화천 산천어 축제

〈그림 3-4〉 화천군 산천어축제 조감도



자료 :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http://www.narafestival.com/01_icenara/?wr_id=6, 검색일 : 2017.5.15)

산천어 축제는 2㎞가 넘는 화천천에 각종 레저 및 체험시설을 만들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1월에서 2월 사이에 총 23일 동안 개최된다. 산천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① 산천어체험(얼음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② 눈체험(눈썰매, 빙판스포츠, 야간 얼음광장 등) ③ 문화이벤트(각종공연, 콘테스트) ④ 선등거리페스티벌 ⑤ 연계행사(실내얼음조각광장, 커피박물관, 천문대 등) ⑥ 사랑방마실 프로그램(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등이 있다. 특히, 사랑방마실 프로그램은 화천군 인근지역 3개의 면에서 마을주민 주도의 소규모 축제(가로파로 축제, 동동축제, 동심축제)를 산천어축제 기간에 동일하게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연계함으로써 산천어 축제의 파급력을 통해 인근 지역마을의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림 3-5〉 화천군 산천어축제



자료 : 티스토리(http://samsamstory.tistory.com/1182, 검색일 : 2017.5.15.),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72948, 검색일 : 2017.5.15.)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2) 쪽배축제

화천은 한강의 최상류지역으로 현재 댐으로 인해 물길이 막혀 있으나 고려시대부터 인천에서부터 소금배가 다니던 남강나루가 있었다. 화천군은 쪽배축제를 고려시대의 소금배를 재현하여 쪽배라는 이름으로 부원하여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현하고, 지역의 특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였다. 쪽배축제는 붕어섬 일원에서 7~8월에 걸쳐 16일 동안 개최되며, 주요 프로그램에는 체험프로그램(월엽편주, 카약, 카누, 범퍼보트, 물놀이장, 하늘가르기 등)과 문화이벤트(쪽배콘테스트, 문화공연, 하트터널 등)가 있으며 화천군 군부대 및 사회단체 용선대회, 세계평화안보 문학축전 등의 행사들이 쪽배축제와 연계되어 개최된다.

〈그림 3-6〉 화천군 쪽배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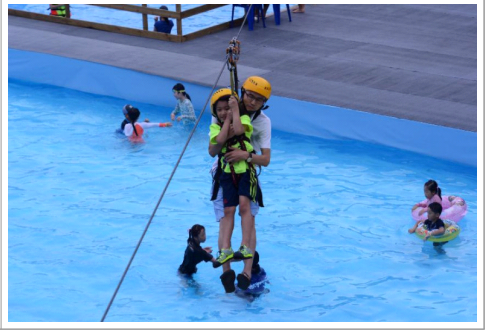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p/content/view.jsp?cid=2425196, 검색일 : 2017.05.15.)

(3) 에어링산천

화천군은 단기 축제로는 지속적인 지역발전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축제 이외의 기간에도 지역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재)나라는 2011년 산천어축제 기간 이외의 기간에 운영할 수 있는 육상 및 수상프로그램을 만들어 4~10월 까지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육상프로그램으로는 하늘가르기, 자전거, 스마트가이(전동스쿠터)체험이 있으며 수상프로그램은 수상자전거, 카약, 카누, 범퍼보트 체험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3-7〉 에어링산천축제

토마토 축제	쪽배축제
	
	

자료 : 화천군(http://www.ihc.go.kr/photo/selectPhotoInfoWebList.do?key=2124&ctgryNo=124&pageUnit=48, 검색일 : 2017.0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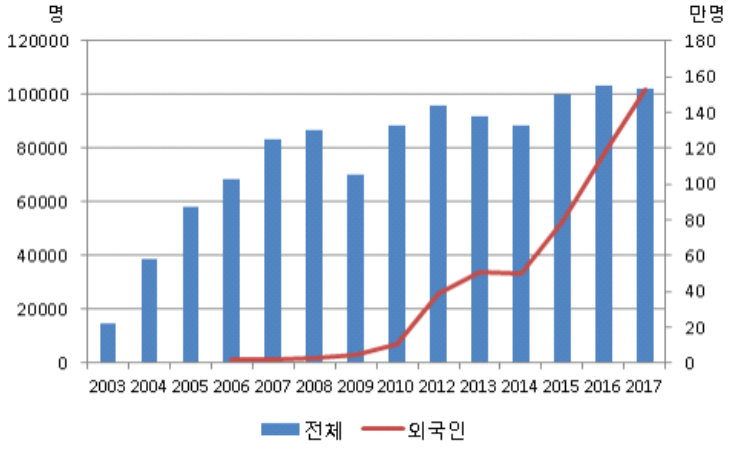
라. 사업성과 및 시사점

(재)나라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가장 사업성과가 두드러지는 것은 산천어 축제이며, 세계적인 4대 겨울축제로 선정될 만큼 지역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루어낸 지역 활성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방문객 추이

산천어 축제 방문객은 2003년에 22만 명에서 2006년 10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년 1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이후 축제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 수가 2006에 1,200명에서 2017년에는 102,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3-8〉 화천군 산천어축제 방문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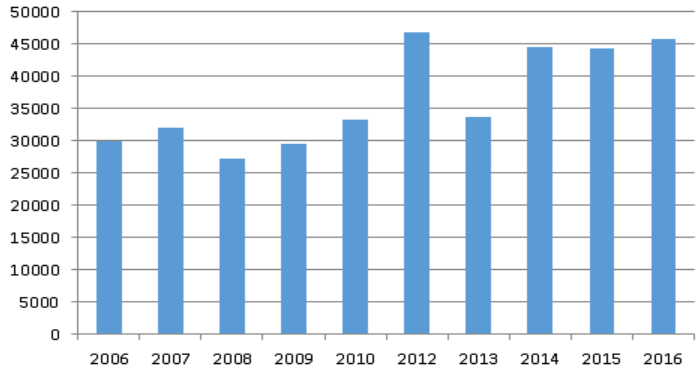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각 년도의 "화천 산천어축제"의 설문조사 및 평가를 저자가 종합하여 재작성함

(2) 방문객 지출

산천어 축제에서 1인당 방문객의 평균 지출금액은 2006년 29,947원에서 2016년 45,873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먹거리 및 체험이벤트 도입 등으로 관광객의 지출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림 3-9〉 화천군 산천어축제 방문객 지출금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각 년도의 "화천 산천어축제"의 설문조사 및 평가를 저자가 종합하여 재작성함

2) 단양 팔경과 쏘가리를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가. 개요

단양군의 남한강은 충청북도 최북단 지역에 위치하고 백두대간의 소백산과 소백산맥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는 남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길이는 23.7㎞에 이른다. 이 지역은 83.7%가 산악지대이고, 경지면적은 11.2%에 불과하여 집단취락 및 도시지역만 일부의 분지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다[25]. 단양군은 남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민물고기가 생산되며, 어업계는 어업활동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어업구역을 구획하여 어로활동은 물론 자율관리어업을 통해 어업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수상레저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한강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낚시관광객의 증가로 생활쓰레기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5) 단양군 홈페이지, 단양군 특성 인용 (https://www.danyang.go.kr/dy21/%ED%96%89%EB%B3%B5%ED%95%9C%EB%8B%A8%EC%96%91/%ED%8A%B9%EC%84%B1, 검색일 : 2017.10.10.)

〈그림 3-10〉 단양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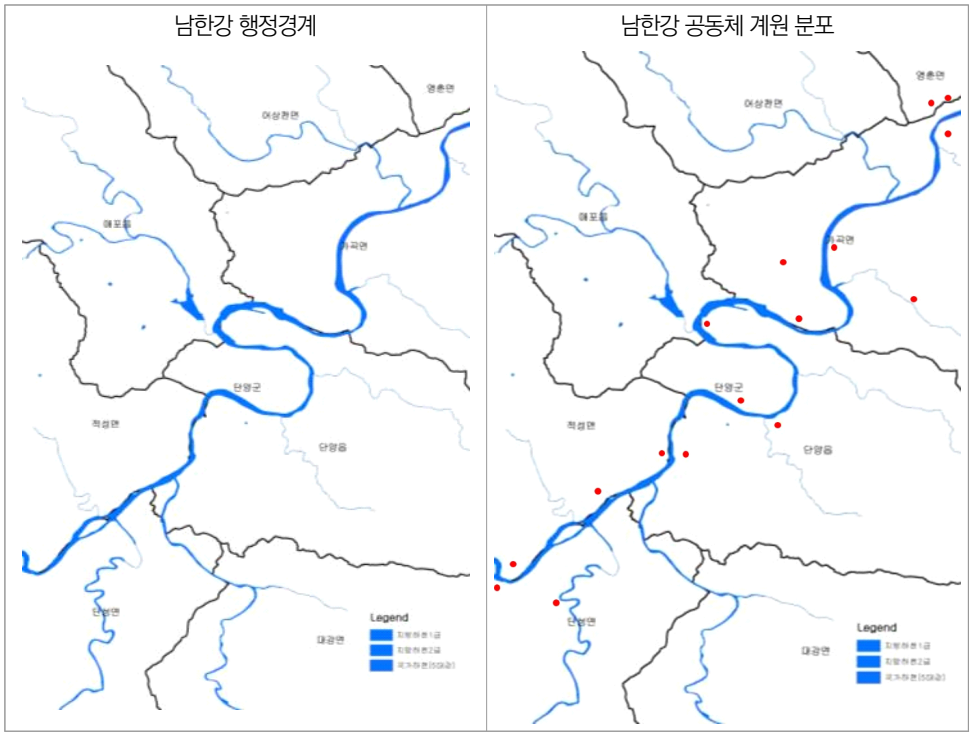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관광공사, 단양군 양백산 전망대 전경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cheongsachorong/SpecialTheme/choBoard/view.kto?id=421346, 검색일 : 2017.05.27.)

나. 거버넌스

(1) 남한강 자율관리공동체

단양군에는 단양어업계, 단양 남한강어업계 2개의 어업계가 존재하며, 각 어업계원의 수는 8명, 10명이다. 남한강어업계에서 이를 묶어 2009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로 출범시키면서 하나의 어업계 개념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로구역도 조직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18개 구역으로 구획하여 어로어업을 하고 있다. 연간 주요어종 생산량으로는 쏘가리 12~13톤, 대농갱이 10~20톤, 잡물고기 40톤, 뱀장어 3톤 정도이며,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치어양식 및 방류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1〉 남한강자율관리공동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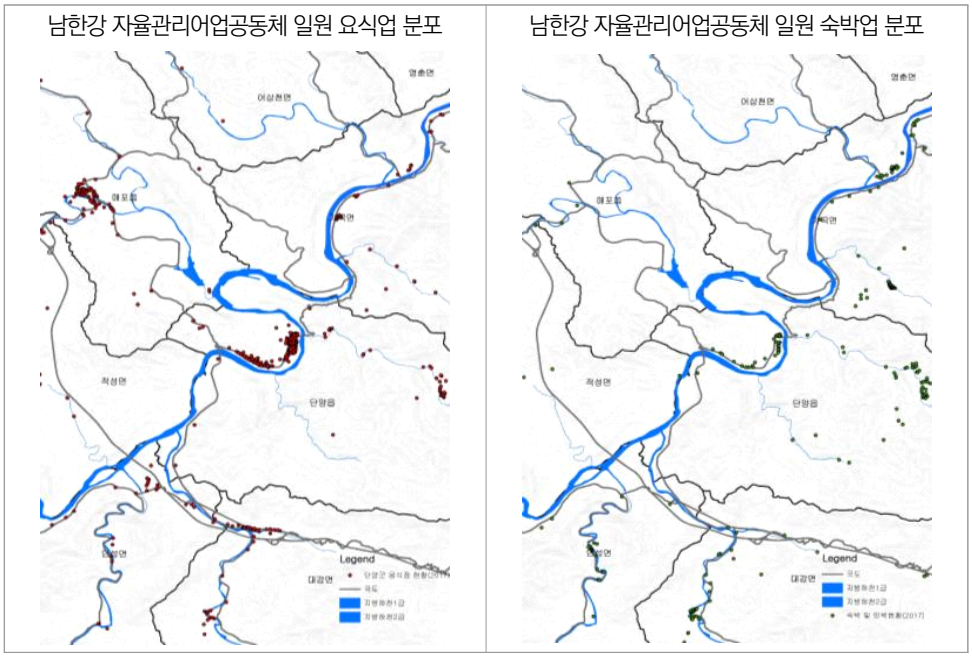


자료 : 단양군, 남한강어업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함

(2) 요식업 및 숙박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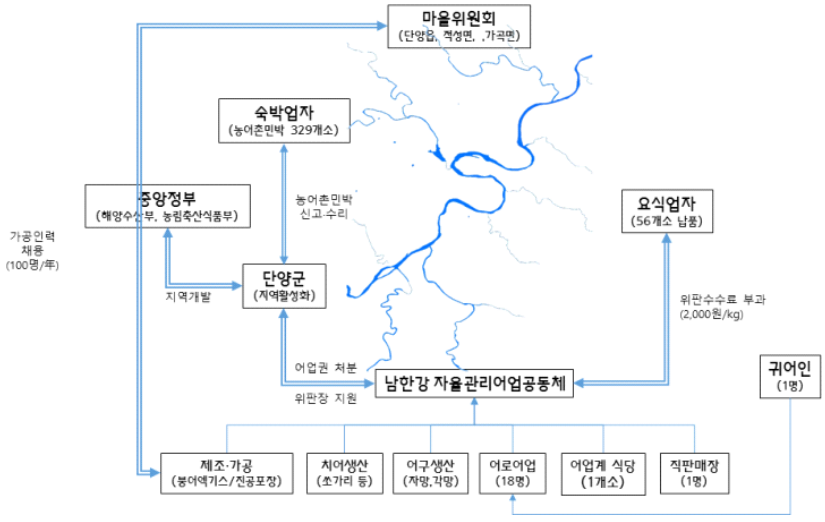
남한강에서 어획된 모든 수산물은 어업계 직판장으로 수집된 후 주변의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판매되는데, 식당이나 숙박업소는 민물고기 구매 시 kg당 2천원의 위판수수료를 직판장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어업계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신선한 민물고기를 지역 내 각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식당 및 숙박업자들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민물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위판수수료는 공동사업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고 인건비로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순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림 3-12〉 남한강어업계의 요식업·숙박업 협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자료 : 저자 작성

〈그림 3-13〉 남한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마을의 거버넌스



자료 : 저자 작성

다. 사업내용

단양은 남한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주축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어로어업 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조직원들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① 직판장 운영, ② 치어생산, ③ 어구생산, ④ 식당운영, ⑤ 제조·가공 등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직판장은 2009년 정부보조금(4.8억)을 지원받아 건설되어 운영 중이며, 단양군내에서 어획되는 모든 민물고기는 직판장으로 수집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지역 식당 등에 독점 납품된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민물고기 가격을 안정화시켜 조직원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치어생산은 안정적인 민물고기 어획을 위하여 공동체 자체적으로 치어 양식장을 건설하여 치어방류사업과 함께 진행 중이며, 어구 생산 역시 필요한 어구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어구제작 부분을 공동체 사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직판장 2층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서 직접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는 저장시설 및 진액(엑기스) 가공시설을 갖추고 민물고기를 가공하여 진공포장한 뒤 전국 식당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라. 사업성과 및 시사점

남한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사업성과는 수익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2016년 기준 조직원 구성원 당 배당금액이 4천 5백만 원 정도였으며, 어업소득이 5천만 원 정도로 연평균 1인당 1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추가 신규 사업을 위한 자율관리 어업공동체의 적립금이 마련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양식장의 추가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다양한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연간 지역고용효과는 100명 정도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

26) 각 자료는 남한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과의 면담내용에 근거함

3) 예당 낚시관광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례

가. 개요

예당저수지는 백제의 마지막 현장으로도 알려진 대흥면 일원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964년 12월 수몰되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로 전국 낚시대회 개최 등 국내에서 낚시업이 가장 오래되고 활성화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당저수지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저수지 지형으로 산란·서식환경이 우수해 가물치, 떡붕어, 메기, 붕어, 동자개, 잉어 등이 많이 잡혀 낚시인들로부터 선호되는 지역이다.

예산군은 예당저수지를 관광지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과 매년 전국낚시대회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예당저수지 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편, 예당내수면어업계는 어업계원이 총 45명으로 이 중 28명은 좌대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7명은 통발, 연승, 자망 등 어업활동을 통해 비교적 높은 어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림 3-14〉 예당저수지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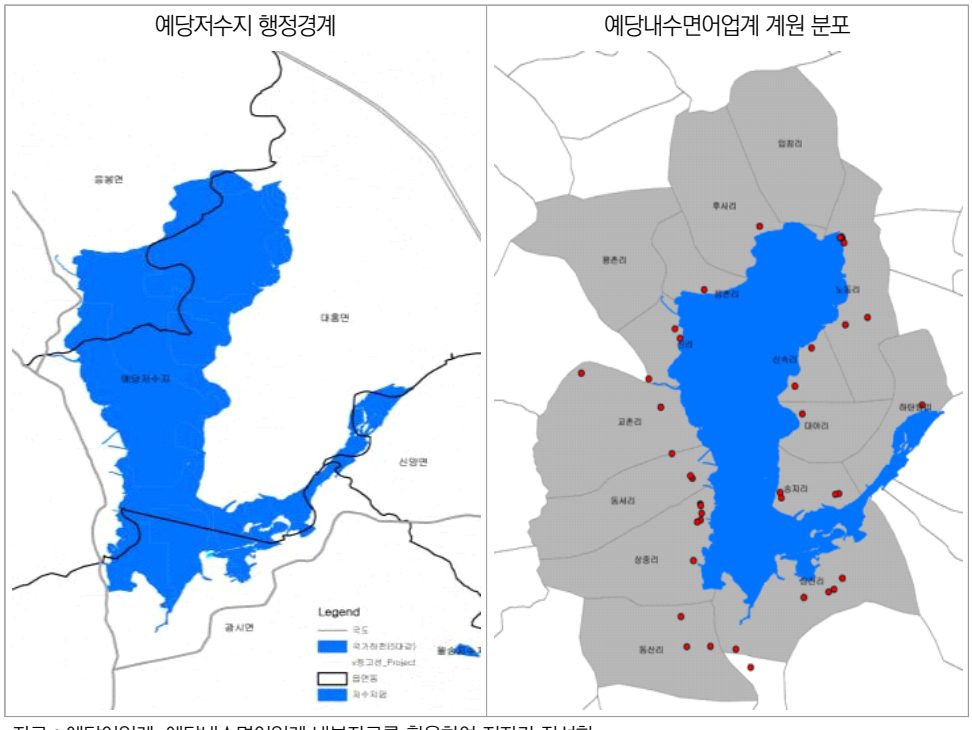
자료 : 예당군청(http://www.yesan.go.kr/tour/sub01_01_01_06_01.do, 검색일 : 2017.05.24)

나. 거버넌스

(1) 예당내수면 어업계

예당저수지의 수면을 어로어업과 낚시업을 주요 경제활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예당내수면어업계는 45명이 4개 읍면에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로어업과 낚시업은 예당저수지의 주목적인 농업용수 확보 이외의 목적 사용이기 때문에 어업과 낚시업은 수면관리자와 어업권처분의 각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예산군청과의 행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당내수면어업계는 어업, 낚시업 활동에 필요한 수면구역을 구획하여 운영하고 있다. 낚시터는 현재 280여 개의 수상좌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림 3-15〉 예당내수면 어업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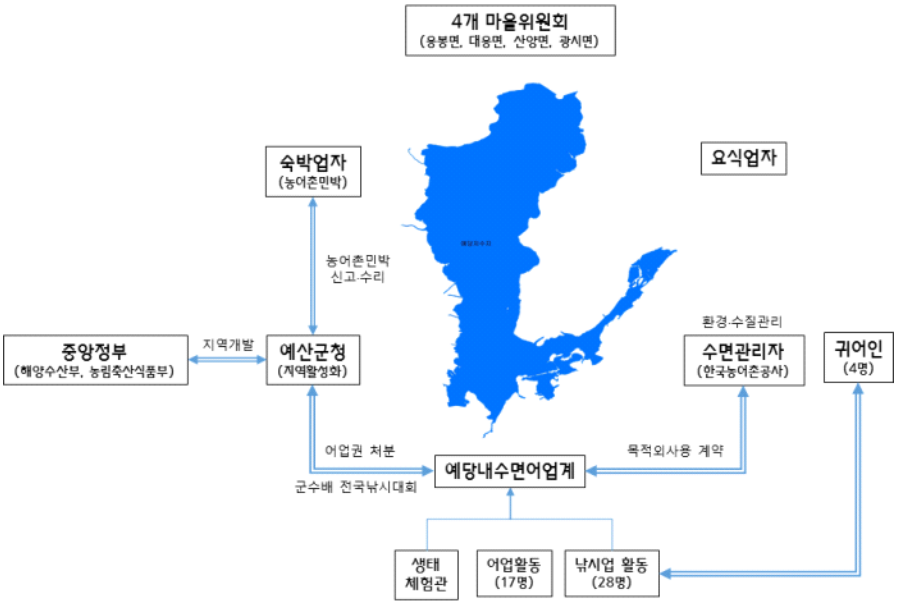


자료 : 예당어업계, 예당내수면어업계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

(2) 예산군

예산군은 예당저수지 일원의 생태, 역사, 문화 등 핵심적인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관광단지, 생태탐방로, 전국낚시대회 등 관광인프라 확충과 활성화를 위한 핵심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예당저수지 일원의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예산군에 농어촌민박 신고를 통해 수려한 자연경관과 낚시관광을 목적으로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예산군은 최근에 생태공원 251억 원, 예당저수지 기반시설조성사업 78억 원의 계획을 확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배후지역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예당저수지는 수도권 인근의 유명 관광지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예산군은 안정적인 어업자원 확보 및 지속적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치어방류사업과 유해어종 퇴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3-16〉 예당저수지 강마을의 거버넌스



자료 : 저자 작성

다. 사업내용

예당내수면어업계는 예당저수지 수면적 10,887,000㎡ 중 4,000,000㎡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하여 가옥형 좌대낚시터를 28명의 어업계원이 각각 10개씩 설치하여 저수지 수제선(水際線)을 따라 총 28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좌대낚시터는 이를 운영하는 각 사업자(어업계원)들이 시설운영과 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예산군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

〈그림 3-17〉 예당저수지 낚시업 지역브랜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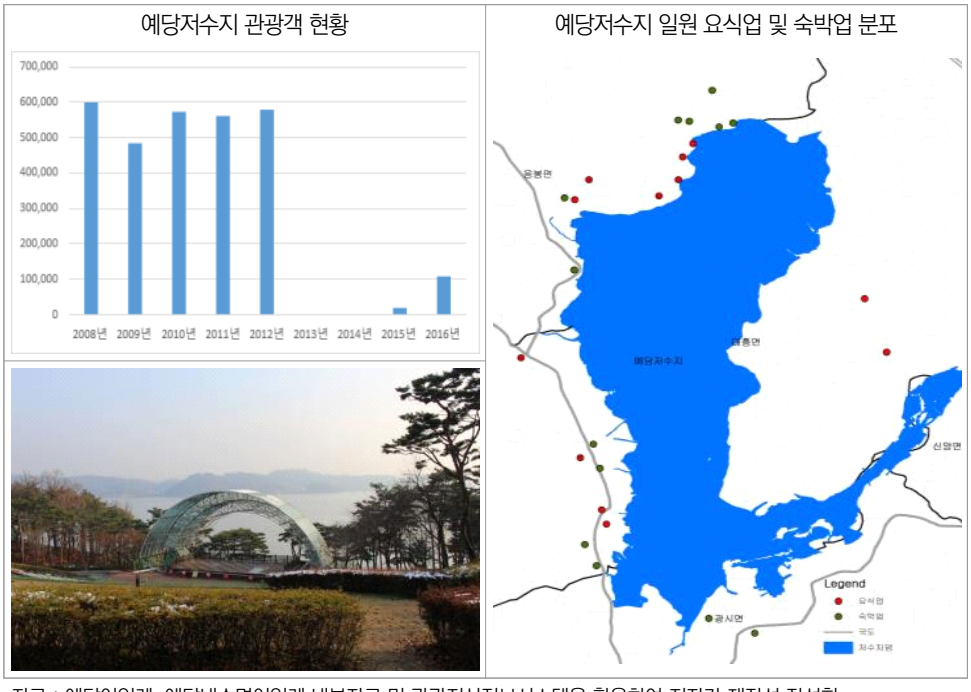
좌대낚시터 및 저수지변 데크시설 조성	예산군수배 낚시대회
	
	
	

자료 : 저자 촬영(2017.05.16.) 및 예산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yesan.go.kr/cop/bbs/BBSMSTR_000000000281/selectBoardArticle.do?nttId=122355&pageIndex=11&searchCnd=&searchWrd=, 검색일 : 2017.05.25)

라. 사업성과 및 시사점

예당저수지는 낚시업이 발달하고 지역브랜드가 파급되면서 저수지 주변에 요식업과 숙박업(농어촌민박)이 증가해 저수지 일원 4개의 면지역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예당저수지 일원 관광객은 2008년 이후 연평균 50만 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예산군이 국민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예당저수지 내 낚시 관광객은 2016년 기준 109,345명으로 나타났다. 예당저수지 일원의 요식업과 숙박업은 예당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수산자원에 기반하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8〉 낚시업 등 서비스업을 통한 지역활성화



자료 : 예당어업계, 예당내수면어업계 내부자료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작성함
저자 촬영(2017.05.16.), 및 관광지식정보시스템(http://www.tour.go.kr/, 검색일: 2017.05.25)

제2절 해외사례

1. 해외 정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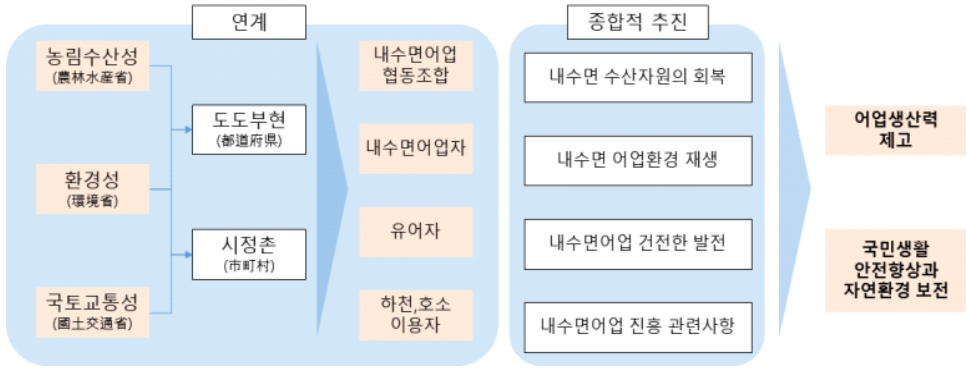
해외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동향은 일본의 내수면어업 진흥 및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 정책과 유럽의 어촌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 내수면어업 진흥 및 강마을만들기 정책

가. 내수면어업 진흥

일본은 중앙부처(농림수산성, 환경성, 국토교통성)와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등의 공공영역이 민간영역(내수면어협, 어업인, 유어인 등)과 연계하여 주체별 역할분담을 통해 내수면어업이 가진 수산물 공급기능 및 다면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대책은 크게 ⅰ) 내수면 수산자원의 회복, ⅱ) 내수면 어장환경의 재생, ⅲ) 내수면어업 건전한 발전, ⅳ) 내수면 어업 진흥 관련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 3-19〉 내수면어업 진흥 대책 개요



자료 : 일본 수산청 내부자료(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를 활용하여 재작성

(1)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

민관 협의체는 상호 간 연계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증대는 향토 고유종의 산란장 조성, 효율적인 방류 등 종묘생산 기술 개발, 중간육성시설 정비 등의 지원과 뱀장어 등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의 대량생산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 특정 외래생물으로부터 피해 방지대책

베스, 블루길 등 특정 외래 생물에 의한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래 어종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의 기술 개발과 구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기쇼크 보트, 외래어종 낚시대회, 인공산란장 설치 등을 도입하고 있다.

〈그림 3-20〉 특정 외래어종 구제 대책



자료 : 일본수산청, 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초안), p.3를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jfa.maff.go.jp/j/kikaku/shingikai/pdf/soan.pdf, 검색일 : 2017.05.27.)

(3) 내수면 어종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내수면 수산자원에 대한 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방지 대책을 위한 진단법과 백신 등 치료기술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의 전염성 질병 발생과 새로운 질병에 대한 정보 등 동향파악을 통해 사전적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4) 내수면 수질의 확보

일본 정부는 내수면의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강·하천으로 유입되는 배출수를 촌락의 인구밀도에 따라 유입되는 생활하수를 관리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인구밀도가 현저하게 낮아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은 개별 정화조를 통해 내수면의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의 취락지역은 농업집락배수 정비 등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등 취락형태와 인구밀도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

〈그림 3-21〉 취락구조와 인구밀도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도입과 내수면 수질 관리방안



자료 : 일본수산청, 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초안), p.5
(http://www.jfa.maff.go.jp/j/kikaku/shingikai/pdf/soan.pdf, 검색일 : 2017.05.27.)

(5) 내수면 수산자원 육성을 위한 시설 정비

일본은 하천의 수량 확보를 위해 설치된 보는 어류의 이동 경로 확보와 수량·수질을 포함한 서식 환경의 보전을 고려한 어로의 설치, 개량 및 적절한 유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도와 하천정비 등의 사업은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육 또는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특히 은어, 게류, 붕어·잉어 등의 산란장과 다양한 수생생물의 서식환경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림 3-22〉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어도 개설 및 정비



자료 : 일본수산청, 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초안), p.7를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jfa.maff.go.jp/j/kikaku/shingikai/pdf/soan.pdf, 검색일 : 2017.05.27.)

⑹ 내수면 어업경영 육성 및 상품개발 지원

일본정부는 내수면 어업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젊은 인재의 육성 및 확보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신규 어업취업자 대상 취업 상담회 개최, ②신규 장기 현장 연수프로그램 운영, ③내수면 어업기술 및 경영 강습회, ④내수면 자원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상품개발, ⑤내수면 수산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방안, ⑥판로 확대 등 6차산업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3〉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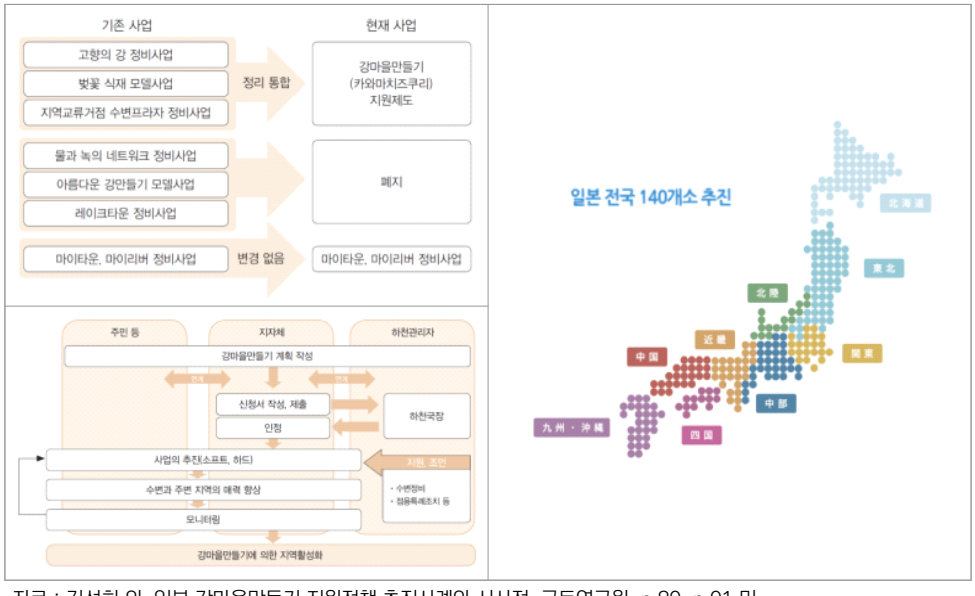


자료 : 일본수산청, 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초안), p.11를 저자가 재작성함
(http://www.jfa.maff.go.jp/j/kikaku/shingikai/pdf/soan.pdf, 검색일 : 2017.05.27.)

나. 강마을만들기(가와마치즈쿠리)

일본 국토교통성이 관장하는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은 1985년부터 시행되었던 '고향의 강 정비사업', '아름다운 강만들기 모델사업' 등의 하천정비사업을 2009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전국에 약 140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하천의 수변공간과 역사, 문화, 관광 등 주변지역의 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자체 주도로 상향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강마을만들기 사례들은 친수공간(이벤트 광장, 오픈카페 등) 조성을 통한 지역의 매력성을 높이고 치수 안전를 위한 사업 위주로 추진되었다. 일부 사례들은 은어, 가마우지를 이용한 체험관광 등 지역의 내수면 수산자원의 역사성과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하는 강마을만들기 사업발굴과 이를 통해 지역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림 3-24〉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자료 : 김선희 외, 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p.89, p.91 및
일본 국토교통성 강마을만들기
(http://www.mlit.go.jp/river/kankyo/main/kankyou/machizukuri/map.html, 검색일 : 2017.05.27.)

(1) 역사문화의 강마을만들기

미야코노조시(都城市)는 미야기현 남서쪽에 위치한 인구 16만 명의 전원도시로 그 중심부는 하천이 관통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미야코노조시는 하천주변의 역사자료관(중세 성곽 성터)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하천 주변의 환경과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강의 역(驛)" 조성과 하천의 지속가능한 물 관리 계획을 마련하였다. 시는 강마을만들기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특히 경관조성계획 "물의 景"으로 수변공간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연계 등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3-25〉 미야코노조시 강마을만들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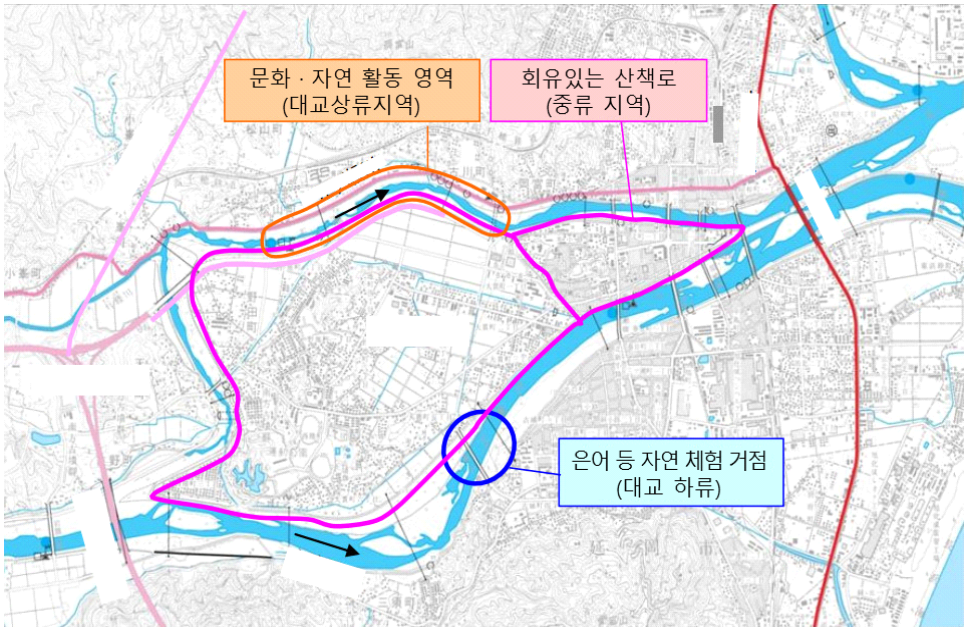
자료 : 国土交通省九州地方整備局, 都城かわまちづくり計画書,, 2015, p.21

(2) 은어를 활용한 강마을만들기

미야자키현(宮崎県) 노베오카시(延岡市)와 지역주민들은 지역 내 특유의 내수면 어업의 역사가 있는 은어를 복원하기 위한 하천정비와 지역 활성화 등 강마을만들기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였다. 이 지역의 은어는 1693년부터 지역의 특산물로써 약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강변에서 연어를 굽는 풍경은 독특한 내수면어업 문화로 남아 있다.

노베오카시는 교류 광장 조성을 통해 은어 포획 시 관광객들의 견학이나 식사 제공과 불꽃 축제 관람 장소, 주변 역사, 관광자원의 연계성 제고 등 복합적인 지역문화 교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그림 3-26〉 노베오카시(延岡市) 강마을만들기 사례



자료 : 天下一五ヶ瀬かわまち創ろう会 , 天下一五ヶ瀬川かわまちづくりアクションプラン, 2013, p.3

2) 유럽연합의 어촌지역 네트워크 지역개발 정책

가.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

어촌지역 네트워크는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럽연합에서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사업(C.L.L.D)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을 연결시켜주는 네트워크 조직체이다. 어촌지역 네트워크에서는 회원국 지역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자문역할을 하는 기술지원팀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해양수산부(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산하에 설립하고, 지역 공동체가 지역사회 주도 지역개발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있다. 이 기술교육팀은 유럽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들을 연결시켜 주는 "학습네트워크(learning network)"를 구축하고 해양수산이사회(DG-MARE), 회원국 행정기관, 국제수산네트워크,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은 어촌공동체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어촌 및 내수면 어업지역도 이 사업 틀에서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럽연합 해양수산기금(EMFF,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의 기금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 또한, 지역개발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업의 유형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유럽연합기금의 지원도 받고 있다.[27]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지역 특성과 지역이 보유한 자원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나 정부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전형적인 상향식 지역개발 사업이다.

다.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 Fisheries Local Action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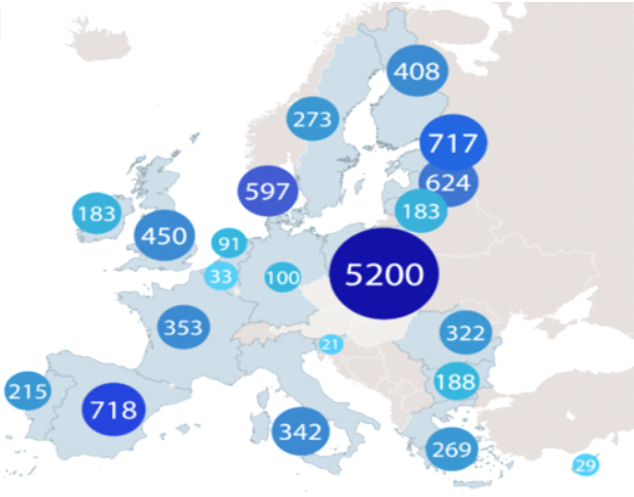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개발주체가 되는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은 어촌 또는 내수면 어업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전략을 수립하

27) 지역개발기금으로 EMFF(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ESF(European Social Fund),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AFRD(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등이 있다.

여, 지역의 다양한 사업 주체들과 협력·연대하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조직이다. 유럽연합의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21개 국가에 312개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에서 총 11,316개(2015년 5월 기준)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7〉 국가별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및 공동체주도 지역개발사업 현황

국가	지방정부	FLAGs	사업 (Project)
벨기에	1	1	33
불가리아	4	6	188
키프로스	1	1	29
덴마크	14	18	597
에스토니아	12	8	717
핀란드	**9**	8	408
프랑스	8	11	353
독일	5	23	100
그리스	8	11	269
아일랜드	14	6	183
이탈리아	13	43	342
라트비아	5	24	624
리투아니아	6	10	183
폴란드	16	48	**5200**
포르투갈	9	7	215
루마니아	13	14	322
슬로베니아	**3**	1	21
스페인	6	30	718
스웨덴	**21**	14	273
네덜란드	6	6	91
영국	4	22	450
전체	178	312	11,316



자료 : FARNET 홈페이지(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tools/flags-2007-2013, 검색일 : 2017.05.25.)

라. 사업목표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의 사업목표는 어촌지역 사업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통의 개선, 통합브랜드 런칭, 새로운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어촌지역에 접목한 지역재생, 어촌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상품을 통하여 새로운 어촌활동을 유도한다.

셋째, 어촌지역의 경관개선, 친환경 에너지 확충 등 환경개선과 어업유산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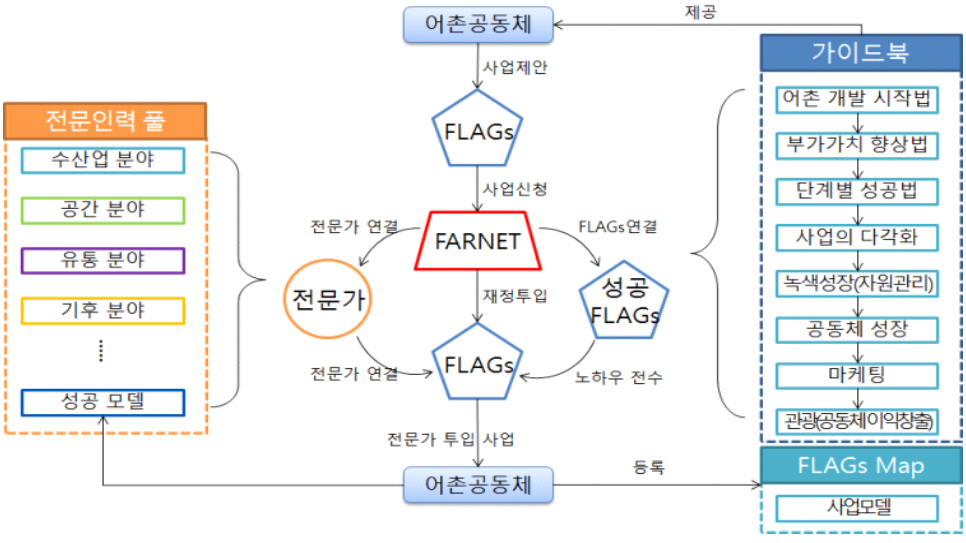
굴 및 보전, 어촌지역 내 육아·노인·교육·복지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기반 및 정주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지역의 환경·문화·사회복지의 질을 높인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다양한 경영체 조직 간에 개방·협력·연대를 통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라. 추진체계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은 지역공동체가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어촌 및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가이드북 및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구상된 사업은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에 의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유럽연합에 산업신청을 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신청 사업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사업사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사업관련 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킨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정화 되면, 사업모델 사례로 등록되어 다른 지역공동체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28〉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 사업추진 프로세스



자료 : 박상우 외, 새로운 어촌종합개발의 개발방향 및 로드맵에 관한 정책연구, 2016, p.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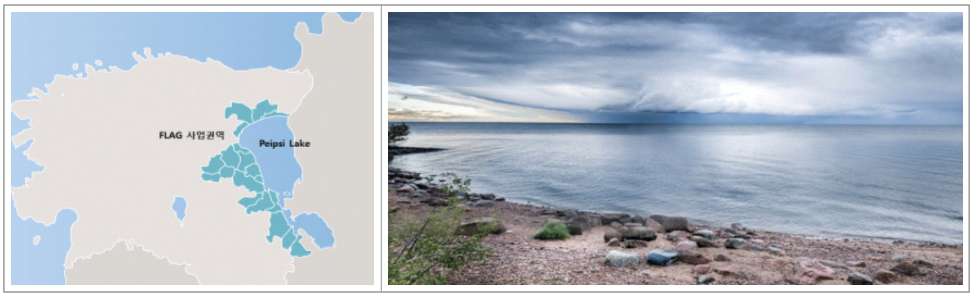
2. 선진국의 강마을 활성화 사례

1)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호수(Peipsi Lake)

가. 개요

페이프시 호수(Peipsi Lake)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두 국가간 국경으로 나누어지며, 그 전체 면적은 3,555㎢로 유럽연합에서 4번째 큰 호수이다.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호수의 수면적은 1,529㎢으로 37개 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300여 명의 어업인이 주로 농어, 도미류, 모오케(burbot), 화이트피쉬(Whitefish) 등을 잡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정부가 매년 어종별로 매년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내수면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21개 코뮌(Commun)[28]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 Fisheries Local Action Group)을 구성하고, 2006년부터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 :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 사업(2007~2014년)은 수산자원관리, 내수면 어항개발 등 생산기반확충, 마케팅 강화, 관광활성화, 역량강화 등 144개 사업 추진에 410만 유로(한화 61.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3년까지 동일권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29〉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사업구역 및 전경



자료 : FARNET, FLAG Lake Peipsi 및 Globe Trotter in Estonia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fishing-festivals-activities-flag-lake-peipsi-ee, 검색일 : 2017.05.30.)
(https://www.erepublik.com/en/article/globe-trotter-in-estonia-2633676/1/20, 검색일 : 2017.0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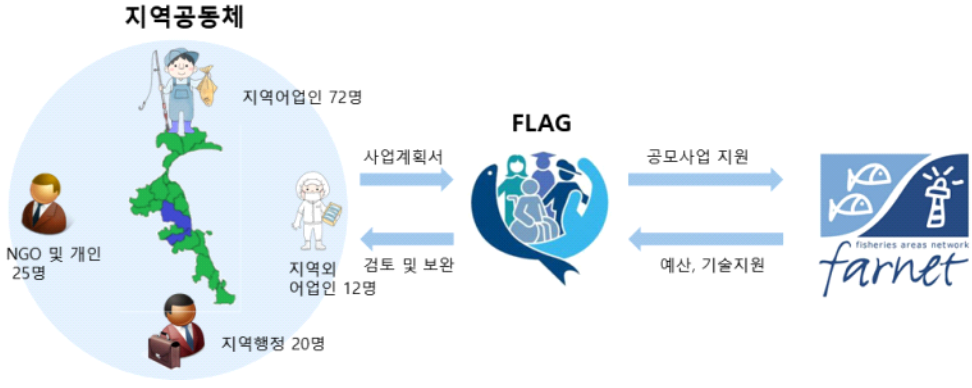
28) 코뮌(Commune)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모여 함께 살며 공동의 이익, 재산, 소규,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프랑스의 최소 행정단위를 말함.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e, 검색일 : 2017.05.30.)

나. 거버넌스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권역은 지역 내·외의 어업인과 비정부조직(NGO) 및 개인, 지역행정기관 등을 중심으로 129명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내의 사업발굴과 사업주체, 사업예산 등을 보완하는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

한편,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은 유럽연합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 Fisheries Areas Network)에 공모사업 지원요청과 연차별 사업추진 성과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일단 제안된 사업계획서는 어업지역 활동그룹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의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고 어촌지역 네트워크는 각 회원국에서 지원된 사업계획서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 뒤 예산 및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어업지역 활동그룹 역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사업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림 3-30〉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거버넌스



주 : 파랑색 표기된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참여
자료 : 저자작성

다. 사업내용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은 6개 분야(서식처, 기반확충, 마케팅, 관광, 사업다각화, 역량강화)에 1기(2007~2014년) 410만 유로, 2기(2015~2023년) 380만 유로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어항개발 등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과 어촌관광 활성화에서 역점을 두었다. 반면, 사업 2기는 사업다각화와 마케팅 등 지역공동체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프시 어촌개발이 사업초기 부족한 어업 인프라에 사업을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전략은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던 정책적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페이프시 호수는 에스토니아와 러시아가 공유하는 지역으로 두 정부 간 매년 주요 어종에 대한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여건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기 사업이 주로 어업생산기반 확충에 비중을 높게 두었기 때문에 지난 8년 간 추진된 사업성과는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못했고, 다만 2기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관리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표 3-2〉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

(단위 : 톤)

구분	1기 사업기간 (2007~2014년)	2기 사업기간 (2015~2023년)
총예산	4,100,000 유로	3,800,000 유로
서식처·산란장 보호 및 복원	-	5%
어업생산기반 확충(어항개발)	60%	30%
마케팅 및 가공	7%	20%
어촌관광	25%	20%
사업다각화	4%	25%
역량강화	4%	-

자료 : 에스토니아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 내부자료(Development Association of Peipsi Fishery Area)의 내용을 저자가 재작성함

〈그림 3-31〉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어항개발(2013년 Mihkli port)	어항개발(2013년 Varnja port)
	
저온 수송차량(2016년)	겨울 낚시축제(2017년 3월)
	
페이프시 내수면 박물관(현장조사)	지역 내수면 문화축제(현장조사)
	

자료 : 에스토니아 수산지역 활동그룹의 내부자료와 현장 방문조사를 통해 저자가 직접 촬영(촬영일 : 2017.0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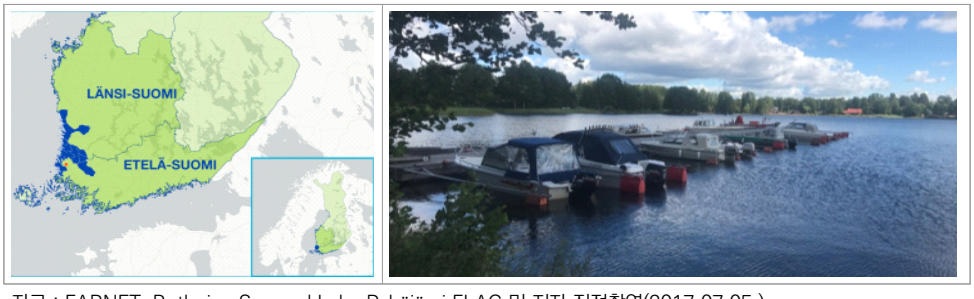
2) 핀란드 피하자비 호수(Pyhajarvi Lake)

가. 개요

피하자비 호수(Pyhajarvi Lake)는 핀란드 서부에 위치한 호수로 과거부터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지역이다. 피하자비 호수의 면적은 615㎢, 평균 수심 5.4m로 벤디스(Vandace), 연어, 민물농어, 잉어류, 민물가재 등을 주요 어종으로 하며, 약 20명의 어업인과 4개의 가공업체가 주변에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피하자비 호수에 접한 11개 행정구역(Uusikaupunki, Pyharanta, Pori, Luvia, Merkarvia, Rauma, Eurajoki, Eura, Sakyla, Koylio, Poytya)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2014년부터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핀란드 피하자비의 주민주도 지역개발 사업은 i) 내수면 향토 어종의 부가가치 제고와 남획을 개선, ii) 지역 고유어종과 어법의 이미지 개선, iii) 어업기반 인프라 확충, iv) 어업관련 정보와 네트워크 구축, v) 어업 관련 관광활동 개발 등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동 권역의 2기 사업(2014~2020년) 추진에 약 150만 유로(한화 22.7억 원)를 투입하여 어업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어업공동체 역량강화에 약 70%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들 전략은 어획된 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7% 이상 증가와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매금액을 15% 이상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32〉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 활동그룹(FLAG)의 사업구역 및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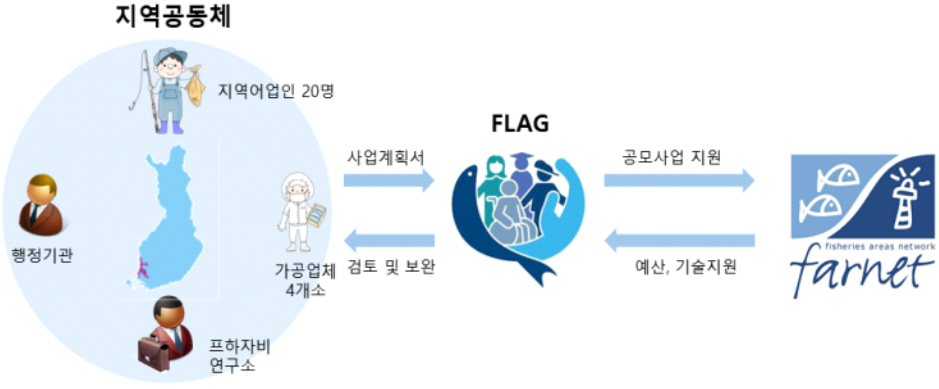


자료 : FARNET, Bothnian Sea and Lake Pyhäjärvi FLAG 및 저자 직접촬영(2017.07.05.)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flag-factsheets/bothnian-sea-and-lake-pyhajarvi-flag_en 검색일 : 2017.07.30)

나. 거버넌스

핀란드 피하자비 권역은 호수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20명의 어업인을 중심으로 4개 가공업체, 피하자비 수산연구소(지자체 설립), 지자체 등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생산한 어획물은 지역 내 4개 가공업체를 통해 주변지역 소비지로 공급하고, 피하자비 연구소는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 연구소로 내수면 환경 및 자원평가, 수산기술개발 및 교육, 가공상품 개발 등 지역 어업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하자비 권역의 지역공동체와 수산지역활동그룹(FLAG), 어촌지역 네트워크(FARNET)의 역할은 앞서 기술되었던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사례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림 3-33〉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활동그룹(FLAG) 거버넌스



자료 : 저자작성

다. 사업내용

핀란드 피하자비 내수면 어촌개발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150만 유로(한화 22.7억 원)로 지역 내 토속어종을 활용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벤디스, 연어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유어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과 판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벤디스 바비큐, 훈제, 잉어류를 활용한 버거 개발 등 내수면 어종에 대한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표 3-3〉 핀란드 피하자비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및 예산 현황

(단위 : 유로, %)

구분	우선순위	2기 사업기간(2014~2020년)
총예산	-	1,517,440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매우 중요	40
사업다각화	중요	10
호수 환경개선	보통	10
사회복지 및 문화유산 활성화	보통	10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매우 중요	30

자료 :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활동그룹(FLAG)의 내부자료(현장방문: 2017.07.05)

〈그림 3-34〉 피하자비 내수면 어촌개발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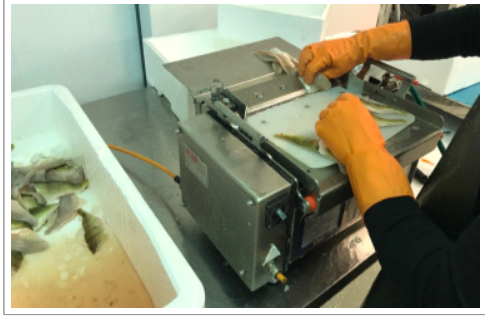
수산물 가공공장



벤디스 가공제품(내장제거)



Fillet 제품 생산공정



잉어 버거제품



자료 : 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활동그룹 내부자료(Fisheries and fishing methods in Lake Pyhajarvi)와 현장 방문조사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촬영일 : 2017, 07.05.)

제3절 국내외 사례비교 및 시사점

1. 내수면 어업지역 사례의 진단

제3장 1절과 2절에서 살펴보았던 내수면 어업지역의 국내외 사례지역을 ⅰ) 지역공동체, ⅱ)지역자원 활용, ⅲ)생산기반, ⅳ공동체 역량, ⅴ)마케팅, ⅵ)관광의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표 3-4〉와 같다. 일본과 유럽연합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아직 국내의 내수면 어업지역은 인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SOC) 등 물리적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강마을만들기와 유럽의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과 비교해 볼 때 국내의 내수면 어업지역은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정책이 미흡하다.

〈표 3-4〉 내수면 어업지역의 국내외 사례 진단

구분	국내사례	국외사례
지역공동체	• 소규모 어업공동체에 한정되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심점 부족	• 내수면 어업지역의 경제·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이해당사자 간 협력·연대 강화
지역자원 활용	• 다양한 관광 상품들은 개발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지역 활성화(화천 산천어 축제)	• 지역고유 자원을 바탕으로 특화된 상품화 및 관광개발
자원관리	• 방류사업을 통합 자원관리에 초점 • 유해어종 퇴치사업에도 불구, 어업자원 지속적으로 감소(내수면 어업지역 공통문제)	• 어종별 쿼터 통해 수산자원보호 (페이프시 호수, 피하자비 호수)
생산기반	• 내수면 어항 등 어업생산기반 취약 • 소규모·영세 가공으로 위생문제 존재	• 어항기반시설 우선적으로 확충 • 어항 인근에 자동화 가공시설 구축
공동체 역량	• 공동체 리더 중심의 역량교육으로 추진 •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장 맞춤형 지원 한계	• 지역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역량강화 추진 • FLAG 등 전담기관 지원을 통해 현장지원 강화
마케팅	• 획일적 먹거리 판매로 부가가치 창출 한계	• 지역 전략어종을 활용한 지역브랜드 창출 (훈제, 햄버거 패티, 통조림, 겨울낚시 등)
관광	• 겨울철 유사축제 난립으로 지역별 차별성 및 지역 활성화 한계(산천어, 빙어, 붕어 등)	• 내수면 어업지역의 환경, 역사, 문화 등을 연계하여 지역축제 차별화

자료 : 저자작성

2. 시사점

내수면 어업지역의 국내외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의미 있는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역정책 마련, 협력·연대의 지역공동체 거버넌스, 전문인력 지원, 내수면 어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방안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제4장에서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방향성 설정에도 적용하였다.

1)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역정책 마련

일본이나 유럽연합은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을 정부의 지역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 지역정책은 내수면 어업지역이 수계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연안과 내륙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내 내수면의 어업지역은 338개소의 어업공동체가 5대강 수계와 저수지에 분포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정책의 접근이 아닌 내수면 어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국한되고 있고, 연간 투입되는 예산규모도 적어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어업공동체 중심의 협력·연대 강화를 통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유럽연합은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C.L.L.D)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수, 하천을 중심으로 경제·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어업공동체를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을 포함해 새로운 내수면 어업지역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공동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용

이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지역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업공동체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사업의 확장성 효과가 유럽연합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공요인이다.

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기관 운영

일본과 유럽연합은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가와마치즈쿠리(강마을만들기) 사업은 지역별로 강마을만들기 검토회가 사업구상과 추진과정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에서는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을 통해 지역공동체 구축과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전문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공동체 역량수준이 높지 않은 내수면 어업지역은 현장밀착형 전담기관의 매칭과 지원을 통해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강마을 활성화 방안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4) 내수면 어업지역의 지속성 담보를 위한 어업자원 보전 및 인프라 확충 강화

유럽연합의 내수면 어업지역은 어업자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어획량 제한 등 어업인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전제되고 있다. 이들 지역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에 쿼터제를 도입하여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매년 어업자원량 평가를 통해 수산자원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내수면 어업환경의 개선을 위한 어항개발과 양륙시설, 수산가공 시설 등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시설의 확충과 정비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어업자원의 보전과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정비는 어업인들에게 안전한 작업환경과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산물의 품질 제고와 안정적인 가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5) 지역자원의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일본과 유럽연합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 사례에서 지역 활성화의 핵심전략은 유·무형 지역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과 브랜드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내수면 어업지역에서 지역자원을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역사·문화 보전과 복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자부심 강화

일본과 유럽연합의 내수면 어업지역은 오랜 기간 해당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어 온 경우가 많다. 내수면 어업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의 보전과 복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내수면 어업지역의 역사·문화의 보전과 복원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입시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제4장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제1절 추진방향

1.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접근

1)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 기반

강마을의 지역개발은 하천·강, 저수지·댐 등 내수면을 기반으로 지역, 경제,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다.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은 지역사회 스스로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주체로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접근은 기존 읍·면 행정구역을 기초단위로 이루어졌던 농어촌 지역개발과는 다른 접근체계라고 할 수 있다. 내수면의 공간적·입지적 특성에 기초하여 형성하고 있는 지역·경제·문화적인 동질성으로 하나의 사업단위가 형성되기 때문에 행정구역 보다는 내수면 어업인 및 공동체,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표 4-1〉 기존 농어촌 및 강마을 지역개발의 접근방향 및 특성

구분	기존 농어촌 지역개발	강마을 지역개발
기준설정	- 행정구역	-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
접근방향	공간적 범위설정 ↓ 경제적 공동체 (마을회, 어촌계)	경제·문화공동체 설정 ↓ 공간적 범위설정 (행정구역 크게 고려하지 않음)
특성	- 획일적 사업단위 - 정형적 사업체계(사업의지 불명확) - 행정 주도	- 다양한 사업단위(내수면 공간구조 고려) - 비정형적 사업체계(사업의지 명확) - 지역공동체 주도

자료 : 저자작성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추진방향은 〈표 4-1〉과 같이 내수면 어업지역에 기반한 지역·경제·문화적 지역공동체 네트워크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는 방식으로 기존 농어촌 개발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가. 강마을 공간단위

강마을은 내수면을 따라 이루어진 어업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경제·문화적 공동체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과 같이 읍·면 행정구역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마을 또는 공동체 단위로 사업을 배분하는 구조와는 다르게 경제·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지역 활성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공동체의 의사여부에 따라 공간단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즉, 마을 또는 공동체의 지역 활성화 사업의 참여 여부에 따라 최종적인 공간적 범위가 설정되는 구조이다. 강마을 지역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단위와 규모에 대한 제시는 필요하다.

(1) 사업 확장성

강마을은 자원, 환경, 경제활동 등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주에서 사업범위와 그 규모는 미래의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해면의 어촌계와 달리 어업계 등 내수면의 어업공동체 구성원이 대부분 20명 내·외의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급적 동일 수계, 호소를 기반으로 2개 이상의 분산·고립·분리된 어업공동체를 하나의 공간단위로 묶고, 상호 경제·문화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확장성을 추구한다.

(2) 시·군 행정경계

내수면은 공간적·입지적 특성상 행정경계를 획정하거나 수계의 특성상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계획정 요소 또는 시·군 및 시·도의 행정경계를 넘어서는 내수면의 경우 그 공간단위와 규모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예산투입과 사업관리 등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의 사업

공간단위가 시·군이나 시·도 단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강마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범위는 그 최소범위인 시군 행정경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나. 비정형적인 사업체계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사업체계는 공동체 참여의 동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정형적인 구조이다. 사업단위가 읍면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참여가 전제되기 때문에 각 지역별 사업체계는 획일화되지 않는 비정형적인 특징이 있다.

비정형적인 사업체계는 강마을 지역 활성화에서 어업공동체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공간단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와 역량문제 등 현행 농어촌 지역개발의 고착화된 문제를 줄이거나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수의 공동체 사업 참여에 따른 공간범위 설정이나 이해관계 조정에 따른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공간단위 결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다. 지역공동체 주도

강마을 지역 활성화는 행정기관 주도로 이루어지는 현행 농어촌 지역개발과는 달리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지역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필요한 사업발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상향식 개발체계를 추구한다. 과거 생산기반 인프라 확충이나 정주여건 개선 위주의 지역개발은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및 소득 제고, 일자리 창출 등 공동체가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기대할 수 없는 사업영역이 확대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사업주체로서 참여와 역할의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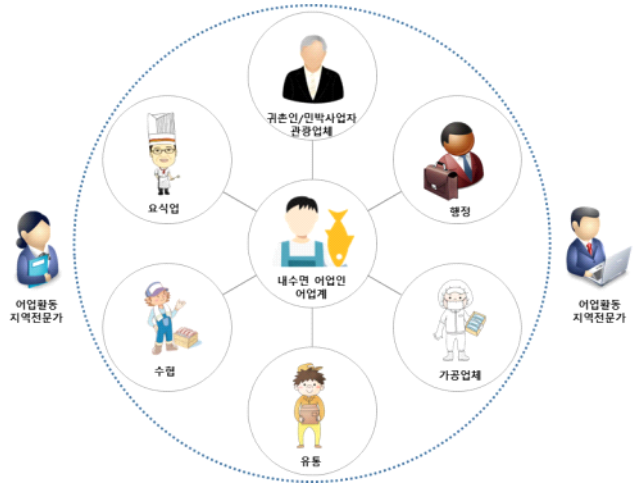
강마을 지역 활성화는 내수면의 어업활동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결국 이러한 비전과 목표는 지역공동체가 지역개발사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어업공동체 중심의 파트너십 형성

강마을의 거버넌스는 강·하천, 저수지·댐 등의 내수면을 기반으로 개인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파트너십은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업인과 어업계 등 어업공동체가 강마을 활성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어업공동체가 협력·연대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협력·연대의 대상은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모든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공업, 유통업, 관광업, 서비스업 등이 될 수 있다.

〈그림 4-1〉과 같은 파트너십 형성은 내수면 어업인과 어업계를 중심으로 내수면 활성화를 통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주체를 대상으로 파트너십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어업공동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칭) '어업활동 지역전문가'를 통해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어업공동체 중심의 파트너십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그림 4-1〉 어업공동체 중심의 파트너십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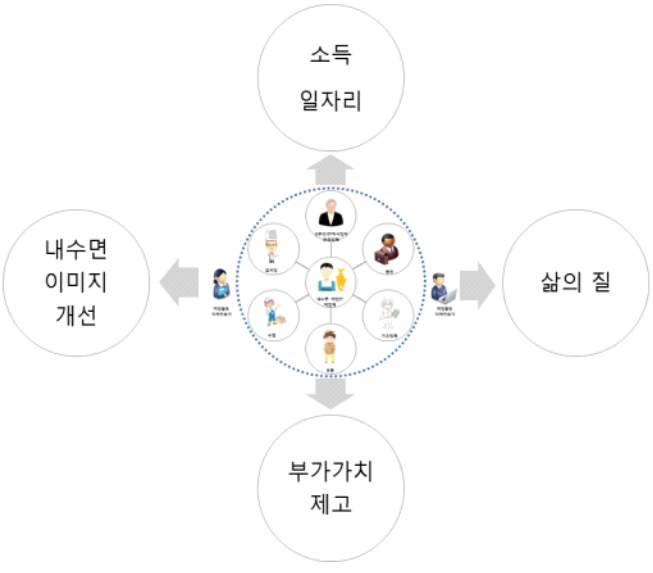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3) 지역공동체의 내발적 사업 발굴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개발은 해당지역의 목표와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전략과 사업을 내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실행력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상향식 개발체계의 핵심적인 방향이다. 강마을의 지역 활성화 방안은 내수면 어업계 등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내용을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공동체의 내발적 사업발굴은 크게 ⅰ)소득 및 일자리 창출, ⅱ)지역주민의 삶의 질, ⅲ)부가가치 제고, ⅳ)내수면 이미지 재선으로 추진된다.

지역공동체의 내발적인 사업 발굴 과정은 불필요한 사업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만 아니라 실행력을 높이는데 매우 유용하다. 사업완료 이후 시행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공동체의 아이디어와 사업추진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내발적 사업 발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진행도 원활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림 4-2〉 지역공동체의 내발적 사업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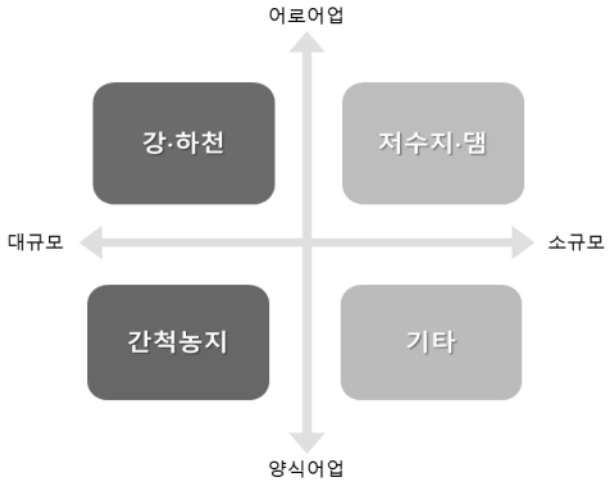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공간 유형별 접근

강마을은 내수면의 공간위계와 특성별로 강·하천, 저수지·댐, 기타(양어장 등)로 구분된다. 특히 이러한 유형별 접근은 내수면의 규모와 어업활동 유형으로 그 특성을 살펴볼 수 있다.

강마을의 어업공동체는 내수면의 특성에 따라 어업활동과 수면의 활용방향성이 다르며, 입지적인 분포 특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3〉 강마을 유형별 접근방향



자료 : 저자 작성

1) 강·하천

강·하천은 수계의 특성상 수면이 길게 펼쳐져 다수의 행정경계를 가로지르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어로어업 중심의 어업공동체와 농업, 관광업, 서비스업(요식업, 숙박업) 등 어업 이외의 경제활동 주체도 다수 분포하는 특성이 있다. 강·하천의 어업공동체는 5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수계를 따라 분포하며, 어업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어업공동체가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특성을 보인다.

2) 저수지·댐

저수지·댐은 농업용수 또는 상수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어업공동체가 수면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통해 어로어업과 낚시업 등이 주로 이루어진다. 저수지와 댐의 주변지역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숙박업(농어촌민박), 식당 등이 분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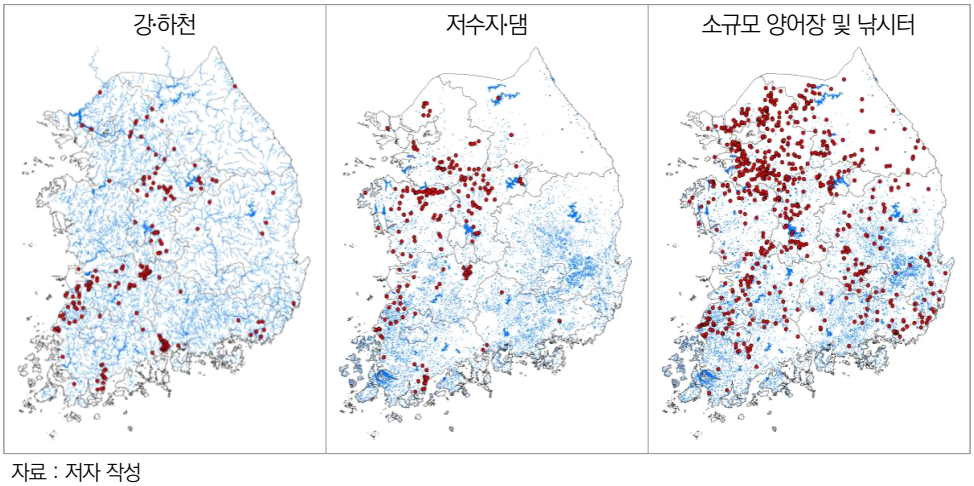
저수지·댐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공동체는 충남·충북지역에 집적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전북·경기지역에서도 일부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3) 소규모 양어장 및 낚시터 등

기타 내수면 공간은 주로 소규모 육상 양어장 및 낚시터로 활용되는 곳으로 1인 창업을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어업공동체와 성격이 다소 다르다. 기타 내수면 공간은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에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기타 내수면 공간은 1인 창업에 따른 내수면의 귀어·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양식업이나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득원을 창출하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림 4-4〉 강마을 유형별 접근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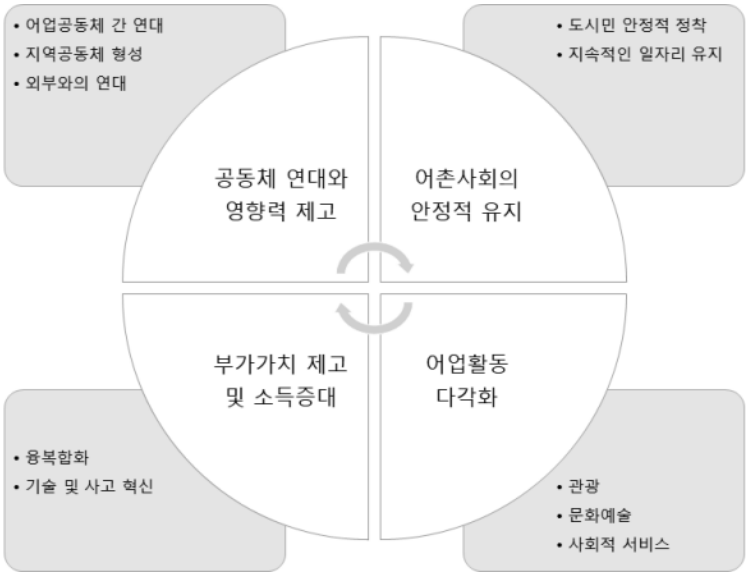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3. 강마을 추진목표

강마을은 내수면과 어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내륙의 어촌개발을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개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마을 지역 활성화는 ①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②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③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④어업활동 다각화 등 네 개의 발전 축이 원활하게 구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5〉에서 제시한 강마을 활성화의 4대 추진목표는 상호 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의 발전방향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및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는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와 어업활동 다각화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의 동력원이 된다.

〈그림 4-5〉 강마을 활성화의 4대 추진목표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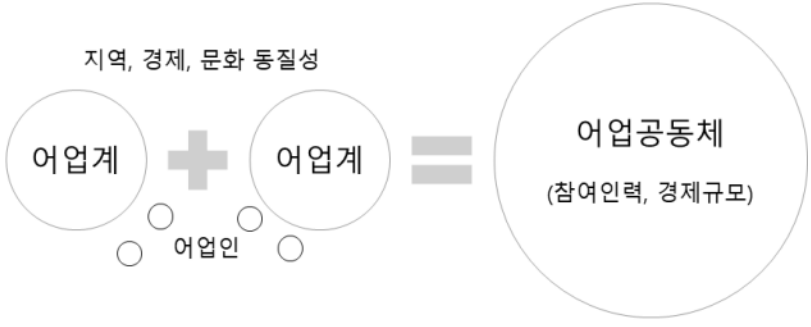
1) 공동체 연대와 어업공동체의 영향력 제고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 어업의 특성상 어업활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집락을 형성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구심점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 내수면의 공간적 위계와 동질성에 기초하여 어업공동체 간 연대와 어업과 직·간접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주체들 간에 연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내수면 어업공동체의 지역 내 영향력을 높여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한다.

가. 어업공동체 간 연대

강마을은 분산, 고립, 분리된 어업공동체의 연대로 동질성에 기초하여 통합된 하나의 사업권역을 형성함으로써 참여 인력과 경제활동의 규모화를 통해 지역 내 영향력을 높이고자 한다. 다만 어업공동체 간 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어업활동 방식과 이용 자원, 경제활동에서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4-6〉 어업공동체 간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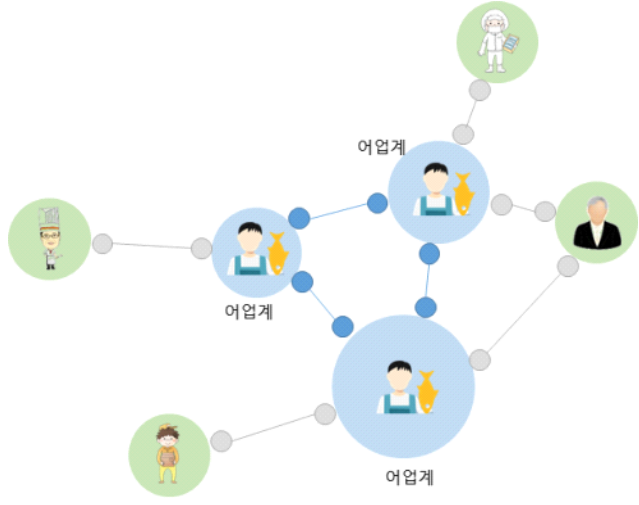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나. 어업공동체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형성

강마을은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어업공동체를 형성하고, 어업자원을 포함한 지역자원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사업주체 간 협력과 연대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어업공동체의 영향력 제고뿐만 아니라 내수면 어업활동의 이미지 개선과 새로운 브랜드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림 4-7〉은 어업계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어업계 간 동질성을 토대로 유통, 가공, 관광, 서비스 등 경제활동 주체와의 협력·연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유도한다.

〈그림 4-7〉 어업계 중심의 지역공동체 형성



자료 : 저자 작성

다. 어업공동체와 외부와의 연대

어업공동체는 지역공동체 외부의 경제활동 주체와 연대를 통해 내수면 어업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지역 등 소비시장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외부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어업활동의 가치사슬을 활성화시키도록 한다.

2)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강마을은 농어촌지역의 범주에 있어 고령화와 공동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강마을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어업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귀농어·귀촌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강마을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유지를 목표로 한다.

강마을은 1인 창업부터 어업공동체 진입까지 도시민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지역사회로의 유입을 적극 유치하고, 어업생산 이외에 유통·가공, 판매, 관광, 서비스 분야 등의 창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강마을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 높은 삶의 질 여건 충족을 통해 귀촌인의 적극적인 유치를 추진해야 한다.

〈그림 4-8〉 강마을 어촌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자료 :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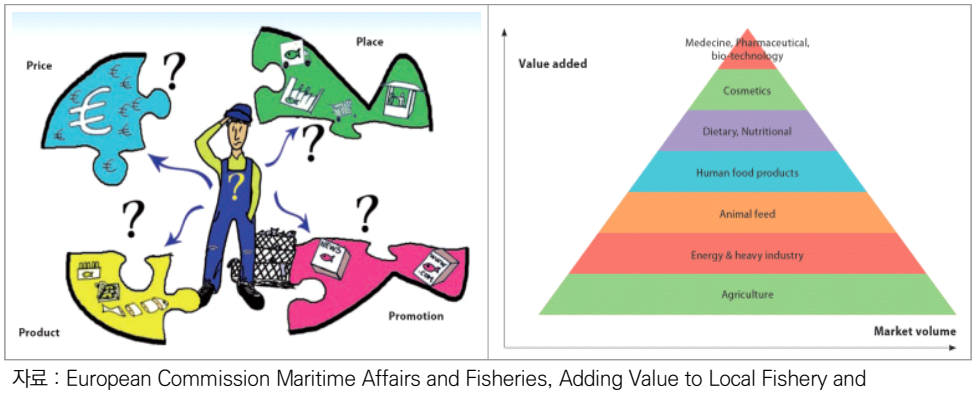
강마을 활성화는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어업공동체뿐만 아니라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중요하다.

3)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 수산자원의 낮은 어가와 판로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업공동체의 소득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다.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연간 3만 톤 내외로 해면어업과 비교해 볼 때 소비시장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생산규모가 제한적인 내수면 어업의 경우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보다는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득을 증대하는 전략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수면 어업의 여건 속에서 농어촌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6차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6차 산업화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효과는 어업공동체가 상품개발, 판로(시장)개척, 가격, 마케팅에 이르기 영역까지 사업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대안이 될 것이다.

수산물의 부가가치는 최종적인 상품의 용도와 그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국내 내수면 어업의 시장규모가 작은 상황에서는 결국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 바이오기술, 화장품, 다이어트 관련 제품 등 기술개발과 혁신을 융·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림 4-9〉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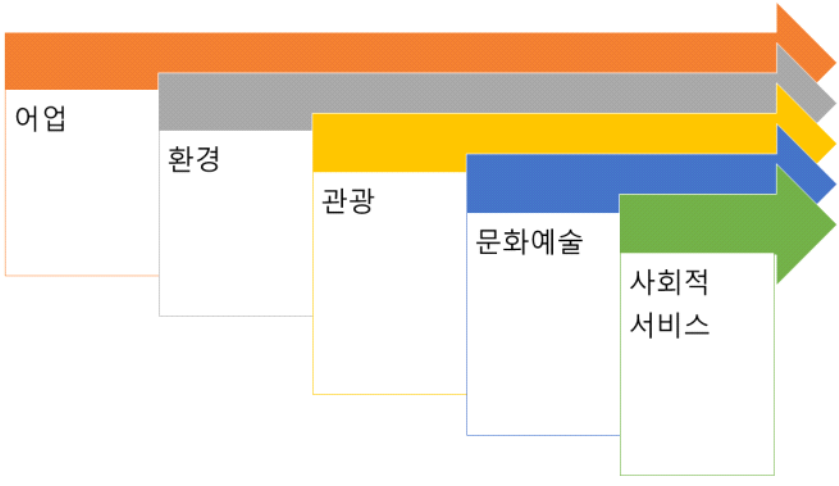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ding Value to Loc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2015 p.20; European Commiss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iversification of Fisheries Areas, 2015, p.12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

4) 어업활동 다각화를 통한 소득원 및 일자리 창출

강마을은 내수면 어업활동 중심의 영역을 다각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내수면의 어업활동은 어업소득과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다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강마을 활성화에 따른 사업의 다각화는 어업활동의 영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어업활동의 다각화는 어업자원을 통한 새로운 상품의 개발부터 관광, 문화·예술, 사회적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어업활동의 다각화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교류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결국 강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개발의 새로운 가치는 개방과 협력·연대이며, 이를 통해 창의적인 다각화와 사업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그림 4-10〉 어업활동의 다각화



자료 : 저자작성

4.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도입

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가.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양성

강마을 활성화는 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로 지역 내외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활력을 위한 전략 및 세부사업 발굴 등 어업활동에 특화된 지역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강마을은 기존 지역개발과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업활동 및 강마을에 특화된 전문가를 통해서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진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결국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

나. 어업공동체 역량강화

지역공동체 주도형 지역개발에서 사업의 주체가 되는 어업공동체의 역량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은 어업공동체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지역개발 사업에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에 적정 예산을 배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업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11〉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양성	어업공동체 역량강화
	

자료 : 어업인수산(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5, 검색일 : 2017.10.10.)
수산인신문(http://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8, 검색일 : 2017.10.10.)을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2) 인프라 확충 및 정비

가.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 및 정비

강마을에 인접해 있는 하천 및 호소는 강수량에 따라 수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맞는 계류시설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따라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수심의 변동이 큰 저수지나 댐의 경우는 낮아진 수심으로 인하여 배의 접안이 불가능하여 어업활동을 포기하고 농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업활동으로 인한 수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가공시설이 있더라도 소규모 영세한 가공으로 한정되어 대부분 냉동상태로 보관했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수산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해면지역과 마찬가지로 어획된 수산물을 옮길 수 있는 어항시설 및 이를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설규모 확대 및 자동화하여 수산물 품질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정비해야 한다.

〈그림 4-12〉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 및 정비 예시

내수면 어항개발	수산업가공시설
	

자료 : 저자 직접 촬영(촬영일 : 2017.07.05.)

나.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강마을은 어촌과 마찬가지로 정주환경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많다. 특히 강마을은 긴 수계를 따라 그 배후지역에 흩어져 소규모 마을을 형성하고, 계류시설 없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업을 위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하다. 내수면 지역에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어업구역까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로망이 구축되어야 이를 바탕으로 취락시설, 어항시설 확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작은 SOC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과 연계하여 어업활동을 한 지역에 집약시킬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수계는 상수원보호구역이 다수 존재하고 수면을 사용함에 있어 어업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수면지역의 정주환경은 이를 고려하여 주변 환경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환경 친화적인 정주환경 개선은 내수면 어업지역 어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어업기반의 강마을을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그림 4-13〉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예시

정주여건 개선



자료 : 저자 직접 촬영(촬영일 : 2017.07.05.), ClickZoom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http://clickzoom.net/travel/tiny-but-shiny-the-most-charming-small-towns-around-the-world-youll-want-to-visit-asap, 검색일 : 2017.10.10.)

3) 내수면 어업의 부가가치 제고

현재 내수면 어업은 어업활동 후 어획된 수산물은 대부분 매운탕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진액(엑기스), 냉동포장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내수면 어종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인식도가 해수면 어종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1차 판매에 그쳐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다. 특히 내수면 어종은 일부 어종을 제외하고는 가격에서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창출을 위하여 이를 활용한 상품개발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어종을 활용한 2차 가공품 개발 및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4〉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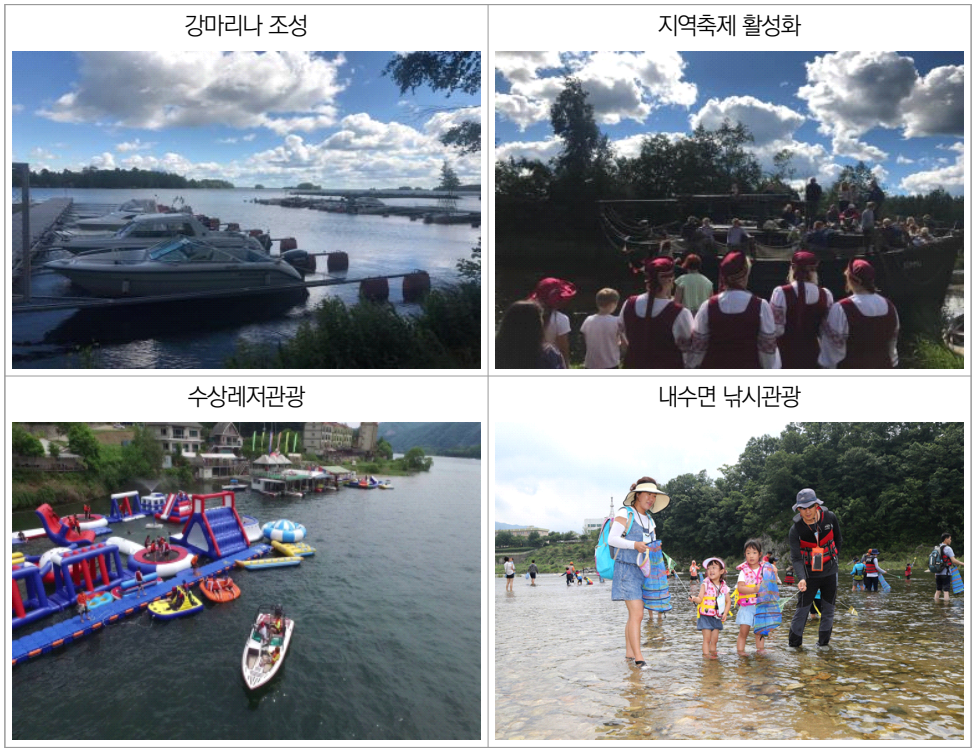
벤디스 활용한 식초절임 상품 개발	잉어류 활용한 버거 패티 상품 개발
	
위생·안전관리 강화(HACCP 시설)	수산물 판매장 조성(지역 판로개척)
	

자료 : 저자 직접 촬영(촬영일 : 2017.07.05.)

4) 강마을 관광활성화

강마을 활성화를 위해 어업기반의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강마을 주변 경관자원 및 수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지역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국내 내수면 지역의 관광자원은 낚시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수상 스포츠, 지역축제가 존재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특색에 맞는 자원발굴 및 관광상품 개발이 취약하기 때문이며,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강마리나 같은 관광인프라 시설도 구축하여 지역자원과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림 4-15〉 내수면 관광활성화 사례



자료 : 저자 직접 촬영(촬영일 : 2017.07.05.) 및 가평빠지 MC 레저수상 동영상, 경남매일 낚시페스티발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https://www.youtube.com/watch?v=eEHjJxEJjFk, 검색일 : 2017.07.10.)
(http://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496, 검색일 : 2017.07.10.)

5) 내수면 환경보전 및 복원

내수면은 해수면과 다르게 접근성 제약이 작기 때문에 많은 낚시 관광객 및 불법어업으로 인해 남획되어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되어 왔으며 관광객에 의한 쓰레기 투기, 오염물 방류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 유해어종의 유입 및 급격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하여 국내 토종 어종은 급감하여 정부차원의 방류사업이 없이는 어업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내수면 자원관리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금지하고, 어업인의 어업활동도 금어기나 쿼터제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자원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는 내수면의 환경보전 및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산자원의 개체 수가 자연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유해어종은 새로운 상품개발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유해어종이 추가적인 어업인의 소득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내수면 어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림 4-16〉 내수면 환경보전 및 복원 예시



자료 : 한겨례 환경생태 웹진-물바람숲, 디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http://ecotopia.hani.co.kr/?document_srl=30092, 검색일: 2017.10.10.)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0621N001, 검색일: 2017.10.10.)

6)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역사적으로 내수면 하천 수계는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였으며 주요 포구를 거점으로 활성화 된 지역이 많다. 이로 인해 이러한 지역들은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을 하지 못하여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강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다시 발굴·복원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강마을지역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내수면 지역의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지역을 선정하여 자연 친화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수립하여 관광객들이 과거의 역사 및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그림 4-17〉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예시



자료 : 네이버 블로그, 한국경제, 국가문화유산포털, 두산백과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구성함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sbukgusns&logNo=220563355300, 검색일 : 2017.10.10.)
(http://www.hankyung.com/news/realtime/index.php?aid=2017022295171, 검색일 : 2017.10.10.)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3,02680000,31&pageNo=5_2_1_0#, 검색일 : 2017.10.10.)
(https://www.doopediat.com/11_Menu/TravelView?autoplay=N&ptm_idx=171001000033430, 검색일 : 2017.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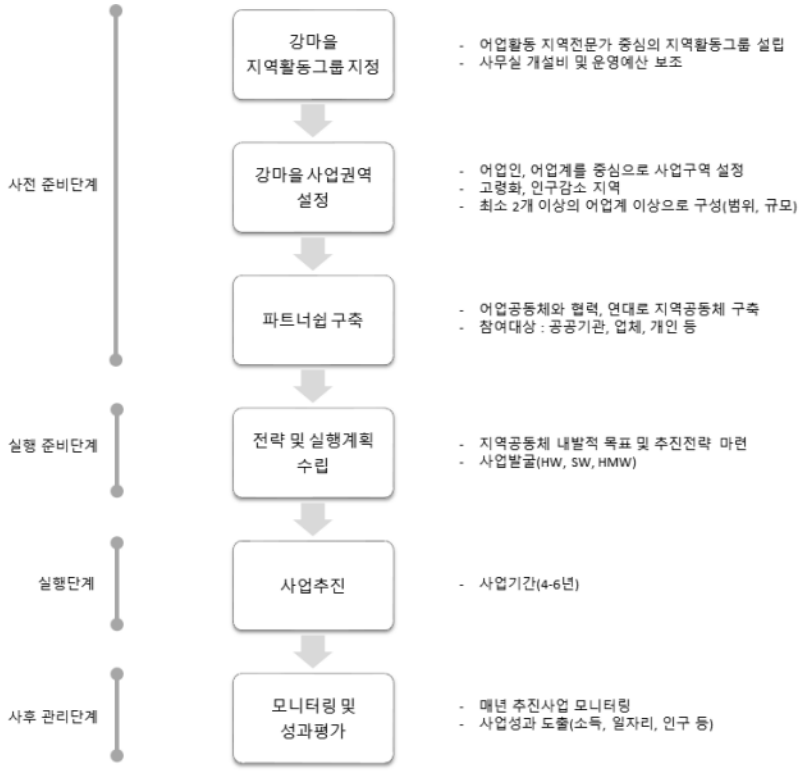
제2절 강마을 활성화 추진전략

1. 추진체계

1) 단계별 프로세스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단계별 프로세스는 사전 준비단계(강마을 지역활동그룹 지정 → 강마을 사업권역 설정 → 파트너십 구축), 실행 준비단계(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 실행단계(사업추진) → 사후 관리단계(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로 추진하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8〉 강마을 활성화 전략 단계별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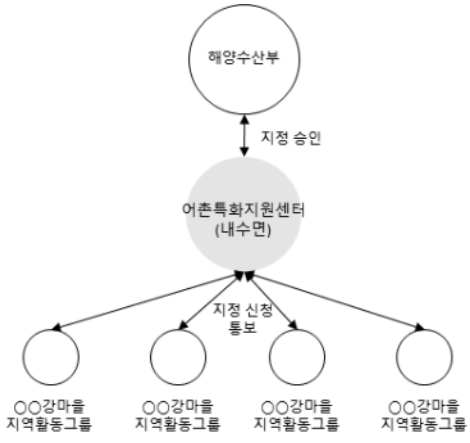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2) 단계별 프로세스 추진전략

가. 강마을 지역활동그룹 지정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지역전문가 중심의 자발적인 조직으로 강마을 활성화를 희망하는 내수면 어업지역을 지정하고, 그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계획 초안을 마련하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강마을 지정활동그룹으로 지정하여 강마을 활성화의 사전 준비단계에 착수한다. 해양수산부는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이 사전 준비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그림 4-19〉 강마을 활성화 전략 단계별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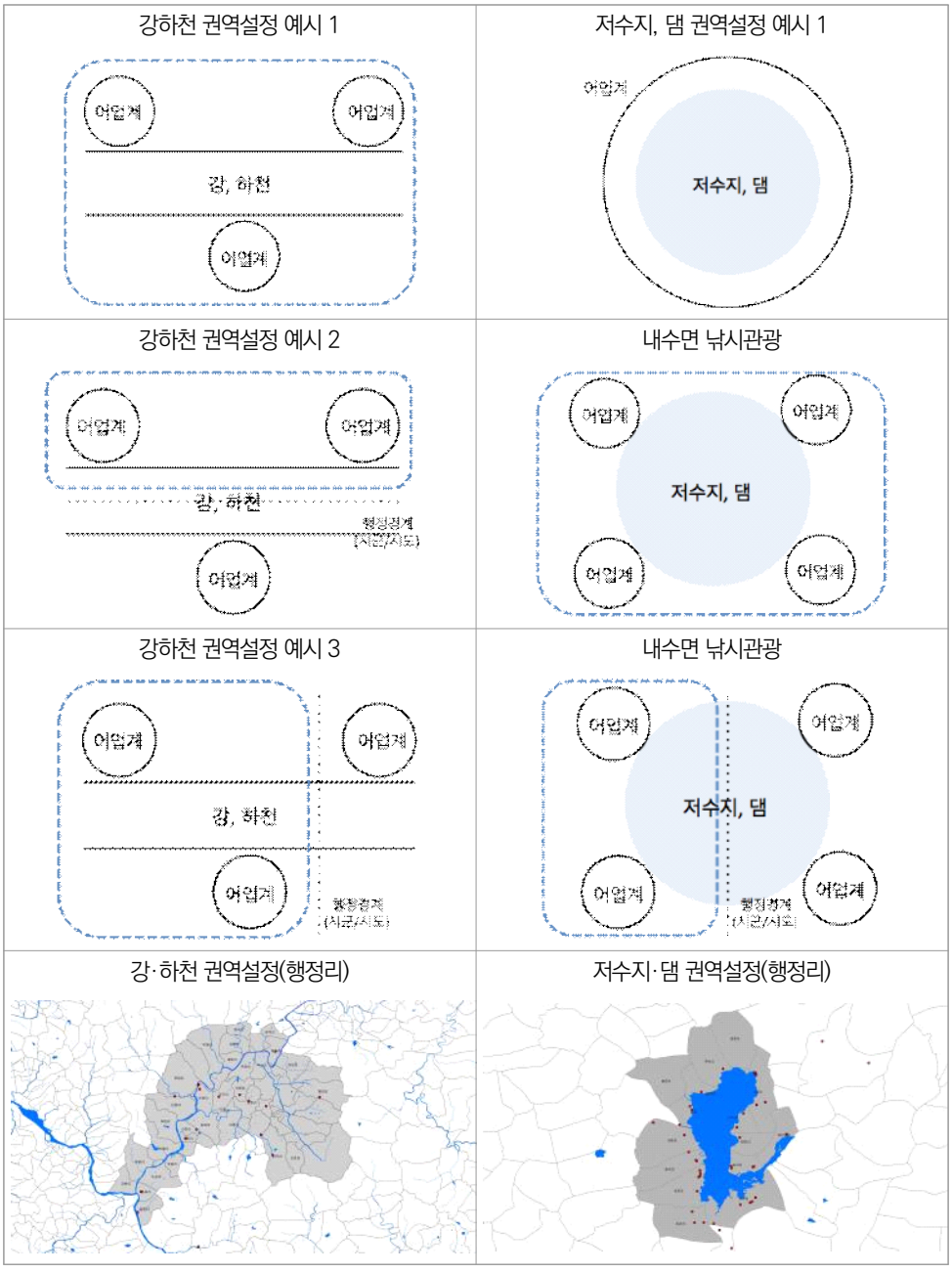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나. 강마을 사업권역 설정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해당 지역 내에 2개 이상의 어업계와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권역을 설정하되 가급적 행정구역(시군, 시도)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강마을에 접한 행정리를 단위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해면과 내수면의 어촌 범위의 공간적 단위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림 4-20〉 강마을 사업권역 설정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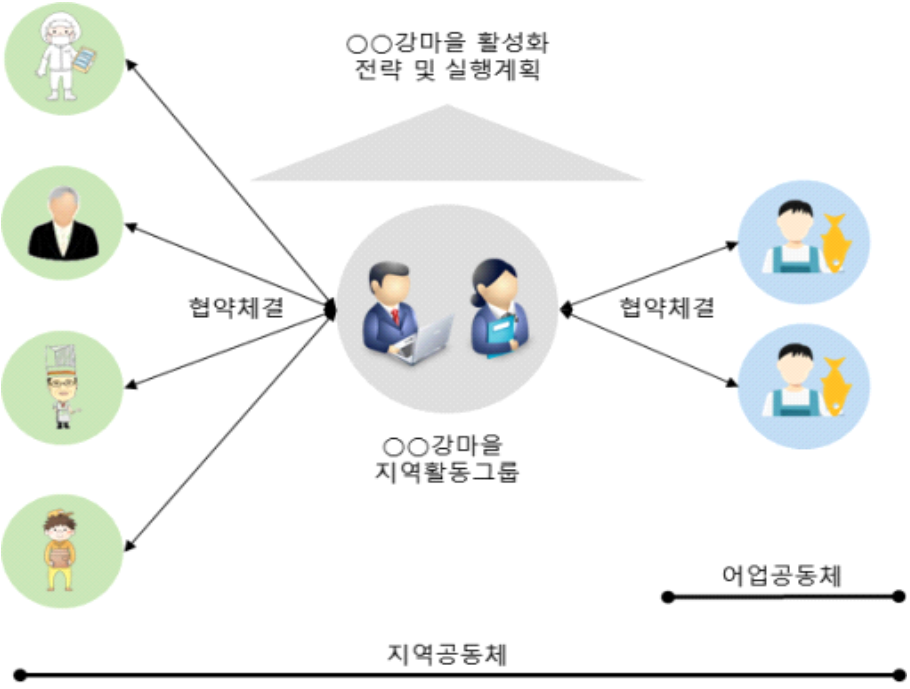


자료 : 저자 작성

다. 파트너십 구축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입지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업공동체와 협력·연대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주체(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파트너십 구축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인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역활동그룹은 강마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그림 4-21〉 강마을 활성화 전략 파트너십 구축



자료 : 저자 작성

라.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지역공동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전략과 필요한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지역활동그룹은 각 사업계획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주체, 예산, 실행방법, 프로세스,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농어촌개발에서 단기간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과는 다르게 지역공동체와 지역활동그룹이 직접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공동체가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사업발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의견제시에 따른 조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간 내부적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은 지역활동그룹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그림 4-22〉 강마을 활성화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자료 : 저자 작성

마. 사업추진

지역공동체와 해당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참여와 자문 등은 지역활동그룹을 통해 이루어진다.

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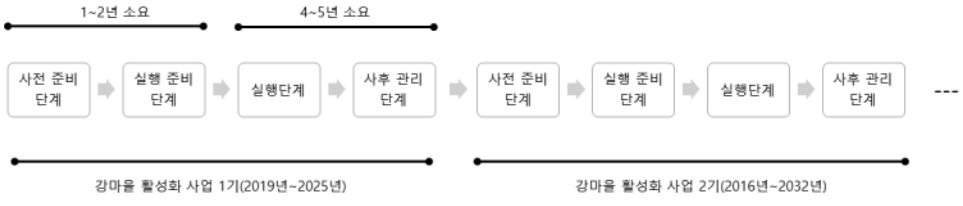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해당 지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른 정량적 성과지표(소득, 일자리, 인구, 귀어귀촌 등)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달성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제고시킨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평가요소로 활용한다.

3)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기간

강마을 활성화 사업기간은 사전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단계까지 7년을 주기로 추진한다. 강마을 활성화는 지역공동체 주도형의 지역개발모델로 이들의 사전 준비단계가 사업권역 설정과 파트너십 구축 등에 1~2년 정도가 소요되고, 실행단계와 사후 관리단계가 4~5년 정도 소요되어 7년을 사업주기로 설정하였다.

강마을 활성화는 7년 주기에 따라 해당 지역공동체가 추가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속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완결성과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23〉 모니터링 및 사업추진 기간



자료 :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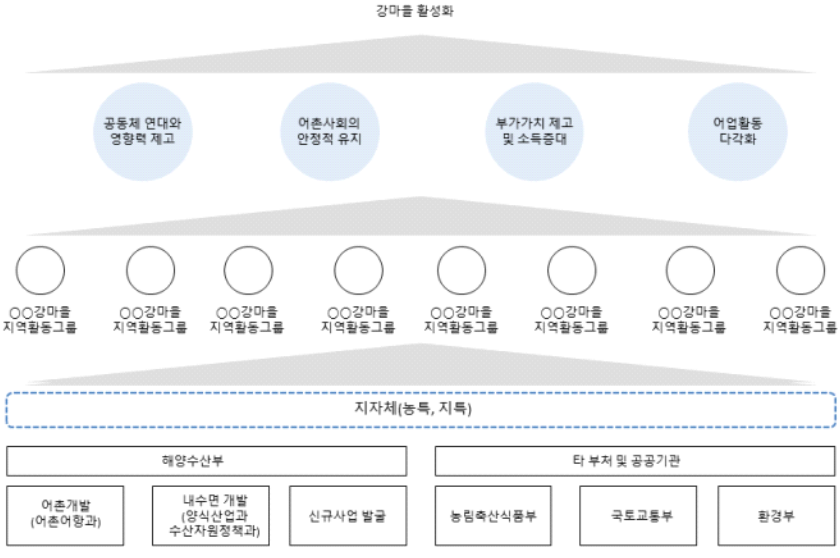
2.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강마을 활성화 방안은 내수면 어촌개발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어촌개발사업과 신규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협업 등이 요구된다. 강마을 활성화는 지역개발사업의 한 영역으로 사업구역이 확정된 지역에 해양수산부와 관련 부처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등의 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첫째, 강마을 활성화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어촌개발과 내수면개발을 주도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둘째, 강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영역 확대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

셋째, 강마을 활성화와 관련된 타 부처의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의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24〉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자료 : 저자 작성

강마을 활성화에서 추진하는 핵심적인 전략은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원사업의 매칭,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표 4-2〉는 강마을 활성화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의 관련 사업을 매칭하여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내수면산업)와 어촌어항과(어촌개발) 업무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기존 지원정책 틀 내에서 가능하다.

〈표 4-2〉 강마을 활성화 추진전략 및 지원사업 매칭

추진전략	추진과제	정부 지원사업 매칭
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육성**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인프라 확충 및 정비	- **어업기반 정비** - 내수면 어항개발사업 - 생태하천복원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일반농산어촌개발*** - 귀어귀촌 활성화 -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내수면 어업의 부가가치 제고	-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어도 개보수사업**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업활동 다각화	강마을 관광 활성화	-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낚시 전문교육** - 강·호수 마리나 개발**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 내수면 지역자원 발굴 및 복원사업**

주 :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구분, ** 신규사업 발굴

1) 현행 수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한 추진

가. 내수면 산업 육성

내수면 산업 육성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내수면산업팀)와 수산자원정책과 소관의 지원사업으로 내수면어업 육성에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 등 5개 사업이 있다.

한편 낚시산업 선진화는 낚시 환경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강마을의 어업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법낚시 및 생활쓰레기 적재 등을 완화, 해소해 나갈 수 있다.

〈표 4-3〉 현행 내수면 산업 육성

사업명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내용
내수면어업 육성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국고 보조 80% 11개소(5억)	- 인공산란장 설치비 -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분석비(사업비 10%)
	어도 개보수사업	국고 보조 50% 전국 5,223개소	- 어도 개보수 공사비 - 모니터링 사업비(투자효과 분석) - 어도 유지관리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국고 보조 50% 창업희망자	- 양식단지 기반시설(1~3차년도) - 양식장 시설(자부담, 저리 융자 1%)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국고 보조 50% 해당 지자체	- 어류서식 및 산란 환경 조성시설 - 수산종묘 방류·육성·관리 - 어로어업 등을 위한 다기능부잔교 등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	민간사업자 보조 50% 민물고기 유통판매(주)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조성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국고 보조 30% 유료낚시터(공공용 수면)	- 환경 정화사업(내수면 10㏊당 10백만원) - 환경오염방지사업(화장실, 수거함) - 안전·환경 구축사업
	낚시 전문교육	국고 보조 100% 전문기관지정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 선원 대상 교육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국고 보조 100% 민간기관지정	- 명예감시원 위촉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인건비 및 운영비)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각 년도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나. 어촌개발

어촌개발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창출과 귀어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강마을 활성화에 정부 지원사업을 매칭하고자 한다. 첫째, 소득창출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어업소득과 6차산업화, 어촌자원복합산업화 등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소득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고자 한다.

둘째, 귀어귀촌 활성화는 도시민의 강마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한다.

〈표 4-4〉 현행 어촌개발사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득창출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국고 보조 50% 어촌마을	- SW분야(마케팅, 브린드, 역량교육 등) (사업비의 최소 10%이상 반영)
	어업기반정비	국고 보조 80% 지자체	- 지자체 관리 어항기반시설 지원 - 수산자원 회복사업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국고 보조 50% 어업공동체	- 역량강화 및 혁신체계 구축 - R&D 및 컨설팅 지원 - 생산·유통기반 구축 - 어촌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 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고 보조 70% 지자체 (31개 시군/123개 읍면)	-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복지, 주거개선, 상하수도, 생산기반) - 지역소득증대(가공시설, 판매장 등)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귀어귀촌 활성화	귀어귀촌 홈스테이	국고 보조 50% 귀어 희망자 200명	- 숙박비 및 컨설팅 비용
	귀어학교 개설 (내수면)	국고 보조 50% 전문기관지정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동 신축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등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내수면)	국고 보조 100% 전문기관지정	- 추진기구 운영비 - 하드웨어 구축비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각 년도를 활용하여 저자가 재작성함

2)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추진

강마을 활성화 추진에 따른 신규사업은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육성, 내수면 어항개발사업, 강·호수 마리나 개발, 내수면 지원자원 발굴 및 복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표 4-5〉는 신규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가.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육성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육성은 강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이들의 양성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인증과정을 통해 이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토록 한다.

나. 내수면 어항개발사업

내수면 어항개발사업은 어업공동체의 어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광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강마을 지역특성과 환경여건에 맞는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로어업과 수상레저활동을 지원토록 한다. 내수면 어항개발사업은 계류시설 및 선착장 조성, 어선 및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한 크레인, 조명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고 보조의 비율을 높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다. 강호수 마리나 개발

강·호수 마리나 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수상레저 수요를 강마을로 유입시켜 내수면의 수면을 활용하여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수상 계류시설, 육상 주정장, 주차장, 선양장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560개소의 내수면에서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나루터 등을 활용한 지역 간 연계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라. 내수면 지역자원 발굴 및 복원사업

내수면 지역자원 발굴 및 복원사업은 강마을 일원에 분포하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콘텐츠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 복원하는 사업이다.

〈표 4-5〉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안)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규사업	어업활동 지역전문가 육성	국고 보조 100% 전문기관지정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자격시험 인증
	내수면 어항개발사업	국고 보조 80% 지자체	- 계류시설 및 선착장(물량장) 조성 - 어선 및 어획물 운반 크레인 - 조명시설(새벽조업)
	강·호수 마리나 개발	국고 보조 50% 지자체	- 수상 계류시설 - 육상 주정장 - 주차장 - 선양장 ※ 민간사업 유치와 연계 추진
	내수면 지역자원 발굴 및 복원사업	국고 보조 50% 지자체	- 역사·문화자원 조사발굴 사업비 - 스토리텔링 및 콘텐츠 개발 - 소규모 전시관 조성 - 복원사업비

자료 : 저자작성

3) 타 부처 및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추진

강마을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환경부(생태하천복원) 등의 지원사업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수지, 댐 등의 공공용 수면에 대해 강마을 지역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협업이 요구된다.

〈표 4-6〉 타부처 및 공공기간 협업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국고 보조 70% 지자체 (121개 시군)	- 기초생활기반확충 (문화복지, 주거개선, 상하수도, 생산기반) - 지역소득증대(가공시설, 판매장 등) - 지역경관개선 - 지역역량강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국고보조 70% (2개 이상 지자체 협력사업)	- 생활인프라 확충(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 일자리 창출 - 주민 삶의 질(의료, 안전, 교육)
	농어촌관광 휴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 50% 지자체	- 기본시설(학습관) - 자율시설(지역특산물 판매시설, 휴양시설)
환경부	생태하천복원	국고보조 50% 지방하천	- 수질개선 시설 - 수생태계 복원시설 - 환경생태유량 공급시설 - 생태관광·체험시설 - 부대시설 - 토지매입 등 기타비용
농어촌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사용	저수지 지역 목적외사용 승인	- 어업 및 낚시업 - 유도선업 - 수상레저업
수자원공사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사용	저수지, 댐지역 목적외사용 승인	- 어업 및 낚시업 - 유도선업 - 수상레저업

자료 : 저자작성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강·하천과 이를 막아 물을 이용하기 위한 댐·저수지 등의 내수면은 국토의 혈관과 같이 지형과 지세를 따라 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내수면의 면적은 국토면적 대비 5.7%에 불과하지만 수계특성 상 내륙의 거의 모든 지역이 영역범위에 해당된다. 내수면은 무엇보다도 바다와 잇닿아 있고,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물질순환의 연속선상에 있다. 하지만 내수면은 지금까지 수면관리자가 상수원 및 산업용수(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로의 활용이나 치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왔다. 내수면을 기반으로 하는 어업활동 지역과 어업계 등 지역공동체는 댐·보의 설치뿐만 아니라 수량 및 수질 관리 등 내수면의 환경관리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역개발의 영역에서도 농촌으로 인식되어 수변경관, 공원조성, 용수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내수면 어업자원과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의 연계하는 강마을은 어촌개발의 새로운 정책적 영역으로써 사회·경제·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는 지역공동체 주도로 협력과 연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업계와 그 주변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현황과 현장조사,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는 댐 조성과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에 다른 수질 악화, 유해어종의 급증, 내수면 불법낚시어업 활동의 증가 등으로 어업자원 감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어업계는 빠르게 이완·해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는 다수의 내수면어업계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레저, 요식업, 숙박업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와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이 분포하여 이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강마을은 내수면어업계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어업자원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내수면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어업활동 다각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공동체의 연대와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내수면의 수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 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여 다수의 공동체를 연합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외부와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강마을은 안정적인 어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어업인의 일자리 유지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촌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강마을은 내수면어업은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전략 어종을 발굴함으로서 6차산업화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증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강마을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주민, 관광객들의 문화, 여가, 관광수요를 기반으로 어업활동을 다각화함으로서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어촌이 상호교류하는 공간으로 그 매력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강마을 지역 활성화의 전략목표는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 어업 인프라 정비,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내수면어업 부가가치 제고, 관광 활성화, 내수면 환경보전 및 복원, 주변지역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복원 등이며, 이러한 사업은 강마을 지역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부 내 내수면산업 육성과 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타 부처의 협업을 통해 추진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가칭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내수면 어업활동 지역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아울러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등 법정계획과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강마을 지역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제2절 정책제언

1.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해면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어촌정책을 내륙으로 확대함으로써 내수면 어업지역의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역할을 하고자 한다. 강마을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1)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와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내륙어촌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의 목표와 단계적인 사업화 방안,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동 기본계획에는 정부와 지자체, 지역공동체의 재원마련과 효율적인 투자계획 수립, 기대효과 등 사업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2018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제4장의 〈표 4-2〉와 〈표 4-3〉에서 제시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강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과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연계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사업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2019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신규사업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ⅰ) 강마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ⅱ)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정비, ⅲ)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ⅳ) 강마을 관광활성화, ⅴ) 강마을 역사·문화의 보전 및 복원 등 5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제안하

고자 한다. 제시된 신규사업의 정책제안은 내수면 어업지역의 어업계 현장조사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 선진국 해외사례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도출되었다.

나. 내수면 산업 육성의 연계 추진

내수면 산업 육성은 〈표 5-1〉과 같이 내수면 어업과 낚시산업 선진화로 세분화되고, 이들 사업들은 강마을 신규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 내 부서별로 개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강마을 활성화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표 5-1〉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안)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강마을 신규사업	강마을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주민역량강화, 선진지 견학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정비	내수면 어항시설 확충 및 계류시설 정비
	부가가치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내수면 6차산업화
	강마을 관광활성화	강마리나 사업, 내수면 어촌체험마을 조성, 내수면 낚시공원 조성
	강마을 역사·문화의 보전 및 복원	내수면 어업유산 지정, 매력적인 10항 10색
내수면 어업 육성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인공산란장 설비, 설치효과 분석
	어도 개보수사업	어도 개보수, 모니터링, 어도 유지관리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양식단지 기반시설, 양식장 시설 융자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어류서식 및 산란환경 조성, 수산종묘 방류 및 육성관리, 어로어업 등을 위한 다기능 부잔교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설립	소비지 유통판매센터 조성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내수면 어업지역의 베스, 블루길 퇴치사업
낚시산업 선진화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환경 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 등
	낚시 전문교육	낚시터 운영업자, 낚시어선업자 대상 교육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주 : * 환경부, 지자체 매칭사업
자료: 저자작성

3)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강화

일본,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들은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별로 차별화된 지역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연구협력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순차적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동향과 성공사례 등을 교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강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강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은 '연안어촌 작은 SOC 사업' 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해양수산부 전담구역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연안어촌 작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

해면과 내수면 어업지역을 네트워크로 묶고 가칭 '연안어촌 작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방안을 해양수산부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 또는 정책연구를 추진하여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연간 약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강마을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해양수산부 전담구역 조정

일반농산어촌개발은 도시어촌과 내수면 어업지역의 경우 어촌개발사업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내수면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강마을 87개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를 해양수산부 소관업무로 재조정하고, 사업예산도 분리하여 현행 매년 850억 원 규모에서 1,100억 원 규모로 늘려 이중 매년 500억 원의 예산을 강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3.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은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으로 정하고, 기존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법률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의 비교를 통해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성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가. 강마을 활성화 수요 증대

강마을은 내수면 즉 하천 및 호소 주변에 입지한 촌락으로 내수면의 수산자원을 비롯한 경관자원, 체험 및 레저 관광자원 그리고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말한다. 이러한 강마을에 대한 기존의 정책은 단일 부락단위 농어촌 개발정책에서 일부 다루었으나, 강마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강마을 정책은 전무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강마을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는 첫째 농어촌 정책이 아닌 강마을이라는 독특한 특성이 지닌 공동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마을 활성화는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즉, 어촌도 농촌도 아닌 독특한 특성을 가진 강마을은 전통적인 어촌 및 농촌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는 단일 촌락 중심의 개발이 아닌 다수 촌락을 아우르는 강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강마을은 어촌이나 농촌처럼 어업 및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단일 부락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다. 물론 현재 농어촌 개발사업이 여러 개의 부락을 묶은 권역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부락단위로 시행되고 있어서 하나의 공동체 사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강마을은 하천이나 호소를 중심으로 여러 개 촌락에서 내수면을 이용한 사회경제 및 문화 활동을 하는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들 공동체의 활성화 사업내용은 어업만이 아니라 수산식품 및 건강식품의 가공업과 판매업, 내수면 자원을 이용한 레저, 체험 및 관광업, 요식업

및 숙박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단일 어촌 및 농촌 마을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들의 강마을 자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산과 바다를 넘어서 강이나 호소 등에서의 레저 및 체험 활동을 즐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만한 강마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즉 수요가 존재하고 수요에 부응할 만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부재하여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넷째는 강마을 구성원들에 대한 정책적 소외감 해소와 지역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내수면어업을 하는 가구들은 대부분 반농반어로서 산업적으로는 개별적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공동체는 단일 부락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농촌정책에서도 어촌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강마을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다.

나. 강마을 활성화 법제도 미비

농어촌 개발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농어촌리모델링법이라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어촌특화법이라 한다) 등 4개가 있다. 이들 법률은 크게 지자체 주도의 하향식 지역개발로 정주여건 개선이나 농어촌관광 등의 포함하는 「농어촌정비법」과 「어촌어항법」과 「농어촌리모델링법」과 「어촌특화법」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로 구분할 수 있다. 강마을 지역활성화 사업의 관점에서 4개의 법률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 법제도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는 강마을 활성화 사업 정책대상을 이들 법률에서는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 4개의 법률은 공통적으로 농촌 및 어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강마을과 같은 공동체는 촌락개념이라기 보다는 내수면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경제문화 지역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 법률에서 다루기는 한계가 있다. 물론 「어촌특화법」 제27조 특화위원회에서는 여러 개 마을이 연대하여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5-2〉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법률 비교

구분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목적	정주여건 개선 지역균형발전	어촌 경쟁력 제고 지역균형발전	주거환경 개선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주민주도 지속가능한 발전
대상지역	농촌/어촌	어촌	농촌/어촌	어촌
지원대상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원내용	생활환경 정비 관광휴양자원 개발	어업기반확충 어촌관광 활성화	노후 건축물 개선	6차산업화 (융복합화)
사업주체	지자체 (행정주도)	지자체 (행정주도)	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지역공동체)	특화어촌위원회 (지역공동체)
추진방식	하향식	하향식	상향식	상향식
재원조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자료 : 저자 작성

두 번째는「어촌특화법」을 제외한 각 법률에서 규정한 사업의 내용이 강마을 활성화 사업의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활환경 정비, 어업기반 확충, 노후건축물 개선과 같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마을 공동체가 수행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을 3개의 법률로 추진하기에는 대단히 제약돼 있다는 것이다. 단「어촌특화법」제2조(정의) 3호에서는 "어촌특화"란 특화어촌의 공동체가 특화어촌의 수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식품의 생산·가공 등 제조업과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재화와 용역을 융합·연계함으로써 특화어촌에서 생산·공급되는 물품 및 용역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대단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내용도 대부분 6차 산업화와 같은 산업화 관점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다.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지역주민 역량강화, 수계환경개선 및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복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 번째는 강마을과 같은 소외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특별지원 정책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물론 농어촌정비, 농어촌리모델링 및 어촌특화지원이 농어촌을 위한 특별 지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전통적인 농어촌에 대한 지원법으로서 강마을과 같은 독특한 유형의 어촌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고, 정책도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현행 농어촌 관련 법률은 강마을 지역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2) 강마을 활성화 법제도 정비방향

강마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방향은 크게 강마을 활성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법률에 강마을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 제정안과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이전에 우선 강마을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담겨야 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한다.

가. 강마을 활성화 법률의 내용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담겨야 할 내용은 〈표 5-3〉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강마을은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에 기초한 지역공동체로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 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강마을은 우리나라 국토의 6%에 해당하는 공간적 규모로 인구감소, 고령화와 농어업 쇠퇴 등 산업구조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곳으로, 관련 법률은 이를 위해 지역공동체 주도의 개발체계와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관부처는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가 되어야 한다.

〈표 5-3〉 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의 주요내용(안)

구분	세부내용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목적	강마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지역공동체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강마을 활성화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대상지역	내수면(하천 및 호소) 및 그 주변지역의 행정리
지원대상	지역/지역공동체
지원내용	-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어항, 자원조성, 낚시터 조성 등) - 내수면어업 육성(어로어업 및 양식업) - 지역특산 수산식품 및 건강식품 가공 및 유통업 육성 - 강마을 체험/레저/관광산업의 육성 - 강마을 정주여건 및 삶의질 개선사업 - 수계생태환경 개선사업 - 강마을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복원 - 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 -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기타 강마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방식	상향식
사업주체	지역공동체(강마을 지역활동그룹)
재원조달	- 강마을 활성화 특별회계 세입 ① 물이용 부담금의 일부 ②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점사용료의 일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자료 : 저자 작성

두 번째 대상지역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대상지역은 내수면(하천 및 호소) 주변의 행정리로 하고, 지원대상은 지역 및 지역강마을 공동체로 하여야 한다. 즉 일부 특정 행정리(부락) 단일 지역 단일공동체의 경우는 지역으로 하되, 그 이외의 지원대상은 내수면 및 내수면 관련 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그 내용으로는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어항, 자원조성, 낚시터 조성 등), 내수면어업

육성(어로어업 및 양식업), 지역특산 수산식품 및 건강식품 가공 및 유통업 육성, 강마을 체험/레저/관광산업의 육성, 강마을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사업, 수계생태환경 개선사업, 강마을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및 복원, 공동체 육성 및 지원사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 공동체 네트워크사업, 구성원 역량 등),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이 있다.

네 번째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 및 융자지원 사업의 명확화 및 재원 마련 및 운용의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 및 융자사업은 전술한 지원사업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야 하고, 재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물이용 부담금 및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점·사용료를 강마을 사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강마을 사업은 단순히 수산업이 아니라 내수면을 활용한 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내수면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동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또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강마을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면서 지역발전 사업이기 때문이다.

나. (가칭)「강마을 지역 활성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방안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이유는 첫째, 상기에서 정리한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법률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마을은 국민들이 선호하는 중요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낙후지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및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정책적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강마을 활성화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다.

제정방향은 첫째, 특정지역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법률을 제정하여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특정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 즉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정주여건의 노후화 등에 따라 쇠퇴하는 지역과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적인 4개의 법률을 〈표 5-4〉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5-4〉 특정지역의 지원 관련 법률 비교

구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서해5도 지원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목적	지역 성장동력 주민 복지향상 지역균형발전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폐광지역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도시 경쟁력 제고
대상지역	접경지역 (접경특화발전지구)	서해5도	폐광지역	도시재생지역 (쇠퇴하는 도시)
지원대상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역/지역주민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부담금 감면 - 기업 등에 대한 지원 - 민자유치사업 지원 - 사회복지 지원 - 교육문화관광 지원 - 농림어업 지원 - 지역주민 고용지원	- 사업비 지원 - 조세/부담금 감면 - 주민안전시설 지원 - 노후주택 개량 지원 - 정주생활자금 지원 - 공공요금 감면 - 생활필수품 운송지원 - 교육지원 - 공공시설/복지지원 - 농어업인 지원	- 인허가 의제 - 지역주민 지원 - 배당 특례 - 재정지원 - 대체산업 육성 - 국고 인상지원 - 교부세 지원 확대 - 조세감면	- 전문가 파견 지원 - 도시재생 기반시설 - 문화유산 보존 -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건축규제 완화 등 특례
사업주체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추진방식	하향식	하향식	하향식	상향식

자료 : 저자 작성

즉 접경지역, 서해5도, 폐광지역과 같이 정주여건에 대한 명확한 불리성에 기반하는 특정지역은 해당지역 내 지역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강마을이 특정지역(접경지역, 서해5도, 폐광지역)에 상응하는 불리성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상대적인 정책적 사각지대화로 인한 낙후성은 특별법에 의한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비록 특정지역 지원에 관한 불리성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이 낙후지역인 강마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반법 보다는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법으로 제정할 경우 지원의 특별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특히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기존 법률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중 강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동 법에 통합하여 일괄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마을 사업을 공유수면, 하천부지 및 농지 등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기 때문에 각종 법률에서 제한 또는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인·허가 의제가 이뤄지도록 하여야 한다.

벌률 제정의 가장 큰 장점은 강마을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각종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이 빠르게 추진되어 강마을 활성화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마을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에는 법률의 정책대상, 지원내용 및 재원 등에서 많은 난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였고, 추진의 당위성이 분명하며, 현행 법률로는 추진의 한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 「어촌특화법」 개정 방안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법률 정비의 또 다른 방안은 기존 벌률을 개정하여 동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유사성이 높은 법률은 「어촌특화법」인데, 이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동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그 방안으로 첫째는 동법에 강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별도의 장을 만들어 앞에서 정리한 강마을 사업의 내용을 모두 담는 것이다. 동법 제6조의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과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은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강마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에서 어촌을 '갯마을', '섬마을' 및 '강마을'로 구분하고 각 어촌별 특성에 맞는 어촌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보조 및 융자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제32조의 2를 개정하는 것이다. 동법에는 강마을 사업을 위한 각종 육성지원 사업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보조 및 융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본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불리성을 인정하여 보조 및 융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어촌특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근거가 동법에서는 빠져 있다. 제정 방안에서 언급한 강마을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의 근거를 신설 조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강마을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볼 때 동법은 어촌특화 및 공동체의 정의,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특화어촌위원회 구성 그리고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은 매우 적절하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어촌유형에 따른 특화가 부족하며, 보조 및 융자 지원대상, 재원에 관한 사항들이 부족하다. 따라서 동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법에 근거하여 어촌특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 사례가 없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어촌특화법」개정으로 추진할 경우 거의 전면개정 수준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촌특화법」개정 방안의 장점은 첫째, 이미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은 수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동법의 기본 취지가 강마을 활성화와 부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동법의 체계가 완전히 강마을 활성화 사업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개정수준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면개정으로 할 바에는 강마을에 한정하여 특화된 법률 제정이 도리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보조 및 융자와 재원에 대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어촌에 관한 지원들이 많이 이뤄졌는데 또 다시 특별지원을 하여야 하느냐는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강마을에 관해서는 어항 등 생산기반 시설부터 모든 면에서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어촌과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신규 정책으로 반영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어촌어항법」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어촌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계획이다. 2018년까지 제3차 기본계획(2019~2023년)이 수립될 예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전략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과 부합하는 정책과제의 일환으로 강마을 활성화가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해면 중심의 어촌어항 개발에서 내륙의 어촌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강과 바다를 잇는 지역정책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5-1〉 강마을 활성화 사업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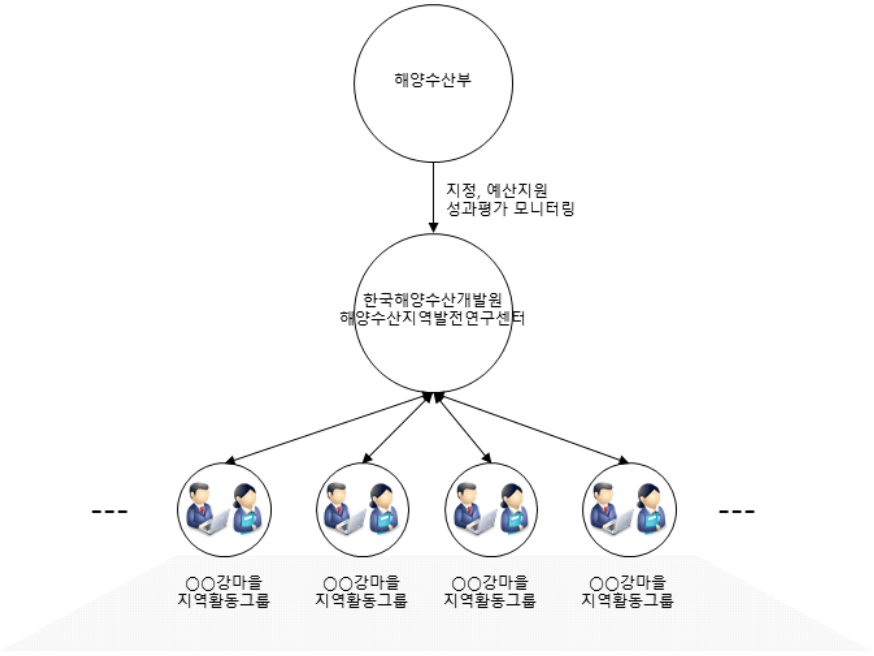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14~2018년)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추진방향 (2019~2023년)
	내수면 어업 육성 + 내수면 귀어귀촌 정착 지원 강화 + 어촌정책 범위 확대 ↓ 새정부 국정과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강마을 활성화 전략 ↓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반영

자료 :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자료, 20-14, p.13 ; 저자 작성

5.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을 지원하고 실행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담기관은 어업과 지역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업무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내에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발굴하고, 지원 등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다. 강마을 활성화는 지역활동그룹을 통해 내수면의 지역·경제·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하는 자율적인 상향식 지역개발 방식이다. 강마을은 특성상 전국 지자체에 고루 분포하기 때문에 사업화가 가시화되면 지역개발 수요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지원·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설립이나 지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 지정(안)



자료 : 저자 작성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시도별 지역연구원과 내수면 어업공동체 간 내수면 어업지역 파트너십 50개소를 지정하고, 연차별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종합적인 강마을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5-3〉 해양수산지역발전연구센터의 내수면 어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현장포럼



자료 : 저자 직접 촬영(촬영일 : 2017.12.22.)

참고문헌

〈국내 문헌〉

김대영 외,「미래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김선희 외,「일본 강마을만들기 지원정책 추진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2016
단양군, 남한강어업계 현황 내부자료, 2017
문화체육관광부,「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각 년도
박상우,「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박상우 외,「통합적 어촌개발 추진을 위한 어촌개념 및 범위분석 연구」, 해양수산부, 2014
박상우 외,「새로운 어촌종합개발의 개발방향 및 로드맵에 관한 정책연구」, 해양수산부, 2016
신현상 외,「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 증대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2013
심원섭 외,「관광레저 활성화를 위한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수립 기초 연구」, 문화관광체육부, 2009
양일승 외,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연구학회지, Vol.28, No.11, pp.109-123, 2014
예산군,「예당저수지 관광 종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014
예산군, 예당내수면어업계 현황 내부자료, 2017
원주시, 섬강어업계 현황 내부자료, 2017
윤진수 외,「내수면 목장화 사업을 통한 어민소득증대 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011
이상정,「어촌 촌락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경남문화연구 6권, 1983
이전,「촌락지리학」, ㈜푸른길, 2011
최지연 외,「내륙 공유수면 관리체제 기반 연구」, 해양수산부, 2013

통계청, 귀농어귀촌인 통계, 각 년도
한국농어촌공사, 유휴저수지 내수면자원사업 내부자료, 201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년도 현안분석과제보고서-수산분야 I, 2014
해양수산부, 「제2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수정계획」, 2015
해양수산부,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 및 실태조사」, 201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각 년도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내수면산업팀, 어업계 현황자료 내부자료, 2017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귀어인 통계 내부자료, 각 년도

〈해외 문헌〉

Peipsi FLAG, Development Association of Peipsi Fishery Area(에스토니아 수산지역 활동그룹 내부자료), 2017
Lake Pyhäjärvi FLAG, Fisheries and fishing methods in Lake Pyhajarvi(핀란드 피하자비 수산지역활동그룹 내부자료), 2017
European Commiss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dding Value to Local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s, 2015
European Commission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Diversification of Fisheries Areas, 2015
日本の水産庁, 内水面漁業の振興に関する基本方針(素案)_について(내수면어업의 진흥 관련 기본방침(초안)), 2014
(http://www.jfa.maff.go.jp/j/kikaku/shingikai/pdf/soan.pdf, 검색일 : 2017.05.27.)
国土交通省九州地方整備局, 都城かわまちづくり計画書,
(http://www.qsr.mlit.go.jp/miyazaki/kasen/kawamachi/keikakusho.pdf, 검색일 : 2017.05.27.)
天下一五ヶ瀬かわまち創ろう会, 天下一五ヶ瀬川かわまちづくりアクションプラン, 2013,

(http://www.city.nobeoka.miyazaki.jp/tempimg/141029095128201711081327370f.pdf, 검색일 : 2017.05.27.)

〈인터넷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실국별 주요업무, (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4682/DTL.jsp, 검색일 2017.05.30.),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http://www.tour.go.kr/, 검색일: 2017.05.25.)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wkd/mn_dammain.aspx, 검색일 : 2017.05.16.)

네이버 블로그, 2016년이 기대되는 이유 - 제5회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sbukgusns&logNo=220563355300, 검색일 : 2017.10.10.)

네이버 블로그, 아산시 쌀조개섬 관광지 조성 추진현황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wg6989&logNo=220965792805&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검색일 : 2017. 5. 25)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조직도, (http://www.mafra.go.kr/list.jsp?board_kind=&board_skin_id=&depth=2&division=H&group_id=5&link_menu_id=114&link_url=&menu_id=93&menu_name=%C1%B6%C1%F7%B5%B5&parent_code=76&popup_yn=N&reference=1&tab_yn=N&code=left, 검색일 2017.05.30.)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http://www.raise.go.kr/, 검색일 : 2017.05.31.)

단양군 홈페이지, 단양군 특성(https://www.danyang.go.kr/dy21/%ED%96%89%EB%B3%B5%ED%95%9C%EB%8B%A8%EC%96%91/%ED%8A%B9%EC%84%B1, 검색일 : 2017.10.10.)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라는 '화천 산천어축제' 가보니 (http://reporter.korea.kr/newsView.do?nid=148772948, 검색일 : 2017.5.15.)
두산백과, 트론헤임 역사지구(https://www.doopediat.com/11_Menu/TravelView?autoplay=N&ptm_idx=171001000033430, 검색일 : 2017.10.10.)
디라이브러리, 살아 쉼쉬는 녹색의 도시-유럽의 환경생태도시를 만나다 (http://dl.dongascience.com/magazine/view/C200621N001, 검색일: 2017.10.10.)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연천 전곡리 유적 (漣川 全谷里 遺蹟)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VdkVgwKey=13,02680000,31&pageNo=5_2_1_0#, 검색일 : 2017.10.10.)
바다여행 홈페이지, 가람애마을 맨손 고기잡이 체험 (https://www.seantour.com/plan/content/view/?cid=FCID101434, 검색일 2017.05.30.),
수산인신문, 어촌특화발전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진행, (http://www.isusa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38, 검색일 : 2017.10.10.)
수산정보포털, 내수면어업현황 (http://www.fips.go.kr/jsp/farm/farm_info3.jsp?menuDepth=030202, 검색일 : 2017.05.31.)
아산뉴스, 아산호 환경정화…쓰레기 15톤 수거 (http://www.asannews.co.kr/sub_read.html?uid=38309&section=sc3, 검색일 : 2017. 5. 25)
어업인수산, 수협, 어업인 일자리지원사업 활성화 주력 … 온라인 서비스 강화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5, 검색일 : 2017.10.10.)
원주신문, 황금물결 섬강 자전거도로 (http://www.iwj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2, 검색일 : 2017.05.28.)

월간조선, 〈카메라 낚시〉 무료낚시터 평택 아산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_r.asp?Idx=470&Newsnumb=20041006, 검색일 : 2017. 5. 25)
충남투데이, 예산군 예당전국낚시대회 개최
(http://www.cn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8835, 검색일 : 2017.05.25)
충북일보, 괴산군, 중부권 최대 수산식품 거점단지 '첫 삽'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420153,, 검색일: 2017.05.30.)
티스토리, 삼삶스토리(http://samsamstory.tistory.com/1182, 검색일 : 2017.5.15.)
한겨레 환경생태 웹진-물바람숲, 기자가 걸어본 이자르강,
(http://ecotopia.hani.co.kr/?document_srl=30092, 검색일: 2017.10.10.)
한국경제, '가야 왕국' 스토리텔링…10억 들여 '560억 축제' 키워 낸 김해
(http://www.hankyung.com/news/realtime/index.php?aid=2017022295171, 검색일 : 2017.10.10.)
한국관광공사, 단양 양백산 전망대
(http://kto.visitkorea.or.kr/kor/notice/cheongsachorong/SpecialTheme/choBoard/view.kto?id=421346, 검색일 : 2017.05.27.)
한국관광공사, 쪽배축제
(http://korean.visitkorea.or.kr/kor/bz15/tp/content/view.jsp?cid=2425196, 검색일 : 2017.05.15.)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 알리미 서비스(저수율 현황)
(https://www.alimi.or.kr/dataview/a/waterStatus/selectYsNationalAggregate.do, 검색일 : 2017.7.18.)
한국농어촌공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관련자료
(http://www.ekr.or.kr/Kkrpub/cms/index.krc?MENUMST_ID=20483, 검색일 : 2017.05.15.)
한국어촌어항협회 홈페이지, 어촌체험마을 분포,
(https://www.fipa.or.kr/village-popup, 검색일 2017.05.30.)

해양경찰청, 조직도(http://www.kcg.go.kr/kcg/intro/org/, 검색일 2017.05.30.)
해양수산부, 조직 및 연락처(http://www.mof.go.kr/content/view.do?menuKey=630&contentKey=6, 검색일 2017.05.30.)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리시스템,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시스템 (http://61.74.250.105/bss/sub00/0001/, 검색일: 2017.05.25.)
행정안전부, 조직과 기능(http://www.mois.go.kr/frt/sub/a07/orgranFunction/screen.do, 검색일 2017.05.3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검색일 :2017.05.31.)
화순일보, 화순 능주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순조, (http://www.hwasun1.com/read.php3?aid=146452404811300t1, 검색일: 2017.05.30.)
화천군, 포토갤러리(http://www.ihc.go.kr/photo/selectPhotoInfoWebList.do?key=2124&ctgryNo=124&pageUnit=48, 검색일 : 2017.05.15.)
화천산천어축제, 행사장 안내도(http://www.narafestival.com/01_icenara/?wr_id=6, 검색일 : 2017.5.15.)
화천쪽배축제, 행사장 안내도(http://www.narafestival.com/02_water/?wr_id=3/, 검색일 : 2017.5.15.)
환경부, 조직 및 기능(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314, 검색일 2017.05.30.)
SBS,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농어촌수익사업의 획기적사례 (http://program.sbs.co.kr/builder/verticalEndpage.do?pgm_id=000000259681&pgm_mnu_id=22946&pgm_build_id=30&pageIdx=17&bbsCd=tb_network1&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contNo=8292, 검색일 : 2017.05.27.)
国土交通省, 강마을만들기 140개소 지도 (http://www.mlit.go.jp/river/kankyo/main/kankyou/machizukuri/map.html, 검색일 : 2017.05.27.)

ClickZoom 홈페이지, Tiny but Shiny: The Most Charming Small Towns around the World You'll Want to Visit ASAP (http://clickzoom.net/travel/tiny-but-shiny-the-most-charming-small-towns-around-the-world-youll-want-to-visit-asap, 검색일 : 2017.10.10.)

FARNET, Bothnian Sea and Lake Pyhäjärvi FLAG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2/on-the-ground/flag-factsheets/bothnian-sea-and-lake-pyhajarvi-flag_en 검색일 : 2017.07.30.)

FARNET, FLAG Lake Peipsi,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fishing-festivals-activities-flag-lake-peipsi-ee, 검색일 : 2017.05.30.)

FARNET, Projects state of play-May 2015: 11,316 projects (https://webgate.ec.europa.eu/fpfis/cms/farnet/tools/flags-2007-2013, 검색일 : 2017.05.25.)

Globe Trotter in Estonia, (https://www.erepublik.com/en/article/globe-trotter-in-estonia-2633676/1/20, 검색일 : 2017.05.30.)

Wikipidia : "Commune"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e, 검색일 : 2017.05.30.)

강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 인 쇄	2017년 10월 29일 인쇄
• 발 행	2017년 10월 31일 발행
• 발 행 인	양 창 호
•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 조판·인쇄	효민디앤피 051-807-5100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394 - 0337

정가 15,000원